



5

198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7. 5호

(루계 475)



◆◆◆◆◆◆◆◆◆◆ 차 례 ◆◆◆◆◆◆◆◆◆◆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자!.....	4
원화리, 력사의 땅이여.....	6
혁명의 첫 동지.....	7
향도의 빛발.....	8
귀틀집생가.....	8
백두산으로!.....	9
동강의 5월.....	11
소사하의 추억.....	12
관평으로 가는 길.....	14
내앞에 기관총좌지가 있다.....	15
병사들은 조국을 안고 산대요.....	15
어머니의 모습.....	16
칼도마소리.....	23
현대문학의 진로를 밝혀주는 위대한 강령적문헌.....	29
나는 90 년대를 확보한다.....	32
집이여!.....	33
흐르는 물결에 추억을 싣고.....	34
진심으로.....	36
진정.....	37
우리가 몰랐던 소원.....	38
상봉지점.....	39
순천의 대답.....	41
용접공동무여(외 1 편).....	41
우리의 마음속에.....	42

발머리의 아낙네	42
약속	43
조카의 모습에서	49
우리의 70 만	50
풍경화	51
대동강	51
어느 집 문을 열어도.....	52
첫 열매	53
잠들수 없는 밤에(외 1 편).....	54
바다와 갈매기(외 1 편).....	55
눈보라 몇은 밤	56
땅의 노래	62
들에 대한 생각	64
나의 졸업논문	67
보통날에	68
광부 그 이름으로.....	69
한달도 마지막날에(외 1 편).....	70
광주는 솟아있다	71
《생각깊은 산마루》에 마음을 얹고	71
형상의 매력은 어디 있는가	72
해와 별 빛나는 곳에서	75
나는 로동자	79
우리의 념원	79
원혼들	80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고전적문헌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년이 지나갔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 로작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양양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혁명적작품창작에서 나서는 미학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로작은 거기에 담겨져있는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독창성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위대한 강령으로 되고있으며 작가들을 혁명적작품창작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비서이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문학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27페이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우리 문학의 생명이다. 사회주의문학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이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떠나서 우리 문학의 혁명적사명과 전투적기능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지키는 데 대한 방침을 시종일관하게 견지하여왔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계속되고있는 현실적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설고있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온갖 반동적인 문예사상의 침습을 막아낼수 없으며 우리 문학을 당과 혁명의 요구에 맞게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없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지키는 문제를 문학작품의 정치성, 사상성을 높이는 문제로만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문학의 본질적특징이며 사회계급적성격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문학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문학작품의 사상적내용에서뿐아니라 예술적형식에서도 표현되며 그것은 종자를 골라잡는데로부터 형상창조의 전과정을 거쳐 일관하게 구현되지 않으면 안된다. 문학작품이 훌륭한 정치사상적내용을 담고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술적형식이 당의 요구에 맞지 않고 로동계급의 계급적지향과 인민의 념원에 맞지 않는것으로 꾸러지게 되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된 작품이 창작될수 없다.

작가들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당의 요구에 맞고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과 인민의 지향에 맞는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견지하여야 할 사상미학적원칙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작품창작의 전과정에 걸쳐 그리고 창작의 모든 단계들에서 이 원칙들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문학작품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는것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며 우리 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해불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한 문학작품들은 대중을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수단으로 될수 있다.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튼튼히 의거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립장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문학작품에 당의 정책적요구를 제때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지키는데서 또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로동계급적선을 바로세우는것이다. 작품창작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바로세워야 당의 요구와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문학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낼수 있다.

작품창작에서 창작가들이 로동계급적선을 바로세우지 않게 되면 인간의 기구한 운명이나 남녀간의 삼각련애를 추구하는것과 같은 그릇된 창작경향에 빠지게 되며 계급선이 모호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된다.

작품창작에서 로동계급적선은 창작가들이 문학작품에서 로동계급의 전형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생동하고 뚜렷하게 형상하며 자본가계급의 착취적본성과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상을 예리하게 폭로단죄하는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로동계급적선을 바로세우는것은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필수적담보로 된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지키려면 작품에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창작은 생활표사로 시작되며 생활표사로 끝난다. 생활을 잘 그리지 않고서는 창작에서 나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다. 문학작품에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구현하는 문제도 구체적인 창작실천에서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리는 문제를 떠나서 실현될수 없다.

문학작품을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해관계에 맞게 창작하려면 우리 인민의 전형적인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전형적인 생활이란 시대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체현하고있는 생활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생활은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속에 있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내달리고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과 그속에서 벌어지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그려야 문학작품에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할수 있으며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해낼수 있다. 현시기 제3차7개년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과 보람찬 생활을 적극적으로 그려낼대신 《특이한 생활》을 형상한다고 하면서 세태적인 생활이나 《변두리》생활을 그리는데 몰두하게 되면 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수 없으며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해낼수 없다. 창작가들은 마땅히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 시대의 혁명적현실에서 주류를 이루고있

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인 생활, 전형적인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리는데 창작적 열정과 힘을 기울여야 한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면 창작가들이 자연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인 창작경향을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자연주의, 형식주의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양립할수 없다. 자연주의, 형식주의는 문학작품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영하고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는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자연주의는 현실을 현상적으로 기계적으로 묘사하며 생활의 본질과 진실을 외곡하는 반동적 문예사조이며 형식주의는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무시하고 형식만을 내세우는 반동적경향이다. 작품창작에서 자연주의와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지 않으면 문학작품의 사상적순결성을 고수할수 없으며 문학을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없다.

지난 시기 일부 창작가들이 사회생활과 동떨어져서 자연을 그대로 노래하고 사회현상을 자연주의적으로 묘사하며 사회주의현실을 미화분식하거나 과장하는것과 같은 자연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창작경향을 발로시킨것은 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였기때문이었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수정주의의 침습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수정주의는 부르조아사상과 마찬가지로 문학작품창작에서 마약과 같은 해독적인 작용을 한다. 창작가들은 문학분야에서 수정주의적경향에 대하여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자그마한 싹이라도 자라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없애버려야 한다.

문학분야에서 수정주의의 침습을 철저히 막아야 우리 문학을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혁명적문학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우리 문학을 당과 혁명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며 주체문학의 혁명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창작가들은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제3차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보람찬 투쟁을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원화리, 력사의 땅이여

변흥영

앞에는 푸른 벌
수령님 해마다 찾으시며
안아주시고 가꿔주신 이랑우에
풍년모가 우줄우줄 키를 솟구고

뒤에는 파일동산
수령님 보내주신 어린 나무 자라
숲을 이룬 산언덕에서
목메일듯 꽃향기 풍겨오는구나

전화의 그날
이슬내린 짚단우에 앉으신채
한 농민의 단잠을 지키시여
날뵈기를 기다리신 프락가엔
그날의 그 살구나무 한그루

손수 종자다랭이를 드시고
이고장 농민들과 하루를 보내시며
풍년씨앗 뿌리시던 이랑우엔
이해에도 풍년봄이 푸르렀어라

한쪽의 그림처럼
줄지어선 아담한 2층집들도
수령님 몸소 지어주신 사랑의 집
저 나지막한 언덕우에
희망의 창문들을 높이 올린 학교도
수령님 터잡아주신 배움의 요람

잉어떼 옥실대는 못가를 거닐어도
그 사랑은 가슴가득 출렁이고
푸른 벌을 안고솟은 전망대에 올라도
수령님 펼쳐주신 전변에 찬 나날들이
한가슴에 안겨오는구나

여기서 협동화의 첫 종소리
온 나라에 제일 먼저 울려주시고
여기서 조합원명단에
자신의 존함을 올려주신 수령님
해를 두고 베푸신 그 사랑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아, 세월이 흘러 변한 산천이 아니구나
몇마리의 소와 몇개의 연장으로
첫 조합을 무은 이고장
초가집 몇채뿐이던 이 부락에
공산주의리상촌이 솟아오른
원화리, 력사의 땅이여

내 성스러운 이 땅을 밟으며
천백번 다시 깨닫노니
우리 수령님
한 농촌마을에 베푸신 사랑이
이리도 크거늘
한평생 인민을 위해
온 나라를 걷고 걸으시는 그 사랑은
정녕 얼마나 크고 위대한것이냐!

혁명의 첫 동지

리정술

고요한 밤
평양역두에서 울려오는
기적소리-
저 기적소리 들을 때마다
나에겐 떠오르는 화폭이 있나니...

우리 수령님
열네살 어리신 그 나이
북행렬차에 오르실 때
기적소리 구슬픈 평양역에서
눈물로 배웅한 한 소년의 모습

이십리 비물고인 진창길을 달려와
떠나시는 수령님의 옷자락 부여잡고
소중히 안겨드린 보꾸레미안엔
주먹밥과 사과 몇알
눈물로 마련한 돈 3원

짓밟힌 조선이 너무도 가난하여
먼 길 떠나시는 우리 수령님께
아무것도 드릴것이 없던 그 시절
오직 뜻과 마음만을 같이 나눈 소년

세월이 흘러
이제는 수십여년이 지나갔어도
우리 수령님 그를 못잊어
나의 첫 동지였다고
자주 외우시나니...

아, 조선혁명이 시작된
력사의 첫 기슭에서
수령님을 손저어바래드린
첫 동지!

캄캄한 암흑의 천지
믿을것이 없던 그때 그 시절

오직 하나 광명을 찾아 안긴 그 품
떠날수 없어 따라서고
헤여질수 없어 다시 안기던 그 모습

그 품에서 받아안은 그 녀 그 인간애
잠시도 떠나 못살아
비물고인 역두에
울며 서있던 그 모습

못잊으시여 그를 못잊으시여
우리 수령님
북행렬차의 차창에 서시여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던 소년의 모습

아, 그날로부터
세월은 흘러
수십년 꽃은 피고 락엽은 졌어도
수령님의 기억속에
영원히 살아 빛나는 그 모습

그 어느 석공이 다듬어세운
비문들과 기념비들에
그 이름 새겨져있지 않고
그 이름 기록되어있지 않아도

한번 수령님의 품속에 안긴 전사는
세월의 눈비에도 그 모습 지워지지 않고
한번 수령님의 기억속에 새겨진 동지는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있나니

그는 오늘도
이 땅에 태어나고 태어나는
수많은 동지들의 맨 앞에 서서
정다운 미소를 보내주고있구나
수령님의 기억속에 영원히 살아

향도의 빛발

에췌네 아꾸에떼 아꾸에

2월 16일은 영광의 날
축복받은 날
향도의 빛발 위대한 아들
탄생하신 날

축복을 받으라 주체의 조국이어
그대의 절세의 아들의 탄생으로

그대의 영광 빛나고
세계의 자랑 높거니

조선의 향도의 빛발
위대한 그 빛발 저 멀리 비쳐가

세계에 불게 타오르리

(필자는 또고조선친선협회 부서기장임)

귀틀집생가

리종덕

산처럼 쌓아온 그리움을 안고
귀틀집생가의 트랙에 들어서니
오늘도 지붕엔 백두산의 흰눈이
내리고 내려와 쌓이고있구나

백두산의 못새들도
고운 노래 모아오던 피창가
백두산의 사슴들이 밤마다
초롱눈으로 지켜주던 트랙

내 삶의 따뜻한 품을 지켜
세월의 눈비를 다 막아주며
천고의 밀림속에
도끼자리 톱자리 그대로 서있는 집

그이의 첫 영상을 우주가 비껴안았을 때
지구는 채색운무를 비단필처럼 감았으리
봄우뢰인양
이 귀틀집창가를 흔든
그이의 목소리
장군봉에 쩌렁- 메아리쳤으리

오, 사령부귀틀집과 트랙을 잇대이고
창을 마주한 귀틀집
그이의 첫 눈동자에 비낀것은
사령부의 밝은 불빛
순간순간이 불멸의 력사로 이어지던
사령부의 숨결을
뜨거운 심장으로 호흡한 집이어

이 트랙에서
천리준령도 주름잡으실 큰 걸음 떼시고
인류천만년이 알지 못하는
항일대전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위대한 의지를 키우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오오, 백두산의 귀틀집
귀틀은 주춧돌우에 놓여있지 않아도
억년 드놀지 않을
백두의 용암 대지우에 받들리워있구나
우리 당 력사의 만년초석우에

백두산으로!

박웅전

내 세상길 걷던중

백두산에 오르면
시도 읊고 오라고
천지의 맑은 물도 떠오라고
벗들의 부락도 뜨겁더니

해쫂는 동해선 렬차우에서
잠시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혁명의 성지 혜산역두
서로 엇갈려 떠나는 답사객들도
우리 가는 앞길을 축복해주더라
백두산 오를 날에 하늘 맑기를!
성산의 해돋이 놓치지 말기를!

밀림도 이야기 해주더라
백두의 바람결도 벌써 마중 달려와
나를 얼싸안고 속삭여주더라
백두산에 올라보아야 조선을 안다!
백두산에 올라보아야 혁명을 안다!

부락도 많아라

축복도 뜨거워라
그래서 떠날 땐
내 한결음으로 시작했어도
그 뜨거운 마음들이 나를 받들어
산 넘어 구름 넘어 훨훨
마음은 벌써
백두산상상봉에 오르나니

투사들 피로써 열여온 길을
끝없는 축복속에 가는 이 영광을
아, 내 무엇으로 보상하랴

마음은 날고
걸음은 나래돌려도
조선의 아들
백두의 아들된 도리 다해갈
가장 숭고한 의리와 의무로 하여
내 세상길 걷던중
짐은 제일로 무겁구나!

밤 길

백두산해돋이 첫 마중하자고
신무성 지나서도 몇십리
밤이 깊도록
차들은 쉬임없이 가고 또 가고
밀림은 끝없이 흘러흐르는데

이게 웬 대오인가?
전조등 불빛에 드러나는
길옆에 두줄로 늘어선 대오
끝이 없구나, 씩씩한 행렬
손을 흔드누나, 혈기넘친 젊은 얼굴들...

새 진군명령 받아안으려
백두산사령부 찾아서 가는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진리가
자욱마다 피로 새겨진 성스런 길이어서
걸음걸음 새기며 그대들은 가는가
병사들, 대학생들, 청년돌격대원들...

내 마음 진정할수 없구나
온 겨레의 뜨거운 마음들이
잠들줄 모르고 물결쳐가는
백두의 행군길이어

그 품을 떠나선
순간도 살수 없고
그 품을 떠나선
영웅도 박사도 낳을수 없는
크나큰 혁명의 품
혁명의 젖줄기따라
어제도 오늘도 이 밤도
끝없이 달려가는 충성의 대오여

오, 이것이 바로
이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용암처럼 뜨겁게 끓이쳐흐르는
혁명의 역센 피줄기구나

새 벽

내 평생 일찍 깨지 못한
그 모든 새벽들도
여기 와서 한꺼번에 깨어나는가
내 어릴적에
잠든 새벽창문을 흔들며 달려간
그 모든 기발들과 행렬들도
여기서 다시 만날듯

푸름푸름 동터오는 첫새벽빛속에
마침내 장엄한 웅자를 드러내는
아, 백두산 백두산을 향하여
끝없이 물결쳐오르는 대오
명절 새벽의 광장처럼 봄비는
백두산기슭의 첫새벽이여

사람마다 자고 깬 무수한 나날에

새벽을 맞은 지점은 서로 달라도
참된 삶의 길 인생의 길을 밝힌
그 새벽은 여기서 시작되었나니

그래서 예서 모두 떠나지 않았던가
저 푸른 하늘을 눈동자에 새기고
저 불타는 노을을 기발로 날리며
투사들, 영웅들과
나를 앞서간 위훈자들이...

오, 그래서 인민은 날마다
《장백산 즐기즐기 피어린 자욱...》
그 뜨거운 음향속에
백두의 이 하늘밑에서 일찍 잠을 깨고
온 나라가 이 하늘밑에서
새날의 총진군을 시작하고있어라!

백두산에 올라

폭풍같은 만세소리는
장군봉에 메아리치고
천지의 푸른 물에 격랑을 일으키는가
백두산마루에 올라 설레는 마음 안고
내 지금 드넓은 조국땅을 굽어보노라

생각나라, 어릴적
분여받은 땅에서 풍작이룬 기쁨에
사람들 나를 덩실 안아올려준
그 풍년날가리우에서
내 얼마나 기뻐했던가
온 마을이 다 보인다고

또 얼마나 즐거웠던가
선생님 손목 잡고 오른 등산의 산정에선
내 고향 산과 들이
그림처럼 한눈에 안겨온다고...

허나, 오늘은 정녕
목메이는 감격속에 보이는구나
이처럼 영광의 상상봉으로
내 인생을 받들어올려준
은혜로운 사랑의 세계가
성스러운 혁명의 세계가

이 사랑에 떠받들려
얼마나 많은 투사들과 영웅들이
여기서 태어났고
오늘도 여기서 자라나고있는가

아, 여기선 혁명을 위하여
가장 불타는 심장
영원한 청춘들이 태어나는곳
위훈없이 공격없이 살수 없으리라
백두산이 굽어보는 이 땅우에서

죽을수도 없으리라
백두산에 한번 올라본 사람은
행복의 풍년날가리
아름다운 고향의 산과 들도 다 있는
위대한 내 조국의 존엄과 영예
한몫 바쳐 끝까지 빛내이기전에는

오, 백두산아
너는 영원한 세월 이 나라 아들딸들을
가장 빛나는 삶의 절정
위훈의 상상봉으로
높이높이 안아올려주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데없는
위대한 수령님 위업의 높이였구나

동강의 5월

박세일

5 월이었다...

꿀짜기의 물소리 한결 커지고
동지를 꾸리느라 분주한 새들이
이 산 저 산 날아에는 동강의 5월

귀엽게 입을 여는 진달래꽃잎에만
따뜻한 봄빛이 비꼰다더냐
붉은기 펴려이는 숲속의 밀영에도
봄빛은 가득히 차넘쳤더라
밀영은 때아닌 명절을 맞았더라

려명을 알리는 새벽빛인가
예지로우신 그 눈빛
얼음장을 깨치는 봄우뢰인가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
아!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
조국광복회 창립을 선언하셨더라

순간 밀영우에 휘날리는 붉은 기폭
세월의 창공너머
새세기의 령마루에 퍼덕이고
밀영에 차고넘친 환호는
광복된 조국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가고

조선사람이라면 너나없이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고
뭉쳐야 일제를 쳐부시고 부강조국을 세울수
있다고

단결의 기발처럼
손길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장군님

참으로 간고한 길을 헤쳐
이날을 마련하셨더라
남호두에서 동강으로-
행군과 전투, 전투와 행군
눈보라 천리 또 천리...

서재가 아니라 우등불가에서
사색과 탐구로 찾으신 진리
책상이 아니라 무릎우에 펼치신 수첩장우에
한자두자 적으신 불멸의 글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조항조항은
혁명의 보습으로 낡은 사회를 갈아엎고
새사회의 대지우에 뿌린
참으로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었거니

바야흐로 그 씨앗을 움틔우며
새조선의 봄을 부른 그해의 봄
번영하는 조국의 오늘의 모습을
그때 벌써 펼쳐준 새시대의 봄

5 월이었다...

계절따라 찾아온 봄이 아니라
김일성장군님 한품에 안고오신
조국광복의 봄이었다
1936년 동강의 5월은!

소사하의 추억

항일혁명전적지를 찾아서(2)

권정웅

길은 매우 좋았다. 산길이지만이지 석비레를 다져서 길이 반반하였으며 오히려 그것이 고산지대풍경을 돕는듯하였다. 서남쪽으로 뻗은 이 길로 줄곧 올라가면 백두산에 이르게 된다. 길 양 옆에는 활엽수들이 우거졌다. 물푸레, 가래나무, 참나무들이 태반이다. 간혹 이깔나무숲이 끼여있을뿐이다. 골바닥에는 개버들과 오리나무, 물박달이 무성하였다. 산들은 모두 민뜻하였고 골짜기들은 환하게 트이여 산골짜기라는 느낌을 주지 않았다.

군데군데 나타나는 마을들, 립산토장들 그리고 감자밭들 모두가 그러하였다. 논밭에서 일하는 농민들, 간혹 보이는 얼음과자상자를 실은 자전거들, 그리고 길가에 나와 노는 아이들...

하지만 1930년대 그때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있는것이다. 명월진을 떠나서 한 30분 달렸는데 거기에는 큰 저수지가 나타났다. 거기 사람들은 이것을 수고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는 북만향이라는곳인데 글자 그대로 북이 충만된 농업과 함께 립산을 겸한 마을 같았다. 그다음은 령길이었다. 아득하게 올리뻗은 길이었다. 결국 북으로 향한 송화강과 남으로 흐르는 두만강의 흐름이 갈라지는 마루인것이다.

여기 와 보면 인차 항일무장투쟁의 첫걸음을 여기서 떼게 된 까닭을 알게 된다. 끝을 알수 없게 중심이 깊은 산골짜기, 세파에 밀려서 가고가다가 더 갈데 없어서 걸린 인가들, 어데나 씨앗을 묻기만 하면 감자전 강냉이전 넉넉히 혜택을 주는 비옥한 땅이 그런것이다. 아직도 인적을 보지 못한 땅이 얼마든지 있을것 같았다.

황구령을 지나서부터는 물이 모두 북으로 흘렀다. 우리는 벌써 지금은 수경이라고 부르게 된 대사하물목에 이른것이다. 대사하는 금창과 고동하쪽에서부터 여러 갈래의 물줄기를 걷어모았기 때문에 강폭이 넓고 수량이 풍부하였다. 물버들이 한벌 깔린 질퍽한 개바닥을 넉넉히 채우며 흐르고있다. 그러니 여기를 류수하-버드나무개라고 할만도 하다. 우리는 안내자의 설명이 없이도 이 근방에서 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의 활동에 대하여 상기하게 되었다. 양초구, 고등창, 금창, 대전자, 푸르허 등 하나의 물줄기를 따라 모여붙은 마을을 하나하나 혁명화해나갔던것이다. 하다가 1932년 늦가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사

하에 들리시였을 때 유격대에 참가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던 량강구도 여기 지척에 있는 것이다. 문풍지가 음울하게 울고있는 설렁한 객주집 옷방에서 언두부 한모를 놓고 잔을 붓게 되었을 때 형도 아우도 동시에 가슴을 저미는것 같은 아픔이 생겼던곳이다.

어느새 우리는 소사하어구에 와닿았다. 바쁜 일을 다 뒤로 미루고 먼 로정을 동행해나선 안도현장은 소사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소사하는 물줄기를 따라 골개가 지고 높은 지대이긴 하지만 벼가 자라고있었다. 구룡이 진 등성이에선 모두 감자를 심었다. 큰길어름에서 물길을 따라 올라가면 무수툰이 7리, 무수툰에서 토기점골이 개울을 건너 5리 되나마나하였다.

우리는 문득 개울언덕에 서있는 느티나무 한그루에 시선을 보내었다. 바람은 없는것 같은데도 나무잎은 설렘었다. 푸르싱싱 자라오른 가지들은 여름기운을 한껏 풍기고있었다.

《혹시 저 나무가?》

하고 누군가 혼자소리를 질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토기점골에 드나드실 때도 저 나무가 저기에 서있지 않았을가. 하다면 저 나무는 훌륭한 력사의 증견자가 아니겠는가.

무수툰 뒤산을 끼고 마치 풀어놓은 땡기오리처럼 이리 굽고 저리 감돌아 밭구길이 나왔었다. 토기점골로 갈라지는 물목에 나무다리가 놓였다.

그렇다, 이 길이 틀림없다. 명월구에서 무장투쟁로선을 채택한후 유격대를 조직하기 위해 각 지방에 나갔다가 돌아오신 길도 이 길이며 어머님께서 병환에 계시여 구차한 살림을 메꾸기 위해 좁쌀 한말을 구해가지고 온 길도 이 길이다. 또 유격대창건을 보여주기 위해 어머님을 모시고 발재툰 등판에 오르신것도 이 길이다. 차마 밭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집둘레를 돌고있을 때 어머님께서 방문을 열어제끼시며 《왜 떠나지 못하고 그러고있느냐. 집걱정을 하면 혁명을 못한다. 어서 떠나거라》 하시여 남만을 향해 밭걸음을 돌리시던곳도 여기인것이다.

나는 느티나무밑 밭구길을 걸었다. 밭등에 풀줄기가 감기고 메뚜기가 뛰여오른다.

바로 여기서 항일무장투쟁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자못 감개무량하였다. 저 언덕에서 1932년 4월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게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에 대한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동무들!

오늘 우리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려 강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라도하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 연설이 끝나신후 《앞으로 갓!》 하는 한마디구령에 의해서 첫걸음을 떼서 오른다.

조국해방이 이룩되는 그날까지 10 여섯살, 그 길에는 숲속도 있었고 진펄도 있었으며 눈보라만 리 피자옥을 찍으면서 걷고 또 걸으시여 수천만 리가 잇닿아있었던것이다. 초기 대원 몇명이 로흑산에서 적의 포위를 뚫고나온 길도, 눈보라속에 백일의 고난의 행군도 소부대가 정찰을 나가다가 전우의 무덤앞에서 모자를 벗어두고 추모하던 그 길도 그리고 모란봉 공설운동장에서 개선연설을 하시던 그 넓은 길도 여기에서 시작되었던것이다.

설레이기 시작한 가슴을 안고 나는 개울가에 내려갔다. 한쪽에는 논, 다른 한쪽에는 잡초가성한 둔덕을 끼고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있었다. 물밑은 알른알른한데 송사리떼가 헤엄치고있다.

나는 물을 움켜서 불에 대보았다. 향긋한 물비린내가 나고 온몸에 짜릿한 랭기가 미쳐왔다. 순간 가슴이 뭉클하였다. 길은 길이라서 생각이 많이지더니 손에 떠든 물은 어찌면 이렇게도 많은 사연을 속삭이는지 몰랐다. 1932 년 가을, 남만에 나가셨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잠깐 여기에 들리시었다. 중병으로 계시던 어머님께서는 좀 어떠하시는지 이제 다시 여기를 떠나면 언제 또 찾아오게 될지 기약이 없는것이다. 왜 그런지 그이의 마음은 불안하시었다. 그때 이 개울가에서 물결을 보시며 이제 어머님을 만나뵈울 장면을 그려보시었다. 거울알같은 수면에는 문지방에 의지해서 손을 들어보이던 어머님이 생동하게 비쳐있었다. 그것으로 해서 그이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토기점골초가집의 문고리를 잡아당기시었던것이다.

《어머님! 내가 왔습니다.》

방안은 뒹뒹그런데 아래목에 누워있어야 할 어머님은 보이지 않으셨다. 다음날 산기슭으로 올라가시었다. 어머님은 이미 새 흙으로 빛은 분묘밑에 누워계신것이다. 자리를 뜨지 않는 동생의 팔목을 잡아끌어 집으로 돌아오시었다.

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소사하물은 흐르고있다. 그 어떤 장강이나 대하도 아닌 자그마한 실개천, 오직 정갈하게 그리고 다함없이 흐르고흐르는 물줄기인것이다.

일행은 거닐기도 하고 서있기도 하면서 생각해

잠겨있었다. 어떤 동무는 나무밑에 그냥 서있기도 하고 어떤 동무는 내가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사진을 찍읍시다.》

누군가 소리쳐불렀다.

어느것을 포착할것인가. 느리나무인가, 발구길인가, 개울인가.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 일리가있었다. 이런 때 문득 묘안이 나지군하는것이다.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키지 말고 저마다 좋도록 하자는것이다.

나는 느리나무를 배경으로 찍었다. 그다음 그 모든것을 다 볼수 있게 원경도 찍었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 송강으로 갔다. 10 키로 되나마나한 거리였다. 토기점골안에서 질러가면 잠간이라고 한다. 활짝 열린 개활지대인데 현소재지였다는것을 대번에 알수 있을만큼 인가가 많았다.

우리는 외통길로 되어있는 거리에 나섰다.

바로 여기가 항일유격대를 창건하고 일주일만에 5.1 절시위를 한곳이다. 귀를 기울이면 유격대행렬이 지나가는 발구름소리가 들릴것만 같았다. 만세의 환호성도 들린다.

《조선독립 만세!》

《김일성장군 만세!》

은 거리가 펼쳐나서 유격대를 환영하였다. 일제에 의해 칠성관에 오른 조국의 운명을 구원할 조선인민의 혁명무력인것이다. 이제 저 발걸음이 닿는곳마다에서 일제를 무찌르고 조국을 해방할것이다. 그러나 송강거리를 걸어가는 그때와 조국해방이라는 그 어간에는 10 여년이란 오랜 세월이 놓여있었던것이다.

그 모든것을 하나의 시점에 함축해서 볼수있었던 우리들은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것을 생각하고있었다. 100 만의 관동군 그리고 온 조선을 뒤덮은 군대와 경찰, 그것과 대치한 늘어선 길지 않은 대오가 대결을 시작한것이다. 기존상식이나 수자풀이로써는 도저히 승리를 타산할수 없었던 이 마당에서 누가 필승의 론리와 기백을 안겨주었는가.

청년장군 김일성동지!

승리하지 않고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맹세다진 그이께서 소사하로부터 송강으로 첫 대오를 인솔하시고 이 거리에 들어선것이다.

그 대오는 1950 년대, 미제를 타승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천배로 만배로 확대되어 노도같이 적을 휩쓸었던것이다.

우리는 그냥 거리를 걸었다. 초가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었다. 역시 석비레가 곱게 다져진 길이었다. 아무것도 류다른것이 없는 한적한 농촌거리였건만 우리는 어찌하여 여기를 뜨지 못하는가.

해는 벌써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다시 우리는 차에 앉아 귀로에 올랐다. 여기서 얼마 안가서 백두산이 있고 삼지연이 나지는것이다. 몸은 동북쪽으로 가고있건만 마음은 자꾸 그 반대쪽으로 달리고있었다. 끝없이 가고싶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길림을 보아야 하는것이다.

육문중학교도 가보아야 하고 북산에도 올라야 하며 송화강기슭도 찾아야 하는것이다. 추억을 거슬러 한생 가고 또 가고싶은 걸음인데 지금은 일단 명월구로 다시 가서 로정을 따라야 한다.

작가인 경우에도 편리한것은 역시 필름의 도움을 받는것이다. 첫대오가 발걸음을 맞추던 그 한길북판에서도 찍고 송강이 아득히 바라보이는 언덕에서도 찍었다.

차중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지금 대사하를 지나고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 사령관동지를 몸으로 막아 보위한곳입니다.》

일제히 박을 내다보았다. 이깎나무가 우거진 대사하치기 강가였다고 한다.

1940 년 초여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솔하신 주력부대가 소할바령을 향하여 행군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적탄이 우박치듯 날아왔다.

전투가 벌어졌다.

사령관동지를 향하여 컴컴한 풀숲에서 총구가 쏙 나왔다. 그 순간이었다. 김정숙동지는 사령관동지를 몸으로 막으며 소리쳤다.

《적이다!》

뒤이어 총소리가 연거퍼 울리었다. 적이 쓰러졌다.

차에서 내린 일행은 모두 숨을 죽이고 물가를 바라보았다.

강가에 앉아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동안에 보고 느낀것을 돌이켜보는것이였다. 감정의 파도가 설새없이 높이 뿜 하루였다. 그중에서도 나는 소사하를 잊을수 없었다.

지금도 가슴속에서 천만가지 사연을 말하며 소사하의 물이 흐르고있다.

판평으로 가는 길

백익선

길가기 좋아라 판평으로 가는 수백리

우리 군인수송대 달리는 이 길은

한낮에도 산짐승 넘나들던

북방의 외진 산길

령밑엔 농장의 어머니 옥돌을 편

정가로운 박우물도 생겨

병사들의 가슴속에

고향어머니의 정 마를줄 몰라라

길가엔 정들여 가꾼 꽃들이

병사들을 반겨 웃어주니

인민의 그 마음 향기되어

언제나 향기속에 묻힌 길

산사태를 막아주던 명문사람들

그 어깨에 실리어 예돈적 없고

송원처녀들 화불들고 지켜서서

한밤 눈비속에서도 어둠을 몰랐거니

아, 전화의 그 나날

불비속 천리길과 하나로 이어진 길이여

이 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고

이 길에 누이들과 동생들이 있었다

이 길에 조국의 마음들이 굽이쳤다

무엇으로 헤아리라

판평언제가 산악으로 굳어지기전에

이 길에 섬겨준 인민의 그 지성을

이 길에 다져진 군민의 그 마음을

판평으로 가는

이 길은 80 년대의 거창한 전선길

병사들이 가는 이 길을

인민은 순간도 비워둘줄 몰랐거니

험한 산 외진 령 넘고넘어도

이 길은 조국의 한복판에 뻗어있어라

내앞에 기관총좌지가 있다

김진수

철쭉꽃이 반겨 웃는
대홍단의 나직한 언덕우에
내 발걸음 멈추어세우는구나
기관총좌지가

지금도 총타를 어깨에 대고
지그시 방아쇠를 당기면
못잇을 그날처럼 불을 토할듯
두다리 벌딛고 선 기관총

사령부 지휘처앞에 자리 정하고
몰려들던 일제대적을 맞받아
길게 늘어선 산병선에
순간도 비울수 없던 자리

백두의 하늘을 이고
세월의 언덕우에
그처럼 높이 쳐다만 보이는
이 좌지의 주인은 그 누구인가

여기 불타던 그 가슴에
지니고 산것은
오늘도 이 좌지에
남겨둔것은...

총신강이 식은
기관총이 아니다
옛 격전장으로 남아있는
빈 구간이 아니다

지금도 그날의 탄피가
금시 발앞에 날아와 떨어질듯
방아쇠를 당기던 그 숨결이
질은 숲향기에 풍겨오고

탄창을 갈아대는 그 모습이
불멸의 군상으로 솟아있는곳
충성의 열도를 안겨주는
참된 삶의 교단으로 솟아있는곳

내 한생을 바쳐
당중앙을 받들어갈
나의 혁명초소가
여기에 이어졌나니

저 총가목을 끌어당겨
어깨를 대어보고싶은 마음속에
어언중 세월의 시공간을 넘어
나의 초소를 가리키는곳

언제나 사령부 지휘처앞에
자리를 정한 이 좌지가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의
가장 가까운곳으로 내 마음 이끄는곳

아 오늘도 래일도
이 땅그 어느 초소에 내 있다 해도
내앞에 놓여있을
기관총좌지여!

가사

병사들은 조국을 안고 산대요

리명근

모내기를 도우러 온 군대동무들
어쩌면 후방소식 그리 잘 알가
처녀들 슬그머니 물어봤더니
병사들은 고향을 안고 산대요

잠시 들린 마을도 어린아이들도
고향처럼 형제처럼 친근하대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같은 한마디
병사들은 인민의 아들이래요

꽃피는 인민의 웃음소리는
병사들을 위훈으로 불러준대요
번영하는 땅을 지켜 행복을 지켜
병사들은 조국을 안고 산대요

어머니의 모습

송병준

1

햇숨같이 폭신한 봄구름이 저녁빛에 물드는 해 질무렵이었다.

방금 기차에서 내린 성옥은 사람들이 봄비는 역전 앞마당에 서서 한동안 고향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동안 몰라보게 변모된 도시였다. 새로 지은 역전거리의 탑식살림집들과 남산밑에 건설된 경기장이 류달리 눈에 띄었다. 이것들은 어머니의 편지에 자주 오르던 것이기도 했다. 시내 중구건설사업소에서 미장작업반장으로 일하는 어머니는 늘 자신이 건설하는 건물들에 대하여 언제나 긍지를 가지고 딸에게 알려주곤 했다.

랑손에 짐을 든 성옥은 빠스를 타지 않고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어린시절의 잊을수 없는 추억이 깃든 광석천이랑 소년회관이랑... 그는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그모든것들을 다시 보고싶었다.

어머니가 살고있는곳이어서 더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도시, 어머니의 정성과 땀이 스며인 건물들, 하지만 이 도시와 어쩌면 인연이 멀어진것만 같은 야릇한 감정에 잠겨 성옥은 거리에 오고가는 사람들과 건물들을 눈여겨보며 걸음을 옮겼다. 그는 지금 이 도시에서 혼자 살고있는 어머니를 모셔가기 위해 찾아오는 길이었다.

사람은 자식을 낳고 길러보아야, 부모가 귀한 줄 아는가부다. 성옥이도 가정을 이루고 첫자식을 낳고보니 혼자사는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지고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의무감을 더욱 무겁게 느꼈다.

그런데다가 간석지공사장에 나가있는 동생으로부터 어머니에 대하여 관심을 돌려달라는 편지를 받게 되었다.

《... 누이, 나는 지금도 간석지로 떠나올 때 나를 바래주던 어머님 모습이 선합니다. 내가 집에 혼자 남게 될 어머님을 걱정하자 <애야,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심중하고 착실해야 한다.>라고 하시며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늙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직장사람들에게 집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성옥은 편지를 받아들이고 한동안 생각에 잠기었

다. 왜 그런지 어머니가 사람들의 집이 될수 있다는 동생의 편지구절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아버지가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두 오누이를 데리고 변함없이 건설일을 해온 어머니였다. 그동안 어머니는 일을 잘해서 표창도 여러번 받았고 사람들의 존경속에 살아왔다. 그런데 딸자식이 있으면서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다니, 하긴 늙게 되면 일도 씨원히 못할것이고 남의 말밥에 오를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한생을 바쳐 쌓은 공로가 인생말기에 와서 무너질수도 있을것이다.

성옥은 철없다고만 여겼던 동생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의 추억속에 어머니가 아름답게 남아있을 때 모셔오자. 이것이 손에서 일을 놓을 때가 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이다. 이리하여 성옥은 어머니의 생신날이 가까와오자 이번만은 한가족이 모여 생일상을 차려드리자고 한 남편의 말이 고마와 온다는 기별도 없이 훌쩍 떠난 걸음이었다.

얼마후 성옥은 친정집이 있는 3 층 살림집마당가에 이르렀다. 어머니는 여전히 직장에 나가있었다. 그는 옆집에 사는 인민반장할머니에게서 집열쇠를 받아들이고 자기 집 문앞에 다가섰다. 문고리를 잡는 성옥의 가슴은 느닷없이 울렁거렸다.

이제는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되었지만 오래동안 견학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고등중학교시절의 그 마음과도 같았다. 그 시절에도 이웃집에 사는 인민반장할머니한테서 열쇠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급히 문을 열곤 했다.

성옥은 집안에 들어서자 윤기 흐르는 장판방에 가방을 놓고 다감한 눈길로 천천히 둘러보았다.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와 다심한 손길이 어려있는 알뜰한 집안이었다. 성옥은 앉은뱅이책상우에 놓인 도면에 시선이 몇자 호기심이 들어 그앞에 다가앉았다. 도면우에는 어머니가 글을 읽을 때면 늘 쓰던 돋보기와 연필이 놓여있고 군데군데 어머니의 낫익은 글씨가 써여있었다. 그 누군가 어머니에게 봐달라고 가져온듯한 새로운 미장기계를 설계한 도면이었다.

(어머닌 여전히 미장생각뿐이시구나!...)

성옥은 어머니가 어두운 눈으로 이 설계도면을 들여다보다가 일을 나갔다고 생각하니 무엇인가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면서도 가슴 한귀통이가 아릿해졌다.

도면을 들여다보던 성옥의 눈앞에는 불현듯 어렸을 때의 일이 선히 떠올랐다. 고등중학교때였다. 글짓기시간에 선생은 《나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지으라고 했다. 그러나 성옥은 선뜻 글을 쓸수가 없었다. 미장공인 어머니에 대하여 글을 쓴다는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었던것이였다. 다른 애들의 어머니는 눈같이 하얀 위생복을 입고 깨끗하고 아늑한 방에서 의사노릇을 하는가 하면 양복점에서 재단사노릇을 하는데 어머니는 늘 세멘가루를 묻히며 건설장에서 미장일을 했다. 어린 마음에도 성옥은 아버지 없는 어머니가 측은하고 불쌍했다. 남들처럼 어머니도 뼈힘을 들이지 않는 의사노릇이나 했으면 했다. 선생은 집에 가서 작문을 완성하도록 숙제를 주었다. 그날저녁 성옥은 직장에서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책상에 마주앉아 작문을 쓰기 시작했다. 미장공이 아니라 의사인 어머니에 대하여... 그러다가 책상에 코를 박고 깜빡 잠이 들었다. 인기척이 나는바람에 성옥이가 얼굴을 들었을 때는 어머니가 글짓기 학습장을 손에 들고있었다.

《어머니, 이건 작문이에요. 작문!》

성옥은 창피한 생각이 들어 급히 학습장을 빼앗으며 변명했다.

《아무렴, 작문이구말구.》

어머니는 혼연히 대답했으나 낮빛은 흐려있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의 잠자리를 퍼준 다음에도 어머니의 얼굴은 풀리지 않았다. 언제한번 아이들에게 큰소리를 쳐보지 않던 어머니여서 성옥은 더욱 조심스러웠다. 왜 그런지 어머니보기가 미안스럽고 죄를 지은것만 같았다.

성옥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자는척했다. 얼마후에 성옥이가 살며시 눈을 떠보니 어머니는 창가에 서있었다. 성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로 다가갔다. 창밖의 맑은편 살림집창문마다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오고 방금이라도 웃음소리가 들리는듯했다.

《어머니, 왜 주무시지 않으세요?》

성옥은 어머니의 작은 어깨를 살뜰하게 잡으며 걱정스러워 물었다.

《...》

어머니는 얼굴을 돌려 성옥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 눈길에는 허용할수 없는 피로움이 짙게 어려있었다. 성옥은 자기의 작문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아프게 했을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던차라 흠칫 놀라기까지 했다.

《성옥아.》

이윽고 성옥의 머리를 쓰다듬던 어머니가 나직이 불렀다.

《...?》

《오늘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시를 현지도하셨다.》

《그래요?!...》

성옥은 깜짝놀라 환희에 차서 부르짖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항구로동자들의 생활을 료해하시다가 그들이 아직도 채래식 온돌방에서 산다는것을 아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온수난방에서 가스로 밥을 지을수 있는 살림집을 지어주는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다는구나.》

《야!- 참,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가!》

성옥의 해맑은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활짝 피여났다.

《그런데 이 에민 오랜 기간 건설일을 하면서도 은정을 받기만 했지 보답을 못했구나. 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으면서 가책의 눈물이 쏟아져서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성옥아, 어머니수령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전에는 손에서 미장일을 놓고싶지 않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쩐지 떨리였다. 성옥은 금시 마음이 숙연해서 얼굴을 쳐들었다. 달빛이 비친 어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흥건히 고여있음을 보는 순간 성옥은 가슴이 확 불타오르는듯했다. 성옥은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뼈저리게 느껴졌다.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난 그런것도 모르고...》

성옥은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울었다.

《됐다. 어서 자자.》

어머니는 성옥의 어깨를 그냥 쓸어주며 목메여 말했다.

며칠후, 성옥은 어머니에게 다시 쓴 작문을 보여주었다. 동무들과 함께 소년예술선전대로 건설장을 찾아갔던 일, 건설장의 꽃처럼, 하늘의 선녀처럼 고층건물의 발판우에서 빨간 머리수건을 쓰고 미장을 하는 어머니의 아릿다운 모습, 그때 아이들은 어머니를 보고 환성을 울리며 성옥을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어머니, 이건 작문이에요. 작문!》

성옥은 명랑하게 말했다.

《아무렴, 작문이구말구.》

어머니는 전과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했으나 그 어조는 기쁨에 젖어있었고 눈가에는 물기가 글썽해있었다.

퇴근시간이 되자 어머니는 직장에서 돌아왔다. 성옥은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동안에도 퍼그나 늡었다는 생각이 들어 눈뿌리가 뜨거워올랐다. 빨간 머리수건을 쓰고 미장을 하던 젊고 싱싱한 모습은 간곳이 없었다.

《어느 차에 왔느냐? 온다는 기별도 없이...》

어머니는 딸의 실직한 어깨를 어슬며 다정히 물었다.

《오후차에 왔어요.》

성옥은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코메인 소리를 했다.

《아아버진 잘 있느냐? 그런데 남철인 왜 보이지 않느냐?》

어머니는 방안을 두릿거리며 물었다.

《아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빨리 왔다가야 하니까요.》

《그래두 데리고 왔으면 좋을뻔했구나.》

어머니는 손자가 무척 보고싶은모양이다.

《어머니, 전보다 많이 축하신것 같애요. 일하시기 힘든가보지요?》

《아직은 괜찮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젊은이들이 나를 보고 미장칼을 잡지 말고 뒤에서 가르치기만 하라는구나.》

거친 바람에 그슬린 어머니의 고동색 얼굴에는 무수한 실금이 열기설기 했고 귀밑머리에는 흰 오리가 더 늘어났다. 변함없는것은 은근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뿐이었다.

《모두 날 넘려해서 그런거지. 그래두 난 벌써부터 그런 말을 듣고싶진 않다.》

《어머니두 참, 그동안 어머니가 한 일이 좀적어요? 또 우리 오누이를 키우시느라고...》

성옥은 목이 갈려 더 말을 못했다.

《원 애두, 어서 저녁이나 해먹자.》

어머니는 정갈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 앉아계세요. 내가 밥을 지었어요. 이제 반찬만...》

성옥은 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다시 앉히며 부엌으로 나갔다. 이때 밖에서 《어머니 계세요?》 하는 소리가 나며 문이 열리었다.

《영철 엄마가 어떻게?...》

어머니의 반기는 목소리였다.

《어머니, 우리 집의 온수조절기를 좀 봐주세요. 글썽 보수작업반을 데려오자구 해두 애아버진 어머니에게 뵈우라지 않아요.》

무람없이 드나드는 이웃인것 같다.

(사람들두 참!)

성옥은 하루종일 일한 어머니를 데리러 온것이 언짢아서 혼자 중얼거리었다.

《그럼 봐주어야지.》

어머니는 선뜻 대답을 하며 나갈차비를 했다. 부엌에 있던 성옥은 얼른 《밥이 인차 되겠는데.》 하며 어머니를 안타까이 쳐다봤다.

《저녁전이로군요. 그런걸... 어머니, 래일 봐주세요.》

너인은 무척 미안해하며 돌아가려 했다.

《괜찮아. 갔다와서 먹지. 내 얼른 봐주고 오련다.》

어머니는 너인을 앞세우고 밖으로 나갔다. 성옥은 어쩔수없이 어머니를 기다려야 했다. 그동안 그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정어리를 굽고 명태애를 볶았다.

어머니를 대접하기 위해 집에서 가져온것이였다. 얼마후에 성옥은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이때 밖에서 또다시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성옥은 젖은 손을 행주치마에 문지르며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에는 안경을 쓴 웬 중년의 남자가 서있었다.

《기업소에서 왔습니다. 집에 어머님이 계십니까?》

《잠간 어디에 다녀오겠다고 나갔어요.》

성옥의 대답에 그는 난색을 짓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 건설사업소 기사입니다. 어머님을 잘 압니다. 사실은 어머님이 종일 일하시고 피로해하실줄 알면서도 꼭 방조받고싶은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들어와 기다리세요.》

성옥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책상우에 퍼놓은 설계도면의 주인인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온 하루 현장에서 일한 어머니를 퇴근한후에까지 찾아온 이 생면부지의 기사가 여간 야속스럽지 않았다. 성옥은 어머니의 성미를 잘 안다. 어머니는 찾아온 기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것이다. 성옥은 어머니의 휴식을 빼앗을 이 기사가 돌아가주기를 은근히 바랐다. 하필 이 저녁에 어머니한테 배워야 할건 뭐람, 성옥은 기사가 자기의 심정을 알아차리기를 바라서 조금전에 웬 너인이 자기 집의 온수조절기를 보아달라며 식사도 못한 어머니를 데려갔다고 말했다. 알릴듯말듯한 불안이 섞인 성옥의 말에 기사는 다소 당황해났다.

《그랬듯군요. 아직 식사전인걸... 그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후에 오겠습니다.》

기사는 성옥의 말뜻을 알아차린모양인지 정중히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성옥은 그만 얼굴이 화끈 달아오름을 느꼈다. 했으나 계단아래로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 성옥은 안도의 숨이 나갔다. 상에 차린 음식이 식어버리기 시작했다. 성옥은 초조하고 안타까웠다. 그는 음식을 다시 술안에 넣고 어머니를 기다렸다. 어느 집으로 가는지 물어보지 못한 후회가 났다. 어머니는 기사가 돌아간 다음에도 켜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성옥은 기쁘면서도 짜증이 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무척 즐거운 표정이었다.

《영철네 집일을 봐주고 오다가 동사무장을 만났었다. 날 찾으러 집에 가던 길이라며 글썽가정부인들앞에서 새로 짓는 씨리카트살림집에 대하여 해설을 해달라고 하지 않겠니. 너도 이번에 우리 건설장에 와보렴. 씨리카트벽돌로 집을 짓는데 굉장하다.》

좀처럼 자랑을 모르는 온순한 어머니가 오늘은 웬일인지 얼굴이 환해서 어린애처럼 좋아했다.

《호호... 어머니네 제가 건설기사란걸 잊으신 모양이죠.》

성옥이도 덩달아 마음이 즐거워졌다. ,

《왜 잊겠니. 건설기사인 딸이 있는것을 제일 큰 자랑으로 여긴다.》

어머니는 여전히 흐뭇해했다. 성옥이가 건설기사가 된것은 어머니의 완강한 요구때문이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했을 때 어머니는 건설자의 딸은 응당 건설건재대학에 가야 한다고 했었다.

《기업소에서 사람이 왔었어요. 기사라더군요.》

성옥은 밥상을 들고 들어오며 지나가는 말처럼 했다.

《오, 정기사로구나. 그 사람이 요즘 새 기계를 연구한단다.》

어머니는 책상위의 도면에 눈길을 보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녁을 마치고 부엌에서 설거이를 하는동안 성옥은 내내 생각을 굴리었다. 지금 같아서는 어머니가 직장을 뜰 생각이 조금도 없는것 같았다. 그러나 성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저녁에는 꼭 어머니에게 자기의 결심을 납득시키리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성옥이가 설거이를 마치고 방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주섬주섬 겹옷을 입고있었다.

《?...》

성옥은 어리둥절해서 어머니를 쳐다봤다.

《내 아무래두 건설장에 나가보아야 할가부다.》

《왜요?》

《정기사를 만나야겠다.》

어머니는 책상위의 도면을 돌돌 말았다.

《아까 퇴근한 걸음이던데요워.》

성옥은 어머니가 쉴 생각을 말고 기어이 직장으로 나갈것 같아 안타깝게 말했다.

《요즈음 그 사람은 발편잠을 못잔다. 그래두 나한테 뭘 배우겠다고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모르는척하겠니. 애야, 남산지구 살림집건설을 이해전으로 끝내자구 모두들 불같이 켜.》

어머니는 오래간만에 온 딸을 놓고 직장으로 나가는것이 안된모양인지 미안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리고는 총총히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의 발걸음소리가 멀어지자 성옥은 문득 고독함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답답한 가슴을 어루만지는듯했다. 저 멀리 남산지구건설장에서는 용접불꽃이 꽃보라처럼 떨어지고있었다. 어머니는 이 밤도 저 건설장에서 지새울것이다. 하루 일을 하고 남의 집 일때문에 뛰어다니고 그리고도 기사의 일을 돕겠다고 직장으로 나간 어머니... 도대체 어머니에게 무슨 힘이 있길래 저렇게 극성일까.

성옥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의 생활을 이해할수 없었다. 일할나지도 지났으니 이제 어머니로서 자기할바를 다하지 않았는가. 성옥은 불쑥 결혼식을 하고 남편을 따라갈 때 일이 생각났다. 그때 성옥은 어린 남동생을 데리고 혼자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편과 성옥은 어머니에게 함께 모여살자고 권고했다.

《아니다. 난 아직두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다.》

어머니는 그때 이렇게 말하며 결혼한 그들의 등을 밀어보냈다. 과연 어머니가 할 일은 이제 또 무엇이란말인가. 그만큼 일을 했으니 자식을 따라간다고 누가 말할 사람도 없을것이다. 이제 성옥이도 자식구실을 하고싶었다.

아침에도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딸이 기다리고있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있는모양이다. 성옥은 딸의 심정을 몰라주는 어머니가 야속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했다. 아침끼리나 제대로 잡수셨는지?...

3

출근시간이 지난 거리는 한산하였다. 성옥은 어머니의 아침밥을 싸들고 거리에 나섰다.

어머니에게 아침식사도 갖다줄겸 지배인을 만나고싶어서였다. 지배인만은 성옥의 심정을 이해하여주리라 믿었다.

성옥은 해가 퍼그나 올라왔을 때에야 남산지구 건설장입구에 도착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자리에 서있었다. 고층건물이 남산지구에 하늘을 찌를듯 일어섰는데 하늘색, 연분홍색벽체들이 아침해빛을 받아 눈이 부시게 빛을 뿌렸다. 기중기들이 벽돌바가지를 들고 하늘중천에서 팔을 휘젓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지대정리를 하는 불도젤의 거센 동음소리가 건설장을 들었다놓았다. 바람에 펄펄 나불기는 오색기, 《당의 령도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총진군 앞으로!》라고 쓴 대형구호, 혁신자들을 축하하는 방송원들의 열기띤 목소리와 노래소리, 건설장은 말그대로 80 년대의 기백이 약동하고 일손을 다그치는 사람들의 혁명적열의로 들끓었다. 성옥은 그 어떤 위압감이 들어 감히 구내로 들어갈념을 못하고 한동안 정문밖을 서서 서성거리다가 팔에 완장을 낀 경비원아바이에게로 다가갔다.

《저... 미장공들이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세요?》

성옥은 주저주저하며 물었다.

《이 넓은 건설장에 미장공들이 어디서 일하는지 누가 알겠소》

경비원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성옥은 더 말을 못했다.

《누굴 찾소?》

경비원이 안되었던지 잠시 후에 물었다.

《미장작업반장을 하는...》

《아, 그 박정옥반장말이군. 진작 그렇게 말할게지.》

경비원은 금시 싹싹해지며 친절하게 대했다.

《그런데?...》

누구나고 묻는듯 경비원아바이는 재빛 눈섭을 치떴다.

《제가 딸이에요. 어머니 아침밥을...》

《그렇소?! ... 이것참 반갑군. 그러니까 친청집에 왔겠소?》

경비원아바이는 오래간만에 찾아온 제 딸이나 만난것처럼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성옥은 경비원의 환대에 어리둥절해지기까지 했다.

《자 여기에 들어와 앉으라구. 내가 찾아주지.》

경비원아바이는 성옥을 무작정 경비실로 들어오도록 하고 의자를 끌어다 준다음 사방에 전화를 걸었다. 한곳에서 어머니가 지배인과 함께 새로 지은 아파트쪽으로 갔다고 알려왔다.

《저기, 저- 4 층살림집들이 쪽 늘어선곳이요. 그냥 찾자면 잔디밭에 가서 바늘 찾거나 한가지야.》

아바이는 사뭇 성수가 나서 어머니가 있는곳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었다.

성옥은 그에게 인사를 하고 발길을 옮겼다. 왜 그런지 마음이 후두워올랐다. 어머니가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고 떠받들리며 일하는것이 분명했다. 어머니가 뭐라고 지배인과 함께 살림집을 돌아본단말인가.

성옥은 모두들 작업복을 입고 바쁘게 돌아가는 노동자들을 보니 나들이차림에 꽃보자기를 든 자신의 모습이 쑥스럽게 느껴졌다. 갑자기 뒤에서 경적소리가 빵-하고 울렸다. 성옥은 와들 놀라 한옆으로 비켜섰다. 온몸에 땀이 와싹 솟았다. 파란 머리수건을 쓴 운전수처녀가 씨리카트벽돌을 가득실은 지게차를 몰고 그의 옆을 썩 지나갔다. 성옥은 쫓기듯 건물옆으로 다가갔다. 이때 건물안에서 너자의 땀땀 소리가 울렸다.

《동문 정말 한심해요. 우리 작업반장어머니가 벽돌을 잘 다루어야겠다고 한 말이 잘못이예요?》

《차, 이 동무가... 여러 말 말고 반장어머니한테 전하시오. 깨우쳐주어 고맙다구.》

능청스러운 남자의 목소리였다.

《정말 누굴 놀리는거예요. 아이 분해라!》

너자가 쿵쿵 뛰는듯하자 안에서 웃음소리가 와하고 터졌다. 성옥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고있음을 알아차렸다. 동생의 말이 맞았구나. 늙으면 사람들의 짐이 된다구, 또 무슨 참견을 하다가... 그는 자기가 이곳에 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히 굶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작업반장어머니 아침식사나 생각하오. 어제 저녁 밤늦도록 정기사와 함께 도면을 토론했단말이요. 자 반소. 함숙에서 가져온 빵이요.》

처음 말한 목소리임자가 너자에게 울러메자 또 다시 웃음소리가 울렸다. 뒤이어 작업복을 가쁜히 입은 녀인이 종이에 쓴 꾸레미를 들고 뛰어나왔다. 성옥은 그 너자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고등중학교시절의 동창생이었다.

《영희 아니야?》

성옥은 저도 모르게 소리쳐 불렀다. 얼굴이 동그스름하고 몸매가 날씬한 그 너자는 그자리에 걸음을 멈추고 성옥을 찬찬히 보더니 그만에야 알아보았던지 웃음을 활짝 피우며 《성옥아 !》하고 달려와 두손을 부여잡았다. 둘은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언제 왔니?》

동창생은 기쁨에 넘쳐 물었다.

《어제.》

《그런데 여길 어떻게?》

성옥은 동무에게 밥보자기를 들어보였다.

《그런걸 난 그것두 모르고있었구나. 어서 가자.》

그는 성옥의 손에서 밥보자기를 받아들고 먼저 걸음을 옮겼다.

《재미가 어땠니? 이 몇년 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졌구나. 호호...》

동창생은 성옥의 부해진 몸매를 훑어보며 깔깔 웃었다.

《애두 참... 우리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니?》

성옥은 함께 웃다가 아까 건물안에서 들리던 말이 생각나서 슬며시 물었다.

《별소릴 다 하는구나. 어머니 씨리카트벽돌을 막 다룬다구 속타하신단다. 정말 너희어머니 건설장에서 귀중한 존재다.》

동창생은 어머니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성옥은 동무의 어깨를 다정히 잡으며 《우리 어머니가 무슨, 사람들에게 잔소리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하고 조용히 웃었다.

《넌 어머니를 다 모를거야. 지금 저기 4 층살림집을 준공검열받기 위해 미리 지배인동지랑 어머니가 돌아보고계신다.》

동창생은 한쪽에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궁지감에 가득차서 말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성옥은 리해가 안되어 벗의 얼굴을 쳐다봤다.

《어머닌 우리 건설로동자의 대표격이다. 호호.》

동창생은 재미있다는듯 즐겁게 웃었다.

《그럼 바쁜데 가봐. 저녁에 집에서 기다리겠어.》

성옥은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말했다.

《응,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것두 가지 구 가.》

동창생은 성옥의 밥보파리에 빵꾸레미까지 함께 싸매서 안겨주었다. 성옥은 동무가 가르쳐준 4 층살림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미색씨리카트벽돌로 지은 살림집은 첫눈에도 아담하게 보였다.

로대가 있는 창문이며 하늘빛 라크칠을 한 출입문이며... 그가 건물가까이로 다가갔을 때였다. 한무리의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서 현관을 나서고 있었다. 살림집을 돌아본모양이었다. 성옥은 어머니와 낮익은 지배인의 모습이 눈에 띄자 걸음을 멈추었다. 그런데 어머니의 낮빛은 웬일인지 밝지 못했다.

《그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이만하면 준공검열을 받아두 되지 않겠습니까?》

몸집이 우람한 지배인이 사람들을 돌아보며 만족해서 물었다.

《미장작업반장동무랑 노동자들이 애쓴 결과이지요.》

키가 큰 사람이 얼굴에 웃음을 담고 지배인의 말에 수긍했다. 성옥이도 기뻐다. 어머니의 수고를 알아주는 말이였다.

이때 어머니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배인동지, 준공검열을 좀 미루어주십시오.》

《? ...》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하며 어머니를 쳐다봤다.

《이제 돌아보며 시험해봤는데 몇세대의 온수조절기가 동작이 잘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온화했다. 사람들은 모두 어이가 없어 서로 마주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준공검열에서 스쳐보낼수 있는 극히 사소한것이였다.

《아, 그거야 준공검열을 받은 다음에 고칩시다. 오늘이 상반년도 계획의 마지막날인데.》

키가 큰 사람이 어머니를 설복하듯 말했다. 성옥이도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몇세대의 온수조절기때문에 준공을 미루다니. 어머니 너무도 고지식해. 저런다고 준공을 미루지 않겠는데... 성옥은 어머니가 지나친 참견을 한다고 생각했다. 모두들 침묵을 지켰다. 이윽고 어머니가 지배인을 쳐다보며 간절히 말했다.

《지배인 동지, 온수조절기가 하찮은것 같아두 너자들의 살림에서는 제일 중요하답니다. 제가 책임지고 얼른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그 조절기를 봅시다.》

지배인은 앞장에 서서 성큼성큼 현관안으로 들어갔다. 그체서야 어머니의 얼굴에는 안도의 밝은 빛이 피여올랐다.

성옥은 머리가 땡해서 그자리에 얼어붙은듯 서있었다. 너무 고지식하게 참견해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을 깨우쳐주며 이끌어가고있지 않는가. 저 몸매 자그마하고 조용한 어머니가?!... 그렇다면 나는 어머니를 잘못알고있었던말인가! 성옥의 얼굴에는 깊은 의혹의 그늘이 비끼였다.

4

성옥은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돌아섰다. 사람들을 볼 면목도, 어머니를 만나볼 면목도 없었다. 지금껏 자기는 어머니를 단지 자신을 낳아키워준 어머니로 생각하며 자식의 도리를 표방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삶을 속되게 생각했다, 성옥은 불시에 자신에 대한 모멸감이 전신을 휩싸는듯해서 걸음을 멈추었다. 저도 모르게 게시판옆에 이

르렸다. 몇사람이 게시판에 붙은 로력혁신자의 사진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참 작업반장어머니는 처녀때부터 우리 건설사업소에 있었다지요?》

누군가 애원 목소리로 옆사람에게 묻는다.

《그렇구말구. 우리 도시의 모든 건물들에 어머니의 땀이 깃들어있지.》

중년의 노동자가 웅글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성옥의 눈길도 어느새 사진을 더듬었다. 어머니를 두고 하는말 같았기때문이었다. 드디어 혁신자들의 사진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자 성옥은 앞으로 다가갔다. 동심한 얼굴에서 크고 은근한 빛을 뿜는 눈이며, 실금이 지나간 흰칠한 이마며 부드러운 입모습이며...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를 알아본던 그때부터 마음속에 새겨진 모습이었다. 자식들을 위해 굶은 일 마른 일 가림없이 한생을 건설로동으로 늙어오는 어머니! 자식들을 모두 내보내고도 변함없이 생활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어머니!

성옥은 눈물이 자꾸 솟아 그자리에 서있을수가 없었다. 그가 게시판앞에서 물러나 한쪽에 비켜섰을 때 어머니가 저쪽에서 걸어오고있었다. 성옥은 얼른 눈굽을 문지르고나서 형언할수 없는 표정을 담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성옥이 나왔다. 아침은 현장식당에서 먹었는데 이진 무엇하러 들고 나왔느냐.》

어머니는 성옥의 손에서 꾸레미를 받아들며 정겹게 말했다. 성옥은 고개를 떨군채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

《저기 가서 좀 앉자.》

어머니는 저쪽에서 벽체를 쌓는 조립공들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수삼나무아래에 있는 돌의자를 가리켰다.

어머니는 벌써 성옥의 가슴속에 사품치는 마음을 다 아는듯했다. 성옥은 말없이 어머니옆에 앉았다.

《네가 이번에 온 마음을 나는 다 안다.》

어머니는 건설장 한곳에 눈길을 보낸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

《성옥아, 어제저녁에 정기사는 정말 큰 일을 했다. 이런 날에는 일을 해도 힘든줄을 모르겠구 마음이 편안하여 잠도 잘 온다. 사는 보람이 뭐겠니. 나라에 보탬을 준다는 그 재미가 아니겠느냐

나 이 건설장에 난 없어도 된다. 내 하나가 무슨 큰 일을 치겠니. 하지만 난 건설장을 떠나서 사는보람을 느낄것 같지 않구나. 잠을 자다가도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시를 현지도하시며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성옥아, 난 네가 이 예미의 심정을 리해하리라 믿는다.》

순간 성옥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확 일어나며 홍벽을 치는 둔중한 메아리가 울렸다. 아! 그것때문이였구나!! 불현듯 성옥의 눈앞에는 자기가 어렸을 때 미장공인 어머니가 창피스러워 의사라고 작문을 썼던 그날 저녁의 일이 떠올랐다.

우리 인민들을 모두 온수난방이 된 살림집에서 살게 하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전에는 손에서 미장일을 놓을수 없다고 눈물이 글썽하여 말하던 어머니,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서슴없이 간석지로 보내고 딸과 함께 살자고 해도 자기는 할 일이 많다고 하였던가.

성옥은 어머니가 건설장을 떠나지 못하는 마음이 무엇때문인가를 깨닫는 순간 자식으로서 너무도 어머니를 몰랐다는 생각이 통절히 들었다. 삶의 행복을 안겨준 은정깊은 조국을 위해 자신의 미장일로 보답하려는 어머니의 웅심깊은 마음을 몰랐다. 성옥은 천천히 고개를 쳐들고 물거머린 눈길로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금 깊이 새길듯 오래동안 쳐다보았다.

부모에게 바치는 자식들의 참된 효성은 무엇인가.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시집장가를 보내여 살림을 꾸려준 부모들을 인생말년까지 편안히 모시는것인가. 아니면 값높은 인생을 안겨준 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부모들의 삶의 지향을 자식들이 알아주고 끝까지 받들어주는것인가.

성옥은 문득 먼 후날에 가서 자식들이 사람들 앞에서 부모를 추억할 때 참으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수 있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는듯했다. 성옥은 끝내 북받치는 걱정을 이기지 못해 《어머니!》하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애야 고맙다!》

성옥의 어깨를 다정히 쓰다듬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저으기 떨렸다. 건설장에서 젊은이들의 희열에 넘친 웃음소리가 울려왔다. 어머니는 그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밝은 미소를 피우고있었다.

칼도마소리

안흥윤

그날저녁, 나는 방안에 앉아서 연신 줄담배를 갈아대고있었다. 낮에 있는 일로 어지간히 기분이 잡치였던것이다.

내가 또다시 새 담배가치에 불을 옮기는데 사이문이 불쑥 열리면서 저녁을 짓던 로친네가 나를 찾았다.

《령감, 글썄 이걸 좀 보시우!》

로친네는 느닷없이 칼도마를 쳐들어보인다.

《뭘 보란말이야? 똥판지갈이.》

《아니 이게 안보이시우? 이게?》

로친네는 칼도마를 자기의 얼굴앞에 바투 세워댔다. 순간 칼도마의 복판에 평 뚫어진 구멍으로 그의 한눈이 어이없는듯 나를 내다보고있었다.

언제부터 칼도마복판에 난 웅이가 미타하다고 하면서 새것을 사오겠단더니 그게 홀령 빠져달아난것이다.

《거참 보기 좋구려!》 나는 허구프게 웃으며 텃 불었다. 《이왕이문 구멍을 좀더 크게 내구려, 당신의 <예쁜> 얼굴이 다 보이게.》

로친네는 혼연히 맞장구를 쳤다.

《아따, 그럼시다레. 령감이 예쁘단데 이까짓 칼도마하나쯤 대수겠수?》

《허허허…!》

《호호호…!》

누가 들으면 늙은 내외가 체신머리 없다고 할만큼 우리는 크게 웃었다.

날씨가 별로 따가우면 소나기가 뒤따르는 법이다. 우리 내외의 분수에 넘친 웃음소리는 곧 《소나기》를 불러왔다.

《아무튼 좋시다. 늘그막에 령감한테서 예쁘다는 소릴 들으니.》 로친네는 웃느라고 눈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찍어내며 푸념조로 뒤를 이었다.

《이러나 저러나간에 당신이 이젠 늙긴 늙었수다. 칼도마하나 제격 못자르느걸 보니.》

《뭘가 어-째?》

나는 저도 모르게 언성이 버럭 높아졌다. 로친네는 와플 놀라 하마트면 칼도마를 떨굴번하였다.

《아니, 령감 왜 그러슈?》

《왜가 뭘야, 왜가!…》 나는 더욱 언성을 높이며

허공에 샷대질을 했다.

《칼도마란게 작다구 간단한 물건인줄 알아? …베는 석자래도 틀은 틀대루 차리랬다구 판자를 밀구, 깎구, 자르구, 제다가 굳은 나무면 칼날이 무디겠구 또 무른 나무면 인차 닳을게구, 혹시 독이나 없는 나무인지도 알아봐야겠지?… 이래저래 간단칠 않길래 선뜻 손을 못대고있느라니까 이걸 그저…》

《?!…》

로친네는 급류처럼 쏟아지는 내 말에 깜짝 놀란듯 입을 하- 벌리었다.

하긴 나 역시 스스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열결에 주어대기는 하였지만 고작 반메터내외의 판자토막에 것처럼 복잡한 공정과 까다로운 요구가 담겨져있다는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칼도마란것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건만 잠시후에 로친네의 입은 비췌해졌다.

《그렇게 만들기 힘든 물건인줄 알면서두 일전에 내가 새 칼도마를 사려 갈 땐 왜 말렸수? 집안에 흔한게 판자라고 흰소리칠 땐 언제구요…》

나는 더욱 화가 동했지만 이렇다하게 트집잡을것은 없어서 강짜로 한마디 더 욱박질렀다.

《보자보자 하나까 이걸 나살이나 건사해가지구 두 이따금 생억지를 쓴단말야!》

한구들이나 되던 아이들이 다 자라서 군대로, 대학으로, 직장으로 흩어져가고보니 간혹 내외간에 언짢은 일이 생길라치면 썰렁한 기운이 인차 가시여지지 않는 우리 집이었다. 그날밤 우리는 한생의 고락을 같이해온 늙은 내외답지 않게 마치 앵돌아진 젊은 부부마냥 멀찌감치 돌아누워서 새날을 맞았다.…

독자는 혹시 나를 만나면 핀잔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날저녁 도대체 그게 무슨 망둥이나고말이다.

그런데 사실 내가 로친네에게 열토당토않게 큰소리를 친것은 네거리에서 뽕맛고 이불속에서 주먹질을 하는격이라고 할가, 낮에 있었던 불쾌한 일때문이었던것이다.

그날낮에 나는 도수산관리국에 올라갔었다. (간단히 소개하면 나는 흥바다가 양식사업소 지배인

이다.) 사업소에 제기된 애로를 해결받기 위해서였다.

관리국에 올라간 나는 직방 관리국장 고봉수를 찾아들어갔다. 고봉수로 말하면 정전직후 나와 한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었다. 그는 선장이었고 나는 어로공이었다. 하기에 세월의 흐름속에서 그는 도수산관리국장으로, 나는 한 사업소의 지배인으로 위치가 달라졌지만 공식적인 자리외에는 별로 간격이 없었다.

나는 근 한시간이나 고봉수에게 장황하다고 할 만치 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리 사업소는 바다기슭에 새로 다시마건조장을 건설하였는데 문제는 당장 생산물의 상하락을 위한 다섯대의 기중기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우선 부두나 잔교를 건설해야 하였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리 줄잡아도 반년 이상은 걸려야 하였다. 게다가 막대한 량의 특수시멘트를 해결한다는 것은 더욱 난감한 문제였다.

《…자, 난 국장동무만 믿는다. 어찌겠수. 좀 도와주시우. 허허허 …》

말을 마친 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고봉수를 잘 납득시키느라고 일장력설을 했더니 이마에 땀까지 질펀히 내뿜었던 것이다.

《음-》

고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동안이나 나를 물끄러미 건너다보았다. 두눈을 약간 찌프린 그의 눈길은 동정이랄가, 아니면 질책이랄가 가늠키 어려웠다.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는데 그것은 내 기대와는 너무도 엄중한 것이었다.

《여보게 택현이, 자네가 이제 늙었구만! 응?》

《?…》

나는 어안이 빙빙하여 고봉수를 멀뚱멀뚱 마주보았다.

《그쯤한 일을 가지고 무슨 말이 그리도 많은가? 사람두 참!》

《아니, 그건 어떻게 하는 소리요?》

나는 실망보다도 분노가 솟아올랐다.

했으나 고봉수는 내 기분에 개의치 않고 더욱 화를 돋구었다.

《이보라구, 난 도와줄 힘도 없네만 우선 그렇게 징징 우는 사람과는 마주앉고 싶지부터 앓네.》

《?…》

나는 너무도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리었다. 물론 될수록 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라고 애쓰다보니 자연히 말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며 또 우는 소리가 나간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고봉수한테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인가?

이쯤 되고보니 나도 그냥 빌붙기만 할 수는 없었다.

《고견을 많이 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국장동무, 방조를 주기 싫으면 그만이지 시비는 무슨 시비요?- 예?》

《허허허, 그럼 내 좀 지나쳤나?》

고봉수는 껄껄 웃었다. 그렇다고 위안을 가질 것은 없었다.

《아무튼 방도를 잘 찾아보라구, 문제는 어떻게 혁명적으로 달라붙는가에 달려있네.》

그런 말이나 듣자고 내가 고봉수를 찾아왔던가? 나는 분명히 일어섰다. 패썹하게도 고봉수는 나를 붙들지 않았다. 오히려 어서 가게 하려는 듯 천연히 따라 일어섰다.

나는 더욱 화가 동하여 한마디 비꼬았다.

《난 늙었지만 국장동무 갱소년해서 좋겠수다. 오래오래 젊어계슈!》

《허허허… 고맙네.》 고봉수는 껄껄 웃고나서 한마디 덧붙였다. 《내 곧 내려가보겠네. 아무튼 술석잔은 잘 준비해두라구. 나야 임자네 백년가약을 맺게 해준 사람이 아닌가.》

나는 대답대신 코방귀를 불며 《갱생》에 올라갔다.

(넌장, 제가 뭘했다구 만날 때마다 술 석잔소리야… 고작해야 우리들이 눈을 다 맞추고 종이 제머리 못깎는다고 방조를 좀 받았더니 머리가 허애가는 오늘까지 우려먹는단말이야!)

하긴 고봉수의 《공적》이 작은 것은 아니다. 우리 장모가 부모형제 하나 없는 나에게 외동딸을 못주겠노라는 바람에 능구렁이같은 고봉수가 얼렁뚱당 업어넘기고 벼락같이 잔치를 치르도록 수를 썼던 것이다. 하기에 나는 고봉수가 감지덕지하여 그의 술석잔소리에 혼연히 맞장구를 치는 것이 상례였었다. 하건만 오늘은 고봉수가 그저 밍기만 하여 그의 일거일동에도 오만가지 트집을 잡으며 집으로 내려왔다.

생각할수록 고봉수가 패썹하여 속이 두부장풀듯하는데 로친네까지 나를 보고 늙었다니 그야말로 불붙는데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이쯤한 사정을 알고보면 독자는 그날저녁 나의 망동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날 아침, 나는 기중기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과장이상급협의회를 열었다. 했으나 역시 론의만 분분할뿐 보람이 없었다.

나는 하도 답답하여 또다시 차고에서 《갱생》을 끌어냈다. 군에라도 가볼 생각에서였다.

내가 승용차의 발판에 막 한발을 올려놓았을 때였다.

《지배인동지!...》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직 령장자리가 지워지지 않은 군복차림의 젊은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음, 3 직장 장기봉동무던가?》

《아닙니다. 5 직장 황봉기입니다.》

《아, 그렇지! 내 또 실수했군!》

사업소에 온지 반년이 넘었던만 이름과 생김새까지 어슷비슷한 두 제대군인을 나는 통 분간할 수가 없었다.

《지배인동지, 한가지 제기하랍니까?》

《제기라?...》

(보나마나 집을 달라는 소리겠지. 그런즉 색시감을 끌랐는가? 그러니 언제 살림집건설까지 벌려놓을 경황이 있어야지, 그것 참!)

한순간에 이런 난처한 생각이 나의 머리속을 지나갔다. 젊은이에게 실정을 리해시키자면 또 세월없이 말주머니끈을 끌러야 될가보다. 나는 사정조로 입을 열었다.

《량해하우. 내 지금 몹시 급한데 출장갔다 와서 동물 부르겠소.》

군에 올라간 나는 동서남북이 좁다하게 뛰어다녔다. 우리 사업소와 사돈의 팔촌이라든 되는 기관들은 빠짐없이 다 찾아다니며 호소를 하고 구구히 사정을 하였다. 하건만 보람은 없었다.

저녁무렵이 되어 사업소로 돌아오니 뜻밖의 소식이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아침에 내가 사업소를 떠난 뒤 고봉수국장이 내려왔다는것이였다. 그는 내려오는길로 현장에 나가 로동자들과 담화도 하고 합숙에도 가보았으며 방금전에 우리 집으로 갔다는것이였다.

황황히 집으로 달려간 나는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고봉수가 뚱뚱한 몸집을 구불거리며 무슨 대패질을 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사람의 마음이란 별스러운것이다. 어제만 하여도 두번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처럼 서술이 시퍼래서 그와 헤어진 나였었다. 하건만 오늘 우리 집에서 제집처럼 스스럼이 없는 그를 보니 그전날 한배를 타고 고락을 같이하던 정희가 숫구쳐올라 열싸안고싶도록 반가왔다. 나는 슬금슬금

그의 등뒤로 다가가서 짐짓 발을 탕! 굴렸다.

《도대체 누가 주인행세를 하는거요? 남의 집에서, 응?》

비로소 나를 돌아본 고봉수는 빙긋 웃으며 턱짓으로 마루우를 가리켰다.

《술식잔 받으러 왔더니 케가 굴렸네. 내 그때 자네소개를 과히 잘못했거든.》

나는 그제야 마루우에 놓인 그 구멍난 칼도마를 알아보았다. 알고보니 고봉수는 지금 새 칼도마를 만드는중이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우리 토친이 하도 답답하여 제손으로 칼도마를 만들어보자고 일감을 벌려놓았는데 공교롭게도 고봉수가 들어섰던것이다.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소털같이 많은날에 하필이문...》

《오테!》

고봉수는 나의 말허리를 꺾으며 톱을 내밀었다. 그리고 자기는 대신 판자를 든듯히 눌러잡았다. 그러니 나보고 톱으로 판자를 자르라는 소리였다.

《자, 그러지 말구 들어가자구요. 내 차차 만들테니.》

《글쎄 자르라니까!》

《정 이러기요?》

《어서!》

《원 고집도 이렇게두라구야...》 나는 또다시 벨이 불끈 솟았다. 《아니 우리 집에 와서까지 국장행세요?》

《이건 형님별 되는 사람으로서 요구하는거야!》

《좌우간 내 두손 버쩍 들었수다. 에- 에 참!》

나는 하는수없이 톱을 쥐고 허리를 굽혔다. 고봉수가 판자를 잡아주었다.

하여 한 도의 수산관리국장과 한 사업소 지배인의 협동하에 칼도마제작이 시작되였다.

기력이 쇠잔해지자면 아직 멀었지만 나는 판자 한토막 자르기가 그닥 수월치 않았다. 숨을 몰아쉬며 판자를 동강내였을 때에는 이마에 땀이 내배기 시작했다. 우리는 마침내 두손을 털고 허리를 폈다. 그런데 언제 왔는지 우리뒤에는 그 제대군인 황봉기가 서있었다. 순간 나는 아침에 그와 한 약속이 생각났다.

《아, 뭔가 제기할것이 있다고 했지? 집문제말이요?》

《아닙니다. 국장동지를 줌... 국장동지! 설제가 끝났습니다.》

《뭐라구? 벌써!》

고봉수는 두눈을 크게 떴다.
더욱 놀란것은 나였다. 도대체 무슨 설계가 끝났단말인가?

《어서 지배인동무에게 설명해주우.》

황봉기는 들고온 도면을 마루우에 펴놓고 새칼도마로 한귀를 지질러놓았다. 무엇인가 둥글둥글한것을 삼각으로 련결한, 너무도 간단한 도면이었다.

《기중기의 기초입니다.》 황봉기는 손가락으로 도면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했다. 《이 둥근것들은 5 톤이상짜리 바위들입니다. 이 바위들을 땅속에 삼각으로 묻고 그 중심들에 착암기로 구멍을 뚫습니다. 다음 그 구멍들에 볼트축을 해박고 산형강으로 련결합니다. 결국 세바위가 한덩어리로 되는데 그만하면 기중기의 기초로 넉넉합니다. 이렇게해서 부두나 잔교를 다 걸어치우고 바로 기중기를 설치하자는겁니다.》

《!...》

설계도면이라고 할것이 없었다. 설명 역시 너무도 간단하였다. 하지만 리치와 기술적타산은 명확하고도 남았다.

민기 힘든 사실앞에 얼떨름해진 나는 고작 한다는 소리가 이런 질문이었다.

《장기봉... 아니 저 황봉기동무, 군대 나가기전에 대학에 다니지 않았소?》

《아닙니다. 군대복무때 서해갑문 건설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봉수가 물었다.

《얼마면 다 끝낼것 같소?》

《기초 하나에 3일이면 충분합니다.》

(3 일?... 게다가 세멘트 한톤, 막돌 한립방도 필요없단말이지. 이게 과연 사실이란말인가?)

나는 요지경속에 빠진 사람마냥 멍청히 서있었다. 머리속에는 도예로, 군으로 뛰어다니며 구차한 사정과 우는소리를 하던 자신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끝없이 반복되던 지루하면서도 보람없던 협의회도 생각났다. 그 모든것들이야말로 얼마나 허무맹랑한 놀음이었는가!...

《여보게, 담배나 한대 주게.》

고봉수의 말에 나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황봉기는 언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마루에 걸터앉아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문득 고봉수가 말을 꺼냈다.

《택현이, 생각나나? 자네가 신혼살림을 할 때 찬장을 만들던 일말일세.》

《에-에?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내시우? 그게 언제적 일이라구.》

...그게 아마 정전직후의 일이었던가?

내가 고봉수와 한배를 타면서 신혼살림을 폈을 때의 일이었다.

살림살이라고는 안해가 가지고 온 이부자리와 웅배기술, 국밥사발이 각각 두개, 거기에 고봉수네가 보태준 쟁개비 하나가 전부였다. 원수들에게 랑부모를 다 잃은 나는 집에서 부지깥이 하나 보탬 받을것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모든것이 만족하기만 하였다. 사람들은 나보고 처가집말뚝에까지 절을 할 사람이라고 놀려주었다.

나는 그만큼 안해를 사랑하면서도 한가지만은 못마땅한것이 있었다.

안해는 부모와 오빠들의 사랑속에 고이 자란 외동딸이어서 무슨 애로가 생기면 친절으로 달려가군하였다.

나는 그것이 질색이었으나 연약한 녀자들에게서 십분 있을수 있는 일로 여기고 일에만 몰두하였다.

당시 사업소의 배들은 거의다 범선들이었다. 우리 배도 마찬가지였다. 하여 돛을 달고 바람을 맞받아 갈지자로 항해할 때에는 지루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궁리끝에 마사진 자동차엔징으로 배를 동력화할 엉뚱한 생각을 하였다. 모두 코웃음을 쳤지만 고봉수만은 적극 지지해나섰다.

나는 기를 쓰고 달려붙었다. 기계에 들어서는 통 무식쟁이였던 내가 그것을 실현하기까지에는 실로 미국놈들과 총부리를 맞대고 결사전을 하던 것만큼이나 악을 써야 하였다. 마침내 우리는 돛을 내리고 바다를 종횡무진으로 달리게 되었으며 그 덕에 두배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저녁이었다. 안해는 또 친절에 다녀오겠다고 하였다. 아버지에게 찬장을 만들어 달라겠다는것이였다.

그때 우리는 널판자 석장을 붙여서 그우에 그릇들을 올려놓았는데 볼품도 없거니와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그것은 우리 집의 형편만이 아니였다. 전쟁의 상처가 사람들의 생활에 그대로 남아있던 시절이었다. 하물며 처가권이라고 무엇이 넉넉하겠는가.

《여보, 웬간한건 좀 참소.》 하고 나는 안해를 나무랐다. 《다 자라가지고도 부모님들께 그냥 근

십만 끼치면 되겠소?》

안해는 뽀로통해졌다. 자연히 우리사이에는 점차 곱지 않은 소리가 오가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나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보! 그럴바엔 짐을 다 싸가지고 아주 가오. 아주! 엉?》

《가라면 가잖구요! 못갈줄 아세요?》

대답을 그렇게 하였으나 역시 녀자의 약한 마음이라 안해는 돌아앉아 눈물을 쪽쪽 짜기 시작하였다.

《원. 저런 맹꽂이라구야!》

나는 처음으로 안해를 탓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넌장! 찬장하나 못만들어서 녀편네가 울고불고하게 하다니!)

밖으로 나간 나는 헛간의 나무가지들을 죄다 부엌으로 끌어들었다.

거개가 바다에서 건져낸것들이어서 널쭉각과 함판쭉각, 각재토막과 통나무토막, 굵고 가늘고, 넓고 좁고, 길고 짧고... 찬장재료라기보다 잡동사니였다. 그래도 공구에 비하면 재료는 너무도 훌륭한 편이었다. 공구라고는 손도끼하나뿐이어서 하다못해 끝조차 없어 배못을 넘적하게 두드리 써야 하였다.

이제는 찬장의 《원형》을 좀 보아야 했다.

나는 고봉수의 집으로 슬금슬금 내려갔다. 밤이 깊었는지라 모두 잠자리에 든듯 집안은 조용하였다. 한밤중에 고봉수를 깨울수는 없어서 문쪼름으로 부엌을 들여다보았다. 불을 꺼놓아서 희미한 달빛에 비친 찬장의 형태는 좀처럼 가려보기 힘들었다.

이쪽저쪽 문틈을 찾아 열심히 부엌을 들여다보던 나는 갑자기 이마가 지끈하면서 두눈에서 불이 번쩍 일어났다.

고봉수의 아들녀석이 피침을 부여잡고 다급히 뛰어나오면서 문쪼름을 걷어차는바람에 미처 어쩔 사이가 없이 문쪼름에 이마를 짓찧었던것이다.

《어이쿠!》

고봉수가 잠에서 깨여 밖으로 나왔다.

《아니, 이 밤중에 어떻게 왔나?》

《넌장! 거... 담배나 한대 주시우.》

나는 얼얼한 이마에 손이 올라가려는것을 겨우 참으며 통명스레 내뱉었다. 화김이라 사실대로 말이 안났던것이다.

고봉수는 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기웃거리더니

안으로 들어가 마라초를 한줌 꺼내다주었다.

(까짓거 내 생각대로 만들고말아야지.)

이마의 혹을 어루쓸며 돌아온 나는 손도끼로 열심히 나무를 깎기 시작하였다. 내가 한동안 정신이 없을 때였다.

문득 머리우에서,

《사내자식이 쑥스럽긴, 사실대로 말할것이지.》 하고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었다.

머리를 드니 언제 왔는지 고봉수가 장승처럼 버티고 서서 찌프린 눈길로 나를 내려다보고있었다. 내가 담배 한대 얻자고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갔었다는것이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던 모양이었다.

더 말없이 밖으로 나갔던 그는 잠시후에 판자며 각재 토막들을 한아름 안고와서 와르르 내려놓았다. 톱과 대패까지 가져다주었다. 내가 재료와 공구때문에 자기를 찾아갔던것으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어쨌든 화가 복으로 된다더니 혹값치고는 꽤나 후한걸, 또 가서 혹을 두어개 더 붙여볼까부다.)

나는 사기가 올라 퐁-퐁 소리를 내며 대패질을 했다. 그러던 나는 너무 덤벼치다가 그만 망치로 손가락을 내리쳤다.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순간 방문이 펄쩍 열리면서 안해가 달려나왔다. 그런즉 그는 문쪼름으로 나의 일거일동을 빠꼼히 내다보고있은것이 틀림없었다.

《어보! 내가 잘못했어요!》 안해는 내 손가락을 감싸쥐고 흐느껴울었다. 《내 다시는... 다시는 그런 일로 친정에 안가겠어요. 제발 그만두세요. 네?》

안해는 눈물고인 두눈에 자신에 대한 자책과 나에 대한 사랑과 간절한 기대와 애원을 담고 울려다보았다.

아, 그때의 안해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복스럽고 아름답던지!...

했으나 내 결심을 굽힐수는 없었다.

이레밤을 지새운 끝에 드디어 찬장의 마지막조립이 끝났다. 나무가 각이하다보니 문양도 각각이었고 색깔도 색색이었다. 곱게 다스리지 못하여 윤택도 없었다. 사개가 잘 맞지 않아 어설픈데도 많았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못녀인들의 부러움을 살만치 훌륭한것이였다. 우리는 신혼살림에서 일약 사업소적으로 몇세대 안되는 찬장을 가진 세대로 꺽충 도약하게 되었던것이다.

아무리 하찮은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피땀과

류다른 사연이 깃든것은 별로 소중한 법이다. 우리 로친네는 그 알량한 찬장이 가보라도 되는듯 30 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버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다. 세탁기요 팽동기요 으리으리한 찬장들이 이 부엌을 가득 채웠는데도...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어떻게 맨손으로 기계배를 만들고 손도끼로 찬장을 만들자고 접어들었었는지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눈앞의 예비도 못찾고 판자 한토막도 제때에 못자르게 되었으니 내가 왜 이모양이 되었는가?...

문득 고봉수가 침묵을 깨트렸다.

《택현이, 자네 병집의 근원은 저 구멍난 칼도마에 다 썩여져있는것 같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렇게 덧붙였다.

《명심하라구, 사람이 안일해지기 시작하면 자기 생활도 혁명사업도 제대로 할수가 없어!》

그는 뒤집을 지고 마당을 거닐었다.

(내가 정말 안일해졌단말인가?...)

그것만은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뛰어다니고 목청을 돋군 내가 아니었던가.

했으나 깊이 파져보면 내가 한 일이란 사업소의 구내만 벗어나면 의례히 승용차를 불러대는것이었고 옆방의 과장도 전화로 찾는것이였다. 결국 내대신 승용차가 바쁘게 《뛰어다니》고 전화기가 요란스레 떠들었을뿐, 나 자신은 언제나 편히 의자에 앉아있었던것이다.

(망할놈의 칼도마같으니! 그저...)

마당을 거닐던 고봉수가 내앞에 와서 걸음을 멈추었다.

《여보게 주인어른, 인사불성도 정도가 있어야 할게 아닌가? 그래, 손님을 그냥 밖에 세워둘 작정인가?》

나는 어쭙게 웃으며 응수하였다.

《그럼 손님이 주인을 그렇게 조겨대는건 도대체 무슨 인사법이요. 아예 마당밖으로 쫓아내지 않는것만도 다행인줄 아시우.》

《허, 이것봐라! 사람이...》

그때 부엌문이 열리며 손님대접준비에 바빠 돌아가던 우리 로친네가 나왔다.

칼도마가 필요한듯 그는 새 칼도마를 집어들고는 좋아서 떠들었다.

《에이구, 이젠 마음놓구 칼질을 해두 되겠구만!

뭘 좀 썰라문 도무지...》

《여보!...》 나는 듣다 못하여 큰 소리로 그의 말허리를 꺾었다. 《황아장수당신은 고불통이 다 시킨다더니 이걸 나살이나 먹은게 주책없이... 에-에, 참!》

《원 누가 할 소린지 모르겠시다...》

로친네는 제편에서 오히려 눈을 흘기고는 고봉수에게 말머리를 돌리었다.

《아주버니, 이담부턴 처녀한테 총각소개를 하실라문 좀 잘하시우다. 글썽 칼도마하나두 제때에 못만드는 량반을 나한테 소개하실진 뭐예요?》

고봉수는 기꺼이 맞장구를 쳤다.

《그러잖아도 후회가 막심합니다. 하지만 내 술석잔을 바라구 백리길을 왔다가 그냥 갈수야 없지 않소.》

우리 로친네의 대답도 결작이였다.

《그렇지만 예로부터 정해진 레의범절이야 어찌겠나요. 소개를 잘못 하셨으니 아예 바라지 마시우다.》

《핫하하하...》

고봉수는 물론 나도 유쾌하게 웃었다.

로친네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어 부엌으로부터 야무진 칼장단소리가 가락맞게 돌려나왔다.

딱딱딱, 똑딱똑딱, 딱딱딱...

일생을 들어온 소리였다. 오늘따라 그 소리는 류다르게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하였다.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칼도마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시라. 그리고 하루 일과를 되새겨보시라.

혹시 아침에 마당쓸기가 싫어서 그만두지나 않았는지, 아니면 세수물놓아주기를 기다리며 서있는 일은 없는지...

혁명은 곧 투쟁이며 투쟁은 곧 생활이다. 그 생활은 아침에 마당을 쓸고 세수를 하는 등 작고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된다.

작고 사소한것, 바로 그속에 그 사람의 정신상태와 투쟁의욕과 기백이 반영되는것이어늘, 아침에 마당쓸기가 싫어지면 낮에 일에서도 몸을 아끼게 되며 나중에는 간고한 혁명의 행군길을 걸어가기가 싫어지는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칼도마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 그러면 그 소리는 반드시 의미심장하게 들릴것이다.

현대문학의 진로를 밝혀주는 위대한 강령적문헌

장형준

오늘 세계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위협에 직면하고있다. 인류의 생존과 운명이 위협당하고있는 오늘의 엄혹한 정세하에서 현대문학이 어떠한 사명을 지니고 어떤 길로 나아갈것인가를 밝히는것은 세계 진보적문학건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평양국제문학토론회와 아. 아 작가협회 집행리사회 회의참가자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하신 연설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에서 시대의 요구와 문학발전의 합법칙성을 심오하게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현대문학의 성격과 진로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문학의 발전과 세계의 진보적문학건설에서 참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

현대문학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연설을 받아안게 된것은 우리 작가들과 세계의 진보적작가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기쁨이며 행복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은 우리 시대 작가들의 임무와 역할, 현대문학창작과 주체적민족문화건설의 길을 과학적으로 명시한 그 사상리론의 위대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20세기 현대문학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강령으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력사적연설이 우리 시대의 진보적인류가 건설하여야 할 현대문학의 성격과 사명, 그 창작의 근본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학건설앞에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현대문학이 어떤 문학이며 그것이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하고 또 어떤 인간문제와 어떤 주인공을 형상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밝히는 것이다. 이 문제들이 정확히 밝혀져야 세계의 진보적작가들이 현대문학에 대한 옳은 리해와 관점을 가지고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혁명적문학을 성과적으로 창작하고 힘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시대 문학건설앞에 나선 이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들은 아직까지 그 어디에서도 뚜렷이 밝혀지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현대문학건설에서 나서는 이 중대한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연설에는

우선 현대문학의 특징이 새롭게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은 세계의 주인이며 력사의 창조자인 사람의 생활을 언어로 형상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간학입니다. 주체의 인간학인 문학은 인간생활의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인간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입니다.》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 1~2 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이 명제는 문학의 묘사대상과 형상수단, 그 고유한 특질과 사명에 걸쳐 문학의 인간학적본성과 주체문학의 혁명적본질을 가장 완벽하게 밝혀준다. 여기에서 특히 새롭고 독창적인것은 **《주체의 인간학》**, **《인간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이라는 정식화이다. 주체의 인간학, 인간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 이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현대문학에 대한 새로운 성격적규정이며 선행시기의 모든 진보적문학과 질적으로 다른 주체문학의 본질적 특징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이다. 인간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으로서의 주체의 인간학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세계관적기초로 하는 우리 시대의 새형의 혁명적문학이다. 문학은 인간과 생활을 묘사한다. 그러나 인간과 생활을 묘사하기만 하면 문학이 되는것은 아니다. 문학이 인간과 생활을 묘사하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인간문제에 해답을 주어 사람들을 교양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문학은 인간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으로 되여야 참다운 문학으로 될수 있다.

연설에는 주체의 생활철학으로서의 현대문학의 본질적특징과 함께 그의 사명이 새롭게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문학의 사명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이바지하는것을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으로 규정하시였다. 이것은 문학의 사명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해명으로 된다. 문학의 사명은 부르조아작가들과 어용문예학자들이 떠벌이는것과 같이 그 어떤 **《향락》**이나 **《본능적패락》**을 충족시키는데 있지 않는것은 물론 생활에 대한 단순한 인식에 머무르는것도 아니며 생활을 인식하게 할뿐아니라 투쟁의 앞길을 옳바로 밝혀주는데 있는것이다.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문학

은 인간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으로서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줌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이바지하는 자기의 숭고한 시대적사명을 다하게 된다. 이것은 이전의 그 어떠한 진보적문학도 지닐수 없었던 본질적특징이다.

로동계급에게 자유와 해방의 길을 밝혀주며 새롭게 태어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마침내 인간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인간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의 휘황한 빛발아래 생활의 철학을 밝혀주는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게 되었다.

인간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 주체의 인간학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창작하여야 할 참다운 현대문학이다. 오직 이러한 현대문학만이 인간생활에서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을 찬미하고 사회악과 온갖 불의를 고발하며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며 자주와 평화, 사회적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활의 철학으로서의 주체의 인간학의 혁명적본질과 숭고한 사명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작가들과 세계의 진보적작가들은 문학에 대한 가장 옳바른 이해와 혁명적인 관점을 가지고 현대문학을 훌륭히 창작할수 있게 되었다.

연설은 현대문학의 특징과 사명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었을뿐아니라 현대문학창작에서 주목을 돌려야 할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또한 새롭게 밝혀주었다.

현대문학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주체의 인간학으로서 자기의 시대적사명을 다하게 하자면 작가들이 무엇보다도 현시대의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옳게 판단하고 이에 창작적주목을 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연설에서 현시기 세계 진보적인민들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침략과 전쟁, 지배와 략탈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자주적인 새 사회를 건설하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자주적인 새 사회,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는 문제는 사회주의나라에 살건 자본주의나라에 살건 발전된 나라에 살건 뒤떨어진 나라에 살건 지구우에 사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인민의 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현대문학은 마땅히 현시대가 제기하는 이 절박한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어야 하며 그레야 주체의 인간학으로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

대중의 리상실현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연설은 작가들이 인민들의 요구와 현시대의 절박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대의 주류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정의로운 투쟁과 그 대오의 앞장에 서있는 자주적인간의 아름다운 형상을 창조할데 대한 과업을 밝혀주었다. 이 과업은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현대문학의 본질과 사명, 우리 시대의 흐름과 그 요구에 대한 과학적인 통찰에 기초하여 제시된 가장 중요한 형상과제이다. 주체의 인간학은 사회력사의 주체이며 그 발전의 동력인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고 아름다우며 고상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다.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추세이다. 오늘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며 핵전쟁의 위협을 막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있는것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정의로운 투쟁과 시대상을 옳게 형상하는것은 현대문학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문학에서 인민대중을 그리는 문제는 그속에서 나온 자주적인간의 아름다운 형상을 창조하는 문제와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자주적인간의 아름다운 세제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숭고한 리상과 자각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투쟁하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사람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정열을 가지고있는데 있다. 오늘 자주적인 인간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자들의 온갖 침략책동과 예측을 반대하고 민족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참된 삶을 위하여 역세게 투쟁하고있다. 문학이 제국주의자들의 만행과 죄악, 그 침략적본성과 검은 배속을 예리하게 폭로규탄하고 놈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자주적인 인간의 아름다운 형상을 창조하여야 인민대중에게 침략과 전쟁을 미워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을 키워줄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특히 미래의 주인공들인 새세대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고력과 용감한 투쟁정신을 가진 참된 인간으로, 인민대중의 정의의 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나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오늘 일부 나라들에서 혁명과 건설의 시대적영웅, 새것을 지향하는 슬기롭고 용감한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울대신 고민하고 회의하는 정신적기형아들과 성격파란자들을 애써 주인공으로 내세우고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자주적인간을 형상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평화에 대한 현시대의 요구를 가장 빛나게 해결할수 있는 형상과제를

밝혀주는 탁월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연설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이 우리 시대 현대문학의 진로를 밝혀주는 강령적문헌으로 되는것은 또한 거기에 주체적인 민족문화건설의 길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어있기때문이다.

오늘 인류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하에서 해방된 신흥세력나라들에서 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것이다. 새로운 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그 성격을 똑바로 알고 건설로선을 옳바로 규정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설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민족문화건설에서 나서는 이 중대한 문제를 다시금 명철하게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문화건설에서 기본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자기 인민의 생활감정과 자주적지향에 맞는 주체적인 문화를 창조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4페이지)

자기 인민의 생활감정과 자주적지향에 맞는 주체적인 문화를 창조할데 대한 사상은 혁명과 문화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사정과 예측과 지배를 반대하고 자주와 진보를 바라는 주체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민족문화건설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탁월한 사상이다. 모든 진보적 작가들이 오직 이 길로 나가야 독립, 자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싸우는 자기 나라 인민들의 자주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민족문화를 건설할수 있다.

연설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막는것이 민족문화건설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혀져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막는것은 문화적침투가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 정책에서 중요한 고리로 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절박하고 긴요한 문제로 나선다.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과 투쟁의욕을 마비시키는 정신적마약이며 민족문화의 발전을 잠먹는 유해로운 독소인 제국주의반동문화의 침습을 막아내지 않고서는 민족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나갈수 없다. 만일 제국주의반동문화의 침습을 허용하고 문학예술을 《자유화》하면 문학예술건설이 망쳐질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에 엄청난 위험이 조성될수 있다. 이것은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 엄연한 사실이다. 진보적작가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양키식 《현대문화》와 《현대문명》의 반동성과 해독성을 인민들속에서 예리하게 폭로규탄하고 그 침습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그래야 민족문화의 주체적발전과 인류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연설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이 우리 시대 현대문학의 진로를 밝혀주는 강령적문헌으로 되는것은 또한 거기에 문학창작의 직접적담당자들인 작가들의 지위와 역할, 사명과 임무가 옳바로 제시되어있기때문이다.

문학의 발전은 작가의 활동에 달려있는것만큼 작가를 어떠한 존재로 보고 그 지위와 사명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는 사회생활의 대변자이며 인간정신의 기사입니다. 작가들이 사회와 인민앞에서 지니고있는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을 다하려면 현실발전의 단순한 관조자가 될것이 아니라 투쟁과 생활의 직접적체험자로, 정의를 위한 견결한 투사로 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5페이지)

사회생활의 대변자, 인간정신의 기사, 이 영예로운 칭호에는 작가의 사상정신적품모와 사회생활과 인간교양에서 노는 그들의 위치와 역할이 뚜렷이 규정되어있으며 투쟁과 생활의 직접적체험자로, 정의를 위한 견결한 투사로 될데 대한 교시에는 작가들에 대한 높은 요구가 담겨져있다.

작가들이 현실에 대한 단순한 관조자가 아니라 투쟁과 생활의 직접적체험자로, 정의를 위한 견결한 투사로 되여야 사회생활의 대변자, 인간정신의 기사로서의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을 다할수 있다.

작가의 사상정신적품모를 밝혀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우리 작가들과 세계 진보적작가들에게 작가로서의 높은 긍지와 혁명적자각을 안겨주고 그들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이바지하는 현대문학창작과 주체적민족문화건설에 힘있게 고무하여주는 탁월한 사상이다.

자주적인 새 사회,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위업은 세계의 모든 인민들과 진보적작가들의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연설에서 자주, 친선, 평화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작가, 예술인들의 공동의 리념이라고 하시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작가, 예술인들이 이 공동의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서로 단결하고 지지하며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작가, 예술인들의 공동의 리념이 밝혀짐으로써 세계의 모든 진보적 작가, 예술인들은 이 공동의 기치밑에 호상 접촉과 래왕을 활발히 하고 문학예술창조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서로 교환하며 단결과 협조의 뉴대를 더욱 넓혀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에서 밝혀진 모든 사상은 우리 나라 작가들의

활동과 우리 문학예술발전에 대한 총화에 기초하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작가들은 주체형의 혁명가, 당 문예전선의 믿음직한 초병으로 자라났으며 우리 문학예술은 70년대에 대전성기를 맞이하고 80년대에 계속 그 성과를 빛내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할수 없다. 시대는 우리 작가들에게 현대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를 더 많이 창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작가들은 세계의 진보적작가들과 함께 우리 시대 인류문학의 진로를 밝혀주는 강령적 로작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을 끝없는 감격과 흥분속에 받아안고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 기여하는 현대문학과 주체적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오늘 세계의 진보적작가들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연설이야말로 세계 진보적작가들의 투쟁

의 기치》이며 **《현대문학창작의 위력한 무기》**라고 높이 찬양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연설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라틴미주의 한 작가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표현되고있다.

《...현대문학은 오늘 잃어버렸던 자기의 키와 향로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세계의 진보적문학은 자주시대의 도도한 흐름에 발맞추어 자기의 끝은 향로를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할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연설은 인민들에게는 해불이 되고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철추가 되는 혁명적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할수 있게 하는 휘황한 등대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깊이 연구하여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생활의 철학을 심오하게 구현한 주체의 인간학을 빛나게 창작함으로써 주체위업의 완성과 세계의 평화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나는 90 년대를 활보한다

오필천

세상엔 아직
90 년대에 가본 사람 없다
허나 나는 지금
90 년대를 활보한다

그 옛날 사람들이
날개달린 배를 타고
리상촌에 가 살았다는
그런 전설이 아니다

나는 걸어간다
사람들을 대신해
로보트가 쇠물을 뽑는
북변의 용해장

웃음소리 높은
전민소유화의 넓은 길로
수확기 줄줄이 달리는 서해천리 농장별로
나는 지금 걸어본다

아직 인류가 누려보지 못한
완전히 승리할 사회주의사회
세계가 그처럼 그려온
인간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조선

아침이면
90 년대의 하늘에서 비껴오는 해살이
가슴에 희망의 새날을 펼치며
나의 출근길을 이끌고

저녁이면
90 년대의 하늘에서 피여오는 노을이
가슴에 행복의 꿈을 안겨주는
아, 새 전망을 안고 설레이는 80 년대

지금 내 발걸음은
80 년대의 땅을 디더도
가슴은 90 년대의 공기를 호흡하고
90 년대의 희열로 심장은 뛴다

어제 력사는 기록하리라
90 년대에 산 첫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전망을 안고
행복에 젖는 조선사람임을

아, 세상엔 아직
90 년대에 산 사람 없다
허나 나는 지금
90 년대에 살고있다

집이여!

송천구

앞벌엔 물결치는 황금이삭
뒤동산엔 무르익은 과일향기
그림같이 아름다운 동산아래
날아갈듯 활짝 추녀 펼친
나의 새 집, 씨리카트벽돌집

아침이면 안해와 나
뜨락또르 몰고 별로 나가고
귀염둥이들 깔깔대며
학교로 유치원으로 가버리면
텅 빈 마당가엔 해종일
살찐 돼지들 꿀꿀거리고
닭무리들 한가로이 모이 쫓는
풍요한 집이라네

정다운 안해를 맞고
아담한 문화주택 받던 일
엇그제같은데
꿈같이 황홀한 새집 창문이
날마다 일터에서 돌아오는
이몸을 따뜻이 반겨주니

마치 해맑은 온실에서
무럭무럭 오이가 자라듯
해마다 나의 행복은 커가고
내 아이들이 꽃처럼 피어나는
집이여
복받은 나의 생활의 보금자리여

너의 문 열고 시작되는
나의 발걸음
저 넓은 대지에 이어지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의 조국애가 싹트고
무성하게 자라오른것 아니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를 따뜻이 품어주는곳
너의 아늑한 지붕아래
나날이 커가는 아이들의 고운 얼굴
높아가는 웃음소리가 있어
하루라도 너를 떨어지면
못견디게 그리워지고

아침엔 밝은 햇빛
밤에는 또
찬란한 별빛이 흘러드는
집이여
내 삶의 열정이 자라는곳이여

너의 작은 뜨락으로부터
조국에 바치는 위훈의 큰걸음이 시작되고
참된 인생의 길이 이어진것 아닌가
한생토록 바쳐갈
나의 진정이 싹트는 요람이여
아, 행복의 집
사랑의 집이여!

흐르는 물결에 추억을 싣고

리형순

우리 나라는 그 어디를 가보아도 흐르는 물을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정연한 관개체계가 서있다.

이름모를 실개천을 따라가보아도 맞춤형곳에 물주머니가 있고 양수장시설이 구비되어있다.

땅속의 물은 졸짱을 박거나 우물을 파놓고 필요한 때에 뽑아쓰고 땅위에 흐르는 물은 물주머니에 잡아두었다가 쓰고싶은 때에 쓴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우리 나라에서는 논밭을 거쳐 나온 물까지도 되돌려 쓸수 있게끔 철저한 관개시설이 갖추어져있어 그야말로 물을 립체적으로 리용하는 관개체계가 서있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전후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마련해놓은 귀중한 밑천이며 자랑할만한 값진 재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기술혁명에서 우리가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수리화를 완성한것입니다.》

기본 수원시설인 저수지나 양수장은 물론 포전너머에 만들어놓은 물주머니와 우물에 이르기까지도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어려있다. 하여 우리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더없이 귀중한것이며 무시할 수쳐버릴수 없는것이다.

나는 은파호를 대할 때마다 감회가 깊어지곤 한다. 한것은 이 저수지가 이 땅에 생겨나기까지에 깃든 뜨거운 사연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은파호는 우리 나라에서도 손꼽히는 큰 저수지이다.

일명 신원저수지라고 부르는 장수저수지는 해주-사리원행 렬차를 타고 가노라면 염탄역에서부터 칠탄산역을 거쳐 신원읍에 이르는동안 바다기슭을 방불케 하여 차창밖의 호수풍경에 눈길이 끌리지만 은파호는 어사역에서 한끝이 얼핏 눈앞에 스칠뿐 사리원역을 떠난 렬차가 양동역을 지나 재령읍에 이르는 구간에도 그리고 재령읍거리에서 해주로 뻗은 포장도로를 따라오며 눈여겨

보아도 저수지가 들어앉을만한곳을 짐작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산중의 호수라고 할수 있는 장수저수지에 비할바없이 크며 이 저수지의 물로 서해곡창지대들을 충분히 적셔준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은파호의 물길을 돌려 반대방향으로 흐르게 하는것이다.

은파호와 한물줄기로 잇닿아있는 장수저수지의 물은 초기에 주로 신재령나무리벌을 적시였었다. 한것은 청단관개가 완공된뒤에는 여러개의 굴을 통해 수양산줄기너머의 청단군과 해주시, 기타 주변농장들에 공급되고있었다. 그러던것이 지난해 서해갑문이 완공되어 대동강물을 신재령벌과 은률 안악땅으로 돌리게 되자 은파호의 물을 역수해서 장수저수지로 흘러들게 물길을 돌리었다.

그리하여 큰 두개의 저수지물은 하나의 물줄기로 잇대여져 나날이 늘어가는 서해간석지의 새땅들을 적시게 될것이다.

날바다의 물을 막아 새땅을 넓혀가고 물의 흐름을 낮은데서 높은데로 흐르게 할뿐만아니라 필요하면 흐름을 돌려세워 늘어나는 새땅에 어머니의 젖줄기마냥 생명수를 보낼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 주체시대의 새로운 모습으로 전변하는 땅! 우리 인민은 물을 다스려 이 땅을 넓혀가고 옥토로 기름지게 하며 보다 좋아질 래일을 마련해가고 있는것이다.

나의 눈앞에는 지금도 재령강물막이로 볼도 가니처럼 뚫던 언제건설장의 나날들이 어제런듯 선히 떠오른다.

그때는 장마철이 갓 지난 9월초무렵이었다. 초당 수십톤의 물이 흐른다는 재령강의 물길은 내닫는 맹수의 기세마냥 소용돌이치고있었다. 담찬 관개건설자들이 그 물길을 타고앉았다. 그들은 물막이공사를 가물철에 벌린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물이 많은 시기를 택한것이다. 그런 담력은 물론 어버이수령님께서 키워주신것이였다.

나는 그때 강물의 흐름을 길들이는 진짜배기 건설자들을 만나보았다. 물이 많을 때 동막이를 벌려놓았으니 물과의 싸움은 치렬해질수밖에 없었다.

물이 언제를 밀고나가느냐, 언제가 물길을 막아서서 견디어내느냐 하는 긴장한 공사장은 그야말로 판가리싸움판에 나선 격전장을 방불케 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한몸이 그대로 언제의 흙이 되고 장석이 될지언정 끝까지 해낸다는 건설자들의 충성의 마음으로 하여 마침내 재령강물은 흐름을 멈추고 장수산기슭에 영원한 안식처를 정하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어느덧 10여년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다시금 그 물을 역수하는 큰 공사가 벌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난 가을에 황해남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이 방대한 관개공사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모든 대책을 취해주시었다.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도안의 인민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물노래소리 높은 5월을 맞고보니 이 모든 일들이 되살아오르면서 자연 감회가 깊어지는것이다.

달밝은 밤에 두렁길을 거닐며 속삭이는듯싶은 물소리를 들을 때는 더 말할것도 없고 뚝을 넘을듯 흘러드는 물결로 하여 더 흥성거리는듯싶은 농촌의 전경을 대할 때면 어느덧 마음은 흐르는 물길에 실리게 된다. 깊어지는 생각은 다시금 두 저수지에 닿는다.

장수저수지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관심과 배려에 의하여 크게 확장된것이다. 장수저수지를 황해곡창지대의 믿음직한 급수기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수령님께서 농민들이 가물을 모르고 농사짓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하시며 저수지공사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과 자재, 수많은 기계와 믿음직한 기술집단까지 보내주시는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장수저수지는 황

해남도에서 제일 큰 만년대계의 저수지로 되었다.

그 이후 수령님께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계속되는 이상기후현상에 대처하여 안전한 수확을 내다볼수 있도록 지하수방침을 내놓으시고 이 일에 전당, 전국, 전민을 불러주시는 한편 이미 무르익혀오시던 은파저수지를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취해주시었다.

이렇듯 두 저수지는 어버이수령님의 깊은 관심과 뜨거운 배려에 의하여 생겨난것이다.

어찌 이 두 저수지뿐이라!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건설된 왕재산기슭의 협동농장을 감돌아흐르는 물길들과 2단, 3단의 양수장들, 가물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땅속을 들여다볼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땅속의 물을 찾아주신 벽성군 백운리의 물주머니, 논물을 대주고있는 농장원의 흙문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신 청단읍농장의 이름없는 논머리... 실로 크고작은 저수지뿐만아니라 물이 흐르는곳마다에는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숭고한 사랑이 그대로 어려있다. 실로 이 땅우에 흐르는 물길에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이 그대로 비껴있는것이다.

그렇다,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일찌기 수리화가 시작되어 그 어떤 왕가물도 모르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있게 되었으며 이에 만족함이 없이 계속 수리화를 공고히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이 땅은 청춘의 혈기마냥 왕성해지고있고 기름진 옥토로 변하여 해마다 풍성한 가을을 마련하고있는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달밤의 물소리도, 용용히 흐름을 이은 물줄기에도, 인수로로 흘러드는 물길도 무심히 대할수 없는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 이 땅의 물의 흐름이 영원하듯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을 위해 마련해놓으신 만년대계의 창조물들과 은정깊은 사람은 이 땅과 함께 영원할것이라고...

진심으로

권금선

누구나 자기 자식을 귀하게 생각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식이 귀할수록 자식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학교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여야 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렵지 않은 일인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은 학부형으로서 아들딸들의 학습을 정상적으로 지도방조하며 모든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교육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얼마전 우리 가정에서 있는 일이다.

남편이 출장을 떠나기로 되어있는 그날 아침이었다.

아들애는 그제야 생각나는지 학부형회의가 있다면서 굳이 아버지가 가야 한다는것이였다.

《아버지가 출장을 가셔야 한다는걸 너도 알면서 그러는구나.》

나는 도리어 아들애를 핀잔했다.

학부형회의에 어머니가 가는것이 상례로 되었던 우리 가정이었다.

그랬더니 아들애는 기분없이 학교로 가버리고 말았다.

언제나 그러하듯 나는 가사일을 뒤로 미루고 퇴근하자바람으로 학부형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다.

그런데 교실에 들어선 나는 잘못오지 않았나하고 자기 눈을 의심했다.

이번 학부형회의에는 전에없이 끝끝한 아버지들이 모두 와있었던것이다.

학부형회의가 달라졌구나!

이것은 나의 첫 느낌이었다.

그쫘하게 교실을 꽉 채우고 앉아있는 아버지들 중에는 인민군장령도 있었고 머리 흰 학자도, 군당의 한 책임일군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직업이 각이하고 사회적인 직위가 다르지만 자식을 키운다기보다 나라에 쓸모있는 인재를 키운다는 하나와 같은 심정들이였다.

그래서인지 학부형회의는 무슨 큰 기업소의 참모회의처럼 엄숙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일단 제기되지만 하면 당장이라도 해체될것만 같이 믿음이 가는것이였다.

나는 학부형회의의 규모가 커지고 달라진데 대

해 저으기 감동되였다. 한편 그럴수록 우리 가정만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온것이 부끄럽게 생각되는것이였다.

이때였다. 교실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출장을 간줄 알았던 남편이 모자를 벗어 들고 불쑥 나타났다.

나는 깜짝놀라 자리에서 일어서기까지 했다. 믿기 어려울만큼 반갑기도 하고 의아하게 생각되기도 하여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기까지 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가 한창 출장준비를 하느라고 서두르고있는데 지배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도원동무, 출장을 하루 미루어야 하겠소.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러오.》

이리하여 우리 가정에서는 막내아들의 학부형회의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참가하게 된것이다.

이날 학부형회의에서는 개별적학생들의 학습성과 생활정형이 지적되였다.

여기서 자녀들이 모범적으로 평가된 아버지들은 만족한 얼굴로 앉아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버지들은 부끄러움과 자책이 어린 얼굴들이였다.

그렇다고 이 책임을 교원에게 물을수도 없는것이고 또 철없는 아이들에게만 지을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일치하게 생각하는것 같았다. 오직 이 책임은 아버지 자신에게 있다는 견지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잘못 생각해온 자녀교양문제에 대해 심심히 돌이켜보며 앞으로는 사회적관심을 더한층 높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고있음에 틀림없었다.

《이것은 학교의 일이자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힘자라는것 진심으로 학교를 도와나서야지요.》

다섯남매를 이 학교에서 공부시켜 대학에도 보내고 군대와 사회에도 내보냈다는 한 평범한 아버지의 말을 들어봐도 그러했다.

《나도 있는 재간껏 학교를 도우리다. 나에게는 목수재간이 있는데 교수용 비품을 만들어주는것쯤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년로보장을 받고있는 한 아바이도 지난날 한가하게 낚시질이나 하면서 여생을 보내자고 하던 자기의 인생말년에 대해 가슴아프게 뉘우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실로 발전하는 교육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녀교육을 잘하고 학교교육사업을 적극 도와나서는것은 우리 부모들앞에 맡겨진 영예롭고도 신성한 혁명임무로 된다.

돌이켜보면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의 첫 종소리가 울린 때로부터 3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오늘은 서른나이의 어엿한 젊은이로 되고 그때 의무교육의 첫 교실에서 공부한 1학년생이 오늘은 40고개를 바라보는 중년나이가 되고있다. 그리고 그때 신입생인 귀여운 자식의 손목을 잡고 첫 입학식에 참가했던 학부모형이 이제는 환갑나이를 훨씬 넘기였다.

그러고보면 나도 해방후 첫 교문에 들어서서 공부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십수년간 무료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대학까지 나왔고 오늘은 자식들을 공부시키고있다.

바야흐로 세월은 흘러 세대는 바뀌였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것은

우리 새세대들과 인민들에게 돌려지는 은혜로운 사랑이다.

어제날에는 우리들자신이 받아안았고 오늘은 우리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 받아안은 가장 고마운 사회주의교육제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빛내여가자면 우리 당이 제시한대로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계속 높여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교육체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주체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 믿음직하게 준비시킬수 있는것이다. 학부형회의가 끝나자 우리 부부는 생각깊은 걸음으로 집을 향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찬란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드팀없이 받들어가자고...

진 정

조창선

푸름푸름 동녘이 밝아오는 이른아침
처녀들은 까르르 웃음을 날리고
거름을 싣는 트랙트르결에서
잘 썩지 않은 거름 일일이 풀라내는
마을의 최아바이

노을길은 저녁엔
삽을 어깨에 메고
갈아놓은 밭 구석구석을 밟으며
생땅이 없는가 살펴보던 아바이

아바이의 주인다운 일숨씨에 끌려
처녀들 룡말로 소곤소곤
《우리들도 그 나이 되면
일을 찾아 잔손질하게 될가.》

아니란다
때가 되면 의례히 그렇게 되는
나이가 가져다준 습관이 아니란다

머슴도 살고 제땅에 첫 보습도 대본 사람
전선에서 돌아와선 폭탄구멍이를 메우고

협동의 새살림을 시작하며
땅이 무엇인지
땅을 떠나 살수 없음을
짚지 않은 생애로 체험한 아바이

그 누구의 평가를
바란적 있었던가
한생을 땅처럼 말없이
조국을 받들어온 땅의 주인

이런 아바이의 흘린 땀이
알알이 지성어린 애국미에 스며여있고
이 땅을 지켜 흘린 피도 진하게 스며여있어
풍요한 전야에선
해마다 오곡이 설레이는것 아니냐

이른새벽 늦은 저녁
무엇인가 땅에 더 주고파,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거두어
조국을 받들자고
아, 그래서 우리 마을 최아바이 잔손질엔
스스로의 진정이 깃든것이어라

우리가 몰랐던 소원

오현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바라는것이 있다. 소원, 희망, 기대... 이런 말들이 그래서 생겨났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소원이라니!

나는 며칠전에 은혜로운 당의 손길아래 새로 건설된 씨리카트벽돌살림집들을 돌아보면서 새삼스럽게 이런 생각에 잠겼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은 제3차7개년계획 기간에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새 전망계획 기간에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인민들의 전반적생활수준을 한계단 높이 올려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 당은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살림집들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새 건설을 벌린다.

씨리카트벽돌의 새 살림집은 인민들에게 안겨준 우리 당의 또하나의 사랑넘친 선물이다.

수정을 깎아세운듯 말쑥하고 정가롭게 안겨오는 다층살림집들, 연두색, 연분홍색, 하늘색빛을 뿌리는 고층살림집들... 결불안이라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내부구조와 시설들은 또한 얼마나 희한한가!

내가 찾은 집에는 문수거리에 살면서 작은아들네 새집들이한 집을 보려고 온 80에 이른 로인이 있었다. 로인은 목이 메어 말했다.

《정말 희한한 집입지요. 우리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걱정 없이 이런 좋은 집에서 복을 누리고 살게 되었으니 세상에 부러운것 없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로인에겐 집에 대한 눈물겨운 추억도 많았다. 길가의 조약돌처럼 내던져졌던 해방전시절엔 오막살이신세를 면치 못했다.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집에 대한 소원이 풀렸다. 그는 전후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다섯차례나 새집을 받아 이사를 했던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안고 오직 복구건설에만 심혼을 바치고있을 때 당에서는 그에게 아담한 단층문화주택을 안겨주었고 그것을 최상의 보금자리로만 알고있을 때 또다시 조립식으로 지은 새 다층주택살림집을 안겨주었다. 그후에 또 두칸짜리 새집, 세칸짜리 새집 그리고 작년에는 문수거리로 이사했던것이다.

《어련히 알고계시겠지만 문수거리의 우리 집은 방이 자그만치 세칸이나 되구 방안과 부엌엔 가

구세간까지 그쥔히 차례졌습지요. 내 새집을 받고서 방이 하두 많구 넓어서 작은아들네까지 데려다 모여살 생각까지 했습지요. 그런데 작은아들네 작은아들네대로 또 이렇게 네칸짜리 새집을 받게 아니겠습니까?...》

로인은 끝내 말끝을 맺지 못하고 눈굽을 찍어냈다. 나는 로인의 말을 들으며 우리 당의 한없는 은덕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다.

로인은 아직 그 많은 칸수와 넓은 방들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마련된것인지 다는 모르고있었다. 아니, 그것은 로인뿐만이 아니다.

지난날 고작 초가삼간을 그리워했던 우리 인민,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사는것을 최대의 리상으로 간직해온 우리 인민에게 당은 얼마나 크나큰 혜택을 베풀어주고있는가.

새로 지을 씨리카트벽돌살림집설계를 올리였을 때의 일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방의 칸수와 넓이에 대하여 또다시 지적하시면서 설계가들이 아직도 당의 구상을 잘 모르는것 같다고, 새로 짓는 씨리카트벽돌집은 설계상 부득이한 경우를 내놓고는 다 세칸짜리, 네칸짜리이상으로 설계하며 방도 더 넓게 해주어야 한다고 거듭 간곡히 깨우쳐주시였다.

직업상 누구보다도 앞날을 많이 내다보며 사는 설계가들로서도 놀라운진대 로인의 경우야 말해 무엇하랴. 로인은 미처 모르고있는것이다. 문수거리의 그 집에 늙은 부모앞에 찾아들 가정을 거느린 세 자식들의 방들이 따로 마련되어있어야 하며 그리고 과학자인 작은아들네 집에 조용한 서재가 있어야 하고 친우들을 즐겁게 맞아들이고 찾아오는 외국의 벗들과도 만나야 할 응접실과 소연회실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그것은 주인들인 그자신들, 아니 우리 인민들이 상상도 할수 없었던 집에 대한 소원의 실현이였다.

나는 해빛을 받아 빛을 뿌리는 씨리카트벽돌집들을 보며 걱정을 터쳤다. 그렇다, 온 나라에 일떠서고있는 저 씨리카트벽돌집, 그것은 자식들이 미처 알수도 리해할수도 없는 그 시절에 벌써 학용품들 마련하고 폐장감을 준비하는 어머니심정으로 공산주의 그날에 살게 될 인민들의 소원까지 헤아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살림집들을 안겨주기 위해 깊은 밤을 불빛으로 밝히며 사색하고 또 사색하는 우리 당의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라고...

상봉지점

림종엽

대동강을 가로지른 순천다리에 들어서자 우리는 저 멀리 련포벌에 펼쳐진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장의 전경을 한눈에 볼수 있었다...

5 월의 푸른 하늘에서 쏟아져내리는 봄별은 함뿍 받아안고 아물아물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있는 비날론건설장의 드넓은 벌은 말그대로 거창하게 일어서고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정녕 장관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수풀처럼 일어난 기둥들과 탑들, 웅장한 건물... 그우에서 나뭇기는 기발 그리고 대형기중기들의 밑에서 분주히 오가는 대형자동차들과 불도젤들...

한미디로 련포벌은 부글부글 불도가니처럼 끓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힘을 집중하여 중요대상건설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중요대상건설을 맡은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높은 헌신성과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하겠습니 다.》

우리의 마음은 벌써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관철에 떨쳐나선 건설장에 가있어 발걸음은 저절로 빨라졌다.

신문과 방송에서 매일이다싶이 이 순천비날론 건설장에서 벌어지고있는 위훈에 찬 소식들이 전해지고있어 누구나 순천을 지나치게 되면 이 비날론건설장을 둘러보지 않고는 못건디게 하는것이다.

순천땅에서 일어나고있는 기적적인 사변을 취재하러 떠난 우리 일행에는 이 건설장에서 일하는 아들을 둔 소설가동무도 끼여있었다. 그는 군인건설자로서 이곳 건설장에서 일한다는 아들의 편지를 받고 안해도 겸사겸사 비날론건설장을 찾아봐야겠다고 버르고있었는데 이렇듯 혼자 온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음을 다그친 우리는 어느새 방사직장건설장에 이르렀다.

우선 방사직장건물이 일어서고있는곳에 무수히 나뭇은 전투속보가 우리의 눈을 끌었다.

《군인건설자들의 자랑찬 성과 !》, 《기적!》, 《지원자의 이름을 묻지 마시라!》, 《180% 넘쳐하고도 성차지 않아...》

우리는 전투속보를 들여다보며 가슴 후터워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엮어진 전투속보에서 벌써 비날론건설장의 열도를 쉽게 느낄수 있었던것이다.

우리는 무수히 나뭇은 전투속보중에서 《상봉후 8 시간!》이라는 표제로 씌여진 속보에서 낯익은 이름을 찾아냈다.

속보의 주인공은 1 직장에서 일하는 군인건설자였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과 상봉한후 한가족이 모여 작업장에서 충성의 구슬땀을 흘렸다는 내용이였다.

우선 그들을 만나고싶었다.

충성의 일념을 안고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장에서 땀을 흘리는 병사의 림름한 모습이며 불원천리 찾아왔다가 뜻밖에도 그 아들을 만난 부모들의 기쁨을 취재하고싶었다.

그러나 술한 자동차들이 오가고 불도젤, 기중기들이 요란한 동음으로 들끓고, 사람들은 바빠 뛰어다니며 결눈도 팔지 않고 작업에 열중하고있어서 그들을 찾는다는것이 쉽지 않았다.

하긴 이 건설대상의 작업장만 해도 사망 십리어간에 널려있고 하나의 시공대상에도 작업반원들외에 사회주의건설에 동원된 군인들과 휴가를 바쳐 일하고있는 시람들, 자기 직장에서 하루과제를 마치고 찾아온 지원자들까지 찾아와 봄비는 통에 더더욱 찾기가 힘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선가는 꼭 만나리라는 기대를 잃지 않았다.

그런데 누군가가 반색을 지으며 다가왔다. 이곳 돌아보니 직맹위원장 강세훈이 웃고있었다.

우리는 여러차례 이곳을 다녀갔기때문에 직맹 위원장과는 이미 구면이고 친숙한 사이였다.

그는 반갑게 우리의 손을 마주잡으며 묻는것이였다.

《그래 누구 찾던중입니까?》

《한가정이 이곳 건설장으로 달려와서 구슬땀을 흘리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게다가 반갑게도 군인건설자인 아들까지 만났다는데 한번 그들을 만나보고싶군요.》

《역시 뜻이 맞는 사람들은 여기 비날론건설장에서 상봉하게 되는군요!》

우리는 그의 말에 호기심을 품고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래 작가동무는 아주머니를 만났소?》

우리 일행의 한 소설가는 직맹위원장의 면바로 묻는 말에 어리둥절해졌다.

우리도 어안이 병병해졌다.

아주머니라니?!…

《그럼 우리 집사람이…? 허- 아들을 보고싶다고 집에 앉아 꾸념질만 하더니 참아내지 못하고…은게…?》

우리 일행의 소설가는 당황해서 얼버무리듯 이렇게 말했다.

《허, 그게 무슨 소리요. 지원물자를 가지고 달려와 아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있는데… 원, 찌쭈.》

직맹위원장의 말에 소설가동무는 얼굴을 확 붉히는것이였다. 아들을 만나보려고 찾아온 안해의 소행에 너무도 요란한 주석을 달아놓으니 어색하고 거북한 모양이였다.

《위원장동무, 그런 말을 그만두시오. 우리는 지금 신광철동무네 온 가족이 건설장에서 충성의 구슬땀을 흘리고있다고 하기에 찾아보려던 참이요.》

《허허…》

장세훈위원장은 유쾌하게 웃었다. 그리고 이어 정색을 하며 말을 이었다.

《소설가동무… 지금 순천비날론 건설장은 온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수십년전에 포연탄우를 해쳐온 전우들, 공장과 건설장에서 만났다가 헤어졌던 친우들과 한고향내기의 동무들이 서로 만나 열싸안고… 충성의 구슬땀을 흘리고있는 상

봉지점이라고 할가요? 내 너무 요란스럽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비날론건설장은 충성의 일념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해 달려온 사람들의 상봉지점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허허.》

알고보니 그뿐이 아니였다.

화학공장건설연합기업소 지령장 김영웅과 동해안에서 달려온 최덕봉아바이와의 뜻깊은 상봉!

이들은 첫 비날론공장건설장에서 헤어져 2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서로 그때 기술혁신의 날에 이룩한 경험과 지혜들을 여기 비날론건설장에 바칠 일념을 안고 찾아와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수놓아가고있다는것이다. 또한 기술과장 조석동은 제대되어 남먼저 건설장으로 달려온 아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앞장서자고 결의를 다지고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연이며 신천의 한정순, 한정옥, 한정실 3 형제가 건설장에서 다시 만난 사연, 돼지를 길러 지원물자를 마련해가지고 건설장에 달려왔다가 한동네 굶은이들을 만나니 기운이 더 부쩍 솟는다는 평성의 서옥빈할머니… 건설장에서 이렇듯 뜻깊은 상봉을 하고 더욱 분발하여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고있다는 이야기는 부지기수였다.

상봉지점!

직맹위원장 장세훈의 표현은 또 얼마나 적중하며 뜻깊은가!

바로 여기가 뜻깊은 상봉지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한몸바쳐 뛰어드는 사람들, 그런 불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 만나는 여기 비날론건설장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뜻깊은 상봉지점이며 충성심이 활화산처럼 불타오르는 지점이였다.

우리는 련포벌에 일어서는 비날론기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웨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풍족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그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여 당에 기쁨을 드릴 각오로 충만된 사람들이 모여온 보람찬 일터이기에 여기서는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고…

머지않아 여기 순천땅에 자랑스러운 대비날론기지가 거연히 일어서리라고!

순천의 대답

권강일

뚝을 허물고 진펄을 메워
우리는 먼저 여기에
넓은 길을 닦았다
철도인입선을 끝었다

건설장으로!
비날론건설장으로!
들어서누나 길목이 메이게
꼬리를 문 자동차들

기발 펄럭이며
불같은 구호를 웨치며
굽이쳐오누나 강물처럼
화차들의 긴 행렬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가득가득 실려오는것이라
번쩍이는 저 강판들에

높이 가린 저 통나무마다에

일터는 달라도 한마음
당이 펼쳐준 미래를 안고
끓어오르는 온 나라의 숨결이여
길은 길마다 여기에 이어졌거니

보내리라 기어이
열정으로 앞당겨 보내오는
그 모든 나날을 다 안아
조업의 환희로운 꽃보라를
온 나라를 뒤덮을 비단폭포를

오, 그렇다 우리는
물동을 실어들이기 위해서만
이 길을 닦은것이 아니다
저리도 넓게, 곧게...

벽시류음

용접공동무여 외 1 편

리 석

잠시 보호면을 벗은
용접공동무여
그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대 무엇에 귀기울이는지
우리는 안다

비오나 눈이 오나
창조의 불꽃 날리며

위훈의 구슬땀 흘리며
저도 몰래 습관된 버릇

아, 비날론폭포 쏟아질 그 시각
락원의 창가마다 넘쳐나는 웃음소리
행복의 그 모든 음향
그대의 용접불꽃속에
제일먼저 피어나고있어라

건설장에 나뭇기는 기발

결사대-
한치의 땅을 지켜
한목숨 내대던 그날의 전호가에서
피로 지킨 그 이름 새겨
건설장에 높이 건 저 기폭을 보는가

동무여! 오늘날
하나의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쌓는다고
우리의 가슴속에 그날의 피 끓지 않는다면
성스런 저 기발아래 설 자리
원해도 있을것인가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건설장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명복

늘 함께 있을 땐 잘 모르다도
잠시라도 우리결을 떠날 땐
어머니 그리는 아이와 같이
그대 생각 떠올라라
우리의 당비서

눌러쓴 안전모에
수수한 로동복차림이
더 어울리는 사람
탄벽을 앞에 놓고 웃는 웃음도
우리과 다름이 없는 사람

일감이 좋을 땐
아니찾아오다도
힘겨운 일 제길 때면
웃으며 찾아오던 그 모습

잊을수 없어라
첫눈 내린 그밤
합숙 보이랴를 찾아가던 그 마음
제대군인 새 가정을 찾아
아래웃목 짙어보던 그 진정

눈에 삼삼도 해라
생활의 길 헛디딜세라
끝은 길로 손잡아준 그대

평범한 우리를 이끌어
위훈의 창조자로 내세워준 그대

못잊겠노라
가까이 있어도
멀리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엔
그대의 모습 생활의 거울이 되고
그대의 목소리 위훈의 노래 되어
해야 할 일 일일이 깨우쳐주나니

그대의 그 깊은 생각과 진정을
어이 다 헤아릴수 있으랴만
나는 말하고싶노라
당을 받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당비서 그대는
참된 생활의 안내자라는것을

나는 말하고싶노라
언제나 자신의 기쁨을
석탄과 탄부라는 말속에서 찾으며
우리를 위훈에서 위훈으로 불러주는
당비서 그대는
마음의 길동무라는것을
심장의 불꽃이라는것을

고전시

밭머리의 아낙네

안 축

농사집 아낙네
점심밥 싸네
제 뭇은 한술도
남기지 않고

마음은 새벽부터
밭으로만 달리네
거기서 정든 님
김을 맨다오

밭머리의 해는 벌써
중천에 걸렸구나
어서 가자 마음은
급하기도 하더니

점심밥 대접하고
돌아오는 길
아낙네의 밭걸음
가벼웁구나

(지정엽 역)

약 속

조혜선

《림군! 국적을 일본으로 고칠 생각은 없어?》

회의실의 폭신한 의자에 앉은 부장의 눈길이 림영준이의 눈길과 마주쳤다. 순간 영준이는 눈을 내리깔고 무슨 생각을 하는 것처럼 침묵을 지켰다.

중공업회사기술개발부의 부실장으로 일하는 림영준이는 올해 40 고개에 들어섰으나 나이에 비하여 펴 늙어보였다. 과도한 연구사업탓인지 머리에 백발이 많았고 해쓷은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밤낮 책갈피나 실험실에 파묻혀 지내는 영준이의 얼굴에서 충기와 예지를 담은 검은 눈동자만이 그가 걸쭉은 40 대의 장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인사관계까지 포괄하여 책임진 총무부장의 말은 단도직입이었다.

오늘 이렇게 불리웠을 때부터 불안이 없지 않았다. 국적문제에 관해서는 이전에도 문의 비슷한 일이 여러번 있었다.

그런데 아번 유전자공학의 연구성과를 가지고 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영준이가 참가할 예정이 확정된 후 또 이런 말을 들어야 하였다.

《될 수 있다면 장차 일본국적으로 고치고 일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지만 림군의 사정도 있을 거고… 이번 연구과제는 림군이 밝힌 부분이 많고 공도 많이 들였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소. 우리 회사와 기술협조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연구소에서 한 3년쯤 연구를 깊혔으면 하는 계획도 있는데 림군이 지금상태면 사실 어려울거요. 조선국적으로써는…》

생각해보겠다는 영준이의 말에 총무부장은 래주까지 꼭 답을 하도록 그에게서 다짐을 받았다.

영준이의 마음은 무거웠다. 며칠동안에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또 그것은 영준이가 제혼자 결심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15 년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온 회사였고 심혈을 기울여온 연구였다. 그의 청춘이자 연구생활이었다. 사랑과 정성으로 꾸준히 안고온 알을 까서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근면한 생활과 심오한 탐구속에서 하나의 새 국면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그것을 모르는 영준이가 아니었다. 그러

나 그 대가로 치르게 될 국적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의 눈앞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칠순이 가까운 영준이 아버지는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와서 모진 고생을 겪은 우리 민족의 1 세였다.

몇해전이었던가. 맏아들 순철이를 조선학교로 보내나 일본학교로 보내나 하고 망설이는 영준이의 내외에게 한 그의 아버지의 말은 지금도 친척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있었다.

《1 더하기 1 은 모르더라도 자기가 조선사람이라고 똑똑히 아는 게 중요하지… 지식은 일본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민족정신은 우리 학교에서 밖에 배울 수 없어. 사람으로 키워야지, 조선사람으로!…》

그이상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영준이 내외도 그이상 말을 못하였다. 아들은 아버지의 성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의리에 두렵고 정의 깊은 아버지였으나 못마땅한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었다. …아버지는 틀림없이 반대할 거라. 저도 모르게 그는 크게 한숨을 지었다. 영준이치고도 결코 패히 승낙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이루어지는 보다 좋은 생활, 알맹이있는 연구생활과 명예도 적지 않게 매력이었다.

밤이 깊어서야 퇴근하는 영준이였으나 그날따라 7 시에는 회사를 나갔다. 어쩐지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가끔 둘러보는 술집에서 한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먼저 하나 떨어지지 않고 있는 청결하고 밝은 연구실에서 전심전력을 실험관속에 집중시키는 영준이는 외진데 자리잡은 수수한 술집에서 한잔 먹을 때 모든 구석에서 벗어난 것처럼 긴장된 온정신이 풀리는 것이었다.

술잔속에 피로와 고민, 그날 있던 불쾌한 일들을 술과 함께 따르고 꿀꺽 마실 때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필경 술은 즐거운 술이 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술맛이 좋지 않고 술기운이 돌아가지 않았다.

얼마간 지나서 그가 앉은 식탁옆에 나이 듬직한 사나이가 돌이 자리를 잡았다. 걸보기에 월급

쟁이 비슷하였다.

어디서 한잔하고 왔는지 술에 얼근히 취하였다.

주정배들은 큰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여보 야마다! 이렇게 기막힌 일이 어디 있느냐, 응?》

야마다라고 불리운 월급쟁이는 잠이 오듯 눈이 거슴츠레해져 소리나는쪽을 힐끗 코웃음을 치며 보았다.

《그 말인가? 교과서문제말이지. 조선에서 떠들썩한단말이지?...》

《흠 일본은 자주독립국이다! 그것도 선진국인데 그따위 나라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우리 일본의 교과서에 시비를 거느냐말이지. 이게 내정간섭이 아니냐, 응?》

《허튼소리 말아. 자네 립장이 반대되면 어하노. 일본이 조선이나 중국을 침략한것은 세계가 아는 엄연한 사실이 아닌가. 세월이 흘렀다고 그것이 외곡된다고 생각하는것이 이상하지 않소?》

침략전쟁을 일으켜놓고 패망한후 잘못했다는 소리도 없이 지내다가 이제 와서 선진국ियो 경제대국ियो 하고 뽐내면서 역사적사실을 그릇되게 가르치려고 하니... 침략과 진출이 갈단말인가? 한심한 일이요. 억지로 말을 바꾸고 꾸며놓아도 역사는 바꿀수 없어! 우리가 교과서문제를 그냥 묵과한다면 후대들에게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되지 않소?》

야마다는 아득한 눈길로 멀거니 앞을 보고있다가 손에 든 술을 단숨에 쭉 - 들이켰다.

《이놈. 언제부터 빨갱이가 되었나? 하하- 알았어. 너 일본사람이 아니지... 일본인인척하고있는 조선인이지. 응? 얼굴로 보아 내 판단이 틀림없어! 하하하.》

야마다도 어이가 없다는듯 웃었다.

《난 전쟁이 싫어서 그래. 전쟁만은 절대로 안된다. 나의 아버지도 형도 전쟁때문에 죽었어. 아버지는 대륙에서 죽고 형은 남방에서 죽어 뼈도 돌아오지 못했어. 전후 고생 많았던 어머니도 장수못하시구...》

영준이는 술집을 나갔다. 거나한 기분은 사라지고 정신이 말짱해졌다.

《일본인인척하고있는 조선인》, 《전쟁은 안된다》하던 그들의 말이 귀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믐밤이 되어서 그런지 별들이 하늘에 촘촘하였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일본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생각되던 중공업회사에 들

어간것도 기술개발부 부실장이 된것도 다 남의 몇배나 노력한 결과 차례진것이였고 그에 안받침되는 영준이의 뛰어난 재질이 있었기때문이었다.

거기까지의 길은 얼마나 험하고 길었던가! 진학경쟁을 이겨낸자들에게만 차례지는 비좁은 길을 앞을 다투어 줄달음친 학생시절. 이를 악물고 안간힘을 쓰면서 툭아오르던 인생의 가파른 고개길에서 한숨 쉬고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데 오늘 그끝에 겨우 차례진 기회를 놓친다는것은 너무도 아쉬운것이었다.

이제 마흔살이란 인생의 고비에 다달은 영준이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

(...량심적으로만 산다면 얼마동안만 일본국적으로 고친다 해도 상관없을것이 아닌가. 조선과 일본사이에 복잡한 문제들이 놓여있지만 그 어떤 힘으로도 진실을 어긋나게 만들수는 없을것이다. 나는 립영준이란 조선사람이다. 그것은 국적을 바꾸었다 한들 드림없는 사실인것이다...)

그는 이렇게 자신을 위안하고 꼭 아버지를 찾아가서 속을 털어놓고 사정하자고 마음먹었다.

금요일이 되어서 그런지 시간이 늦었는데도 전차를 탄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차창밖에 명멸하는 가지각색의 레온싸인들을 보면서 우두커니 서있었다.

전차의 고르로운 툭동이 손잡이를 잡은 영준이의 몸을 작게 진동시킨다.

그는 제정신이 돌아온듯 새삼스레 차창에 비친 전차칸의 사람들을 보았다.

옥실거리는 사람들속에 이제 행운을 잡으려고 하는 늘씬하고 머리가 희끗해진 마흔살의 사나이가 타고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영준이는 낯선 사람의 그림자를 보듯이 차창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고있었다.

×

다음날 그는 아침 일찌기 도교를 떠났다.

차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어느새 고층건물부터 나지막한 인가로, 그래서 푸른 전원으로 변하여갔다.

영준이는 록음이 우거진 산과 들을 차창밖으로 내다보면서 벌써 9월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다가오는 가을의 그림자가 비낀것처럼 여름과 다름없이 여겨지는 하나의 풍경속에도 눈여겨보면 가을빛이 어리기 시작하였다.

영준이의 뇌리에 어제밤에 있던 일이 떠올랐다.

안해의 원망스러운 얼굴이 눈앞에 나타나다가

순시 사라졌다.

어제밤 늦게 집에 돌아간 그는 안해에게 국제 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안해는 저으 기 기뻐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를 축하하였다. 큰 아들 순철이가 재일조선소년단 축구선수로 우리나라를 찾아가고 없었으나 가족 네명이 모여앉으니 오붓하고 즐거운 한때가 되었다.

《아버지는 우리 나라 대표로 회의에 참가하지요?》

무슨 생각이 나는지 막내딸 영숙이가 말뚱한 눈동자를 반짝이며 영준이를 보면서 명랑하게 물었다.

《안야. 재일동포대표지! 일본에 사니까...》

둘째 상철이가 제가 잘 알거나 하듯 뽀내며 말하였다.

영준이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말문이 딱 막혔다.

《장차 우리 나라 대표로 참가하실거다. 그러나 요번에는 회사의 대표지...》

안해는 흐뭇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보았다. 영준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컵안의 맥주를 마셨다.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구리덩어리같이 무겁고 얼음처럼 차디찬 감정이 가라앉고있다는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딱히 분간하지 못하였다.

아이들이 자니 집안은 조용해졌다.

《여보, 래일 아버지한테 갔다올테니 갈 차비를 해주구려.》

안해는 남편이 난데없이 하는 말에 의아쩍게 물었다.

《왜 아버지를 찾아가요?》

집으로 가면 안해에게 사연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으나 막상 그를 앞에 두고보니 좀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안해의 시선을 피하면서 영준이는 말문을 떴다.

《아까 얘기한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문제 있지 않아... 회의가 끝나고나서 미국의 최고급연구소에서 일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

《어떻게 대답했어요?》

안해의 얼굴에 불안스러운 빛이 어렸다. 그는 재털이에 담배불을 문질렀다.

《내 마음이야 하늘로 날아갈 지경이었지. 여태까지의 모든 고생이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면 15 년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어찌 놓칠수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그는 픽 웃었다. 답답한 마음이 자신에 대한 비웃음으로 되었다. 영준이는 말을 이었다.

《늘 그러하듯이 조건은 붙었어. 말로는 강요 안하지만 국적을 고칠수 없느냐고... 귀화가 당장 어려우면 <이남>국적으로 해라고... 그것이 이번 희소식이 들어온 무거운 짐이래요.》

안해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떻게 할 생각이예요?》

영준이는 안해를 보았다. 정색하여 그를 지켜보는 안해의 애달픈 눈빛이 마음을 쭈시였다. 안해가 어떤 말을 기다리고있는가 어렴풋이나마 짐작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 인생에 단 한번만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놓칠수 없어. 잠시 고쳤다가 성공후 다시 고쳐도 큰...》

이번에 회의에서 나의 유전자공학의 연구성과만 발표하면 나의 과학자로서의 앞길은 열릴거야...

국적을 잠시 바꾸었다 한들 내 정신이 달라지겠느냐. 나는 나야...》

안해의 복성스러운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당신은 그리 생각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제 눈보다 남의 눈이 옳을수도 있어요. 나는 그러지 마시라는 말밖에 못해요.》

뜻하지 않은 안해의 결연한 태도가 영준이의 비위에 거슬렸다.

《그건 지금까지의 내 고생을 모르고 하는 소리요.》

영준이는 뺨이 났다.

언제나 말대꾸 하나 안하고 자기를 뒤받침해온 안해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어긋날줄은 몰랐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고있는지 아세요?》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버리고 누구의 존경이나 사랑을 받을수 있는줄 알아요. 나는 그런줄은 몰랐어요...》

영준이의 이마에 피대가 서고 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그러나 안해는 가만있지 않았다.

《무서운것은 남의 눈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래요. 실험관속에서 유전자는 바꿀수 있어도 사람은 그렇게 안돼요.》

당신은 실험관속의 세계밖에 못보게 된거야요. 정신이 나갔어요. 우리가 어찌 그렇게 살수 있어요.》

영준이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올랐다. 아픈

네를 찌르며 대드는 안해가 몹시 미웠다. 그는 저도 모르게 재털이를 잡았다.

부모들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잠을 깬 아이들이 방안에 들어왔다.

《아버지, 아버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까까머리 상철이의 얼굴이 이그러지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영준이의 팔을 잡고 놓지 않았다. 안해의 품에 안긴 영숙이의 엉엉 우는 소리가 가슴에 울려왔다. 영준이는 온몸에서 맥이 쑥 빠져나가는것을 느꼈다. 안해의 눈에 책망의 빛이 어려있었다.

...영준이는 크게 한숨을 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제밤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외로운 생각을 하였다. 내 속을 왜 이다지도 몰라주는가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그러나 영준이는 낙심하지 않았다. 안해는 기어이 자기를 이해하여줄것이라고 믿었다. 어느새 영준이는 잠이 들었다.

그가 새벽에 도착한것은 날이 어둑해질무렵이었다.

영준이는 눈익은 집앞에 서있었다.

파쇠와 고철이 산더미로 쌓이고 스크랩들이 텅 굴고있는 앞마당을 지나가면 코스모스를 심은 작은 화단이 있었다. 회색의 2 층집 문을 열면 아늑한 방문이 열려 인자한 부모가 그를 반겨맞는 그런 광경이 눈앞에 떠올랐다.

영준이에게는 아버지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오늘 아버지를 찾아온것은 자식된 도리로 아무래도 부모를 만나서 경위만이라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때문이었다. 그래서 안되면 다시는 이 집을 못찾아올것이라고 생각하니 발길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까지 와서 뭘 망설이느냐?)

그의 걸음은 무거웠다. 낯선 사람을 찾아갈 때 느끼는 그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이 굳어졌다.

영준이는 현관에 들어섰다.

뜻하지 않은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의 얼굴에 기쁨이 넘쳤다.

《영준아, 잘 왔구나! 할아버지의 제사날이라고 찾아왔니?》

그는 당황하였다.

《아니, 모르고 찾아왔어요. 그저 아버지께 말씀드리고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도 잘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널 불러주셨겠지...》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동포들의 신임받는 분회장으로 활동하는 그의 아버지는 오늘

도 아이들의 학교문제를 가지고 난처하게 된 동포를 찾아간것이였다. 아버지는 밤이 늦어서야 돌아왔다.

마주앉은 그들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바람벽에 걸린 조부모의 사진이 침묵에 짓눌려 앉은 영준이의 눈에 안겨왔다.

평생 만나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였다. 기다리다 못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풀길없는 상봉이란 소원때문에 가슴을 태우며 돌아간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을 찼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별세한후 할머니는 기어이 아들이 돌아오리라 믿고 남해가의 고향에서 기다렸다. 수평선너머 배의 그림자가 나타날 때마다 그의 가슴에 희망이 생기고 사라졌다. 자정이 넘은 야밤이라도 집의 가까이에서 차를 세우는 소리만 나면 할머니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어 아들의 모습을 찾았다고 한다. 숨죽적에 《석태가 왔나?》 하고 큰어머니에게 묻다가 절명하였다는 할머니도 돌아가신지 5년이 지났다.

비보를 받은 아버지가 원한과 슬픔을 안고 몇 밤이나 뜬눈으로 지새다가 대마도까지 찾아가서 현해탄의 거센 파도위에 비분의 눈물을 뿌리고온것을 영준이는 알고있었다.

지금도 그의 눈앞에는 방안에 혼자 고개를 떨구고앉은 아버지의 모습이 삼삼히 떠올랐다. 그의 가슴에 애뒤틀린 감정이 그때처럼 되살아났다.

그러나 지금의 영준이에게는 눈은 있어도 망울이 없었다. 그 하나하나의 비통한 사실이 영준이에게 무엇을 알리려고 하고있는지 알수가 없었다.

과거와 미래의 련관속에 현재라는 오늘이 있었다.

조국의 분렬은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뿐아니라 해외에 사는 동포들속에도 분계선을 그어놓았다.

조국의 분렬이자 민족의 수난이고 동포들의 비극이였다. 한태줄로 이어진 모체와 태아처럼 조국의 운명은 동포들의 운명과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늘그막에 이른 아버지가 이제 인생의 고비를 절반이나 넘은 아들에게 대줄수 있는것, 그것은 삶의 진리였다.

아버지는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여 불을 붙였다. 담배를 권 손이 흥분때문에 약간 떨리였다.

영준이의 말은 아버지에게 청천벽력이였다. 그

는 처음에는 아들이 하는 말을 끝이듣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이 정색하여 무릎을 꿇고앉은것을
보니 큰일이 난줄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영준아! 넌 부자간에도 38선을 긋자고 하느냐,
안그러면 오늘부터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
니라고 말하고싶으나! 대답을 똑똑히 해봐라!》

영준이의 입에서 미리 생각하여온 말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마에서
진땀이 흘렀다. 영준이는 고개를 숙인채 눈을 딱
감고 말문을 열었다.

《저는 요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합니다.…
어떤 비난도 중상도 각오하고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의 맘을 알아주세요.》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라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노기가 어려있었다. 분통이 터지
려하는것을 가까스로 참으면서 그는 영준이에게
물었다.

《순철 어미는 뭐라 하노?》

영준이 눈앞에 안해의 모습이 떠올랐다.

《장차 납득시킬 생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영준이는 그이상 말을
하지 못하였다. 어제밤 있던 일을 생각하면 우울
하기만 하였다.

《너는 자식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구체적
으로 자식들의 장래문제를 이야기해보아라.》

영준이는 가슴이 덜컥하였다.

자기 일신의 명예와 성공은 생각하여도 아이들
의 장래까지 깊이 생각을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결코 무관심했던것은 아니었다.
어떻게나 될것이라고 나중에 생각할 문제로 두었
던것이다.

《나쁘게는 안될겁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아버지의 결창이 터졌다.

《이 망할놈의자식!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가리
지 못하느냐! 뉘가 누군고…

내가 널 키울적에는 제 나라, 제 민족에 도움
이 되라고 그랬다. 제가 혼자 잘나 잘사는줄 아
느냐. 우리에게 나라가 없었다라면 너에게 재주
가 있고 아무리 노력했다 한들 누가 너를 공부시
켜주었겠니. 패씹한놈! 너에겐 사람 마음이 없느
냐!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

그는 먹살을 틀어쥐고 언성을 높여 꾸짖는 아
버지의 기세에 어리둥절하였다. 여태까지 이렇게
무섭게 성을 낸 아버지모습을 모르고 자라온 영
준이었다. 아버지의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속에
참된 사람들의 가슴에 간직된 진실한 빛이 어려
있었다. 그 빛은 영준이의 마음속에 얹혀있는 진

짜와 가짜의 명암을 보듯이 뚜렷하게 가려놓았
다.

결심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영준이는 아무
말도 못하였다.

어머니가 방안에 뛰어들어와서 아버지를 진정
시키려고 하였다.

《여보, 진정하시우. 다 큰 아들보고 그래서야
되겠어. 진정해서 이야기해야죠. 몸 상하겠어. 여
보.》

《이 못된자식이 쪽바리되겠는데 이게 분통이
터지지 않겠나말이지…

저를 키워준 나라의 은혜도 모르고 낳아준 조
상도 모르는놈, 제 혼자 잘산다고 그따위 소리하
려 능청스럽게 제사날에 찾아왔어. 이놈 자식 나
가라! 당장 나가! 아예 이 늑다리에겐 아들이란
게 없었어. 이놈 자식 당장 나가라!》

이때 덜컥 문어는 소리가 났다. 들어온것은
안해와 순철이었다.

오늘아침 니이가다에 도착한 순철이는 집으로
전화를 걸다가 그간의 사정을 알았다.

순철이는 가만있지 못했다. 그는 니이가다에서
바로 할아버지집을 찾아온것이였다. 안해도 역
시 어린것들을 친정에 맡기고 시가로 급히 찾아
왔던것이다.

별에 탄 검스름한 얼굴에 딱 바라진 어깨와 다
부지게 생긴 몸매, 소년의 생기도는 모습은 험악
해진 방안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순철이는 들어오자마자 할아버지앞에 가서 무
릎을 꿇고 바로앉았다.

《할아버지! 순철이가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용서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일시 잘못
생각하였기로 저희들이 어찌 그리 되겠습니까?…
제발 아버지를 용서해주십시오.》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순철이는 절절하게 당부
하였다. 방안의 긴박한 공기는 차차 사그라져갔
다.

영준이는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서있었다.
그의 팔을 잡으며 안해는 묵묵한 소리로 말하였
다.

《여보, 빨리 빌어요. 아버님께 망신할라구 그래
요. …그렇게 말렸는데두…》

안해의 소리에 영준은 제정신을 차렸다.

도금칠한 꿈은 바탕이 드러났다.

그는 가슴에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그는 눈시울이 파가와졌다. 아버지를 용서해달
라고 비는 순철이의 기특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녹였다. 그는 자기의 미욕하고 배은망덕한 행동

이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잘못했습니다.…》

영준이는 부친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었다. 어머니와 안해의 흐느껴우는 소리가 가슴에 찾아들어 그를 안타깝게 하였다. 후회와 한탄의 눈물이 앞을 가렸다.

《순철아, 잘 돌아왔다.》

나지막하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할아버지는 손자 보고 말하였다. 순철이는 가슴이 찡하였다. 영준이는 아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갈피를 찾지 못했다.

《자, 제사준비를 어서들 하오.》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와 안해는 눈굽을 훔치며 함께 부엌으로 갔다.

정지되었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영준이는 순철이와 함께 집밖으로 나갔다. 도라지며 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피어나 첫가을의 도래를 느끼게 하였다. 어둠의 장막속에 별나라가 펼쳐졌다.

그는 별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영준이의 머리속을 이틀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그는 일시의 명예욕때문에 가장 귀중한것을 잃어버릴번하던 자기를 뉘우쳐보았다. 그것은 둘도 없는 조국이고 사랑하는 자식들의 장래이며 영준이 자신의 행복이었다.

영준이는 아들을 보았다. 순철이는 별하늘에서 무엇을 찾으려듯 우두커니 쳐다보고있었다.

《무엇을 찾니?》 영준이가 물었다.

순철은 입가에 미소를 띠우고 영준이에게 눈길을 돌렸다.

《별을 찾고있어요.》

《또 무슨 별을 찾나?》

순철이는 환하게 웃으며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이름없는 별이에요. 혹하면 따로 이름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난 몰라요.》

의아쩍은 영준이의 얼굴을 보며 순철이는 말을 이었다.

《아버지! 아름다운 조국의 밤하늘을 보면서 별 이름따라 성좌를 찾다가 발견한 나의 별이에요.》

…언제나 그 별을 보며 슬한 생각을 했고 떠나올때 나의 마음도 그 별에 두고왔어요. 붉게 빛나는 애기별인데 여기서는 못찾을것 같구만요. 하지만 아쉽지 않아요, 그 애기별은 지금 이 시각에도 조국의 하늘에서 반짝일거니깐요.》

《나의 별…》

영준이는 되뇌이듯 입속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름없는 못별속에서 아들이 찾은 나의 별이 한없는 우주의 어디에서 빛나는 별인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희망과 꿈을 자래워준 조국의 품에 안긴 뜻깊은 나날 아들이 별하늘에 자기의 마음을 새기고 아름답고 휘황한 미래를 그려본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는 어쩐지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버지! 약속해주세요.》

《뭘?》

《래일모레 9.9 절경축 축구대회에 나갈테니 꼭 응원하러 와주세요.》

여래껏 일이 바쁘다고 아이들의 운동회조차 가본 일이 없는 영준이었다. 피땀 회사의 일정이 떠올랐으나 그는 그것을 얹어치웠다. 유급휴가를 받으면 되는 일이었다.

《좋지! 그러나 우승하겠나?》

《하구말구요.》

《그럼 우승하면 무슨 상품을 내야지…》

순철이의 눈이 반짝이였다.

《아버지, 제가 우승하면 래년 여름방학에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우리 모두 원수님 계시는 평양으로 갑시다.》

순철이의 맑은 눈동자는 새별처럼 반짝이고있었다.

《꼭 찾아가자!》

《아버지, 약속!》

순철이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영준이도 약속하자고 그 손가락을 잡았다.

영준이의 가슴에 순철이를 처음으로 학교로 보낼 때 아버지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렇다! 사람이란 자기의 본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과학탐구의 길에서 내가 잊어버리고있었던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우리에게 조국이 있다는것을 잊지 말고 그 귀중함을 명심할 때 우리는 해외에 살아도 깨끗한 민족의 얼을 대대로 물려줄수있는것이 아닐가.

본을 모르고 또 자기 존재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다울수 있으랴!)

하늘에는 삼태성이 반짝이고있었다.

시계를 들여다보니 벌써 자정이 가까웠다. 그들은 별빛을 안고 함께 걸음을 옮겼다. 환한 불빛이 켜있는 집을 향해 걸어가는 영준이와 순철이를 별들이 지켜보고있었다.

조카의 모습에서

김 윤

사람들사이의 혈육의 정이라는것은 매우 깊은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던 동포형제자매들이 조국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특히 조국에 온 동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설레이며 감개무량해지곤 한다.

나는 얼마전 일본에서 나서자란 조카가 조국방문차로 평양에 왔을 때의 일을 잊을수가 없다.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령도를 받으며 조국의 숨결과 함께 자라난 새세대동포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맥박치는 조국애를나는 다시금 감명깊이 느꼈기때문이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에 있는 조선청년들은 자본가가 없고 착취와 압박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무료로 치료받으며 다같이 잘사는 사회주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합니다.》

엿그제까지만 하여도 조선대학 학생이 되었고 감격과 기쁨을 글로 적어보내오던 조카가 어엿한 총련일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자 나는 후더워나는 가슴을 금할수가 없었다.

《이번에 조국의 참모습을 말로나 글로써가 아니라 직접 두눈으로 보게 된 나의 마음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가득차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조카의 절절한 목소리는 들을수록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키는것이였다.

나날이 통성번영하는 조국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깊은 감명을 받아안은 조카의 이야기...

혁명의 수도 평양에 건설된 주체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에서 느낀 조선의 기상에 대하여, 혁명의 성산 백두산마루에 올라 배우게 된 항일의 혁명전통에 대하여 그리고 먼 옛날 하늘의 선녀마저 그 경치가 하도 아름다와 땅우에 내려왔다는 금강산이며 천하절승을 자랑하는 묘향산에서 보고 느낀 조국산천의 풍만한 정서에 대하여...

참으로 조카가 본 조국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는 그 품에 안겨사는 나자신마저 감회가 깊어져온 정신이 끌리는것이였다.

나는 그때 조카의 이야기에서 이토록 아름답고 훌륭한 조국의 빛나는 현실에 대하여 다시금 새롭게 느꼈고 진정 그 품에 안겨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는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되였다.

어제날 나라없는 설음을 안고 이역땅에서 모진 학대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온 내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열어주신 귀국의 배길에 올라 오매에도 그리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기던 그날 나 역시 오늘의 조카처럼 더없는 기쁨과 영광에 휩싸였었다.

그때로부터 조국의 은혜로운 품에서 아무 근심없이 보람찬 생활을 누려온 나는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은덕으로 가는곳마다 행복이 마련되여있는 이 품이야말로 나의 조국이며 인민의 지상락원이라는것을 심장깊이 느끼게 되었던것이다.

나는 조국의 희망찬 현실에 감동되여 흥분한 조카의 량어깨를 꼭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옳다! 오늘 내가 보고느낀 이 땅의 그 모든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영광이구 자랑이다.》

나는 조카에게 나서자란 그 땅이 조국인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 품이야말로 둘도 없는 어머니품이며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 뜨거운 손길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민족의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품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조국이라고 말하였던것이다.

조카는 나의 확신에 찬 어조에 깊이 감동되여 방안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오래도록 우러러보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삼촌! 조국땅 멀리 이역에 사는 우리들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사랑이 미치는곳이라면 그곳이 제아무리 험하고 거칠다 하여도 나는 두려울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렇듯 부강하고 위대한 조국을 심장에 지닌 우리들이기에 멀리에서도 민족의 태양이 찬란한 빛을 뿌리며 우리 인민의 휘황한 향도의 별이 빛나는 이 땅을 더욱 귀중히 여기구 열렬히 사랑하겠습니다!》

기백이 차넘치는 조카의 굳은 결의! 그것은 조카 한사람의 결의가 아니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배려와 사랑을 받아안고사는 이역땅의 전체 재일동포후대들의 심장속에 새겨진 신념이기도 하다.

그들의 굳은 신념은 온갖 풍랑풍조가 살판치는

자본주의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조국의 숨결을 따르는한, 주체시대의 걸출한 인민의 지도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는 한 굽히지도 꺾이지도 않을것이다.

나는 조국의 품에 안겨 새로운 결의에 충만된 조카를 뜨겁게 포옹했다. 그리고 방문일정을 마치고 조국을 떠나는 그에게 무엇이 꼭 필요되는가 할수있는것 너를 도와주고싶다고 하자 조카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삼촌! 우리가 그토록 뜨거운 보살핌속에서 사는데 다른것은 필요없어요. 다만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헌 그리고 덕성실기학습에 필요한 서적만은 꼭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아!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굳게 믿고 따르려는 조카의 모습...

그 품을 떠나면 다시 안기고싶은 간절한 마음!

몸은 비록 멀리에 있어도 조국을 더욱 깊이 알고 그 뜨거운 숨결대로 살려는 그의 뜨거운 심장...

나는 너무도 어렸을적에 헤어져 얼굴마저 잊었던 일본땅의 조카에게서 새세대 동포자녀들의 신념어린 모습들을 볼수가 있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 참된 민족의 녀를 안고사는 일본땅의 공화국해외공민들과 어엿한 새세대 총련일군들의 참모습을 조카의 모습에서 가슴뜨겁게 느끼었다.

참으로 은혜로운 조국의 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령도의 현명성으로 하여 오늘도 래일에도 우리조국인민들이나 온 세상 그 어느곳에 사는 해외동포들이나 다같이 사랑하여주고 찬란한 미래를 안겨주는 어머니품인것이다.

우리의 70 만

김연우

우리 다시 모였구나

조선회관

총련결성 기념하는

뜻깊은 대회장에

높이 든 기발들은

모범분회 자랑 속삭이고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

기쁨과 감격속에 설레는데

아, 문득

가슴속에 젖어드는 뜨거운 생각이여

걱정에 넘쳐 웨치고싶은 마음이어

어디서 떠나

여기에 다 모였는가

우리의 동포, 우리의 70 만!

감회깊이 긍지높이

대회장 복판에 앉은 분회장 로인

저 눈물젖은 얼굴이 말해주고있구나

수십년동안 자전거우에

조국의 새소식 실고다닌 이야기...

흑가이도에서 왔다는 나어린 녀선생

저 웃음어린 눈길에 속삭이고있구나

눈오나 비오나

동포소년 찾기 운동 이끌던 그 사연...

자랑스럽구나

해마다 교육원조비 받아안을 때면

감격에 울고 기쁨에 눈물젖던 가슴들이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천을 대신하고 만을 대신하리라 맹세다지며

어깨를 결고 들어선 우리의 대오

아, 우리 수령님

사랑으로 하나하나 찾아주시고

믿음으로 넓은 품에 안으시여

이국땅 한복판에 뿌리깊이 세워주신

존엄높은 해외공민 우리의 총련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대오보다 늘어가고 커가는것은

조국을 받드는 애국의 마음

그 마음 모여

고임돌되고

그 마음 합쳐져 성새가 된 우리

우리의 이 마음

이국땅의 찬바람도 흐리울수 없으리

바다길 수만리도 가리울수 없으리

찬란한 해와 별 우러러따르는

우리의 일심단결 우리의 70 만

풍경화

윤영탁

철의 도시 내 사는 집에
언제나 늘 걸려있는 풍경화
쇠물을 다루던 투박한 손으로
내가 그린 체절소 풍경

그 어느 화가의 그림처럼
현혹될 명화도 못되어
찾아오는 친구들도
그저 웃음속에 범상히 스쳐보던 그림

그런데 어느날이었던가
꿈같이 찾아온 행복
철의 도시에 오셨던 지도자동지
친히 우리 집에도 들려주실줄이야
가지가지 집안살림 다 돌보시고
이 풍경화를 오래오래 보아주실줄이야

그 무슨 명화나 감상하시듯
때로는 미소도 지으시고
때로는 이윽히 사색에도 잠기시더니
그리도 정겨이 물으시었네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가

서툴기 그지없는 그림을 놓고
나는 그만 거북하여
두손 맞잡고 비비며 겨우 말씀드렸네
용해공거리에 첫살림 차리던 날
창가에 물든 쇠물노율이 하도 고와
그릴줄 모르지만 그려보았노라고

그러자 그이께서는
대번에 환히 웃으시었네
알고보니 동무는 훌륭한 화가라고

자기 생활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려
볼수록 더 보고싶은 그림이라고

그러시더니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속삭이듯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었네
동무는 저 종이우에만 아니라
쇠물로 하늘을 붉게 채색하며
조국의 대지위에 훌륭한 화폭을 수놓아가는
그야말로 참다운 화가이라고

순간 내가 그린 한폭의 그림이
그대로 살아숨쉬는듯
노율이 방안가득 채광을 뿜고
쇠물이 사품치며 쏟아져내릴듯
아, 그리도 진하다진한 생활의 향기를
그 하나의 화폭속에 담백 담아주실줄이야

나는 그저 꿈만같았네
내 그린 그림이 아닌
이 세상 가장 복받은 생활의 한복판에
내 지금 녀를 잃고 서있는듯
가슴에 용솟는 생활의 열정으로
철의 도시 하늘땅에 화필을 휘두르는듯
세상을 향해 웨치고싶었네
아무렴 나는 화가이고말고

아, 그날부터 세월은 흘렀어도
내 그린 한폭의 풍경화에
그이 두고가신 생활의 향기는
날이 갈수록 쌓이고 덧쌓여
온 제철지구에 해살처럼 퍼져간다네
우리 용해공가문의 자랑찬 가보로
영원히 빛난다네 내 그린 풍경화

대동강

리소영

흘러간 세월
이야기해 무엇하랴
쓰리고 아픈 추억의 배
거슬러올려 무엇하랴

밤이면
처량한 배사공의 노젓는 소리
어찌나 구슬렸던지
소년의 이 마음도

쓰리고 아팠더라
물새마저 슬피 울며
어디론가 날아갔더라

강아
대동강아
가난이 죄가 되어
봉선화처럼 곱던 내 누이
중으로 끌려가던 날

네 물결에 몸을 던졌을 때

네 기슭
한그루의 버드나무도
누이의 머리태인양
네 물속에 풀어헤치고
몸부림치지 않았더라

긴긴세월
네 물결에 실려 흘러간것은
가난한 사람들 모습이었고
나라없는 백성의
시름많은 모습이었거니

흘러간 세월
이야기해 무엇하랴
쓰리고 아픈 추억의 배
거슬러올라 무엇하랴

네 물결우에 오늘 비낀것은
온통 웃음소리이고
네 물결우에 아롱진것은
행복의 황홀경이니

달밝은 이 밤
첫 사랑을 고백하는
저 처녀 총각은

흘러간 세월의 아픔 알고나 있는지
유보도 층계아래
밤 낚시대 드리운
백발의 저 로인
어제날 나루터 배사공인줄 어이 알리

아, 대동강
대동강아
너의 물줄기는 한줄기여도
네 물결우에 실린 시대의 모습은 갈지 않아라

보아라
저 불빛
네 물결우에 비낀
찬란한 주체사상탑의 봉화
탑의 대돌우에 높이 올라선
자주의 새세상의 주인들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오, 새시대의 모습
영원한 화폭으로 비껴담으라고
세월은 흘러도 그 모습 흘러가지 말라고
아, 우리 수령님
네 흐름마저 멈춰세워주셨구나
대동강 대동강
인민의 강이여!

어느 집 문을 열어도

김재원

어느 집 문을 봐도
다정한 눈빛인양
속삭이면 날 부르는듯한
불밝은 밤거리

행복의 웃음
창마다 어려
그래서 그 이름
창광거린가

안해가 기다리는 나의 집 문패
이 거리에 붙어 안있고
날 찾아오는 《로동신문》, 《조선문학》
그 낯익은 신문함 여기 걸려있지 않아도

거리여 거리여
나의 수도여
탄부의 권리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저 불밝은 창가에
어느 공장 누가 사는지
내 알지 못하며
사랑한들 어떠랴

별빛아래 가벼이 창문보 찢히는 저 너인
저 이름모를 너인도 나와 함께
같은 시각에 같은 당보를 읽고
서둘러 출근길에 나섰던 너인이리

저네들도 나처럼
이 하루 의무에 충실했고
새로 나온 명곡들을 감상하며
이 저녁 저 창가에 앉았으리

내 이 거리 낯설지 않듯이
저들도 나의 탄전을 모르지 않으리라
추운날에도 추운줄 모르며
사철 상록수 푸른 훈훈한 방에 살거니

아, 시대의 축복속에 운명을 같이하기에
내 마음 이리 가까와지고
내 생각 이리 다감해지는가
밤! 수도의 밤거리여

이 거리에선 우리

알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을듯하구나
이 거리에선 어느 집 문을 열어도
모두가 나를 친척처럼 맞을듯하구나

오오, 밤새도록 웃음소리 높은
그 어느 집 문을 열어도

첫 열매

불어오는 바람결에
마음도 취할듯싶은 아침
알알이 붉은 열매 따는
이 기쁨 함께 나누고싶어
못견디게 그리워지는 사람아

그립구나
지금은 멀리 가있는
3대혁명소조원, 사랑하는 처녀야
그대 애써 심어가꾼 과일나무에서
첫 열매를 따는 오늘엔
더욱 그립구나 그대의 모습이

이제라도 소리쳐부르면
무겁게 드리운 가지 조심히 쳐들고
웃으며 마주 걸어오는듯싶고
정다운 그 목소리
금시 귀에 들려오는듯...

생각나누나
세월의 버림받은 이 산기슭에
애어린 과일나무심던 그날이
지금은 추억속에 아름다운
못잊을 그 나날들이

수백리 먼길을 걸어온
그대의 작은 어깨우에서
어린 과일나무 받아안으며
우리는 말했었지
괜한 수고를 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대는 조용히 웃으며
우리에게 말했더라
어떻게 하나 이고장 아이들도
제고장의 과일을 먹게 해야 한다고
이것이 당의 뜻이라고

아, 그 마디마디에
당을 받드는
그대의 뜨거운 진정이 넘쳐
그날부터 온 마을이 떨쳐나섰어라

천만년 잠자던 산발도
긴긴 꿈을 깨치며 설레였어라

더 말해선 무엇하리
어떤 로력의 땀 이 뿌리에 배였고
어떤 정성이 나무를 가꾸었고
또 어떤 뉘이
이 열매속에 맺혔는가를

수고도 많았다, 처녀야
두메산골 낫선고장에 와서
한두가지 아닌 농사일을 두고
크고작은 농장일을 맡아안고
진정 그대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해놓았는가

열백가지 생각을 해도
열백가지 말을 하여도
오직 당의 뜻으로!
그래서 우리 그대를 사랑했고
그래서 우리 그대를 더 따랐더라

아, 산에 들에
사람들 가슴속에 심어주고 간
그대의 마음
꽃으로 피고
알알이 열매로 맺혔거늘

정녕 이땅
이 마을만이 아닌
3대혁명의 찬란한 빛발아래
온 나라에 주렁진 충성의 열매를
우리는 여기서 본다

지금은 멀리 가있는
그러나 마음속에 늘 함께 있는
3대혁명소조원, 사랑하는 동무야
그때 애써 심어가꾼 과일나무에서
첫 열매를 따는 오늘엔
못잊을 그 웃음이 더 향기롭구나

신지락

잠들수 없는 밤에 외 1편

리응래

자정도 훨씬 넘었건만
가슴에 파고드는 생각
인생이란 무엇이고
삶이란 무엇인가?

나의 인생길
시작은 어디서였고
지금은 어디까지 왔는가
길가의 막돌처럼
굴러다니던 내 운명이
위대한 수령님 품에 안겨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찾고

당을 따라온 먼 항행길
그 생활의 길은
순풍에 돛을 단
꽃바다길만이 아니었어라

불바다, 난바다를 헤치고
사나운 격랑도 넘으며
옆질세라 뒤질세라
노저어 달려왔다만

내 당을 받드는 길에서
당의 은정 보답하는 길에서
티없이 정결한 마음
조금이나마 자책되는 일 없던가

마음보다 한일이 적고
아쉬움에 뉘우침 많아도

마음을 가다듬고
값높은 삶을 그리며 가는
나의 향로는 아직도 멀거니

그 마지막기슭까지
조타를 억세게 틀어쥐고
사나운 풍랑도 헤가르며
신념의 진군길 이어가리라

나는 가리라
깨끗한 의리를 지켜
수월치 않은 어려운 길
명예도 안식도 바람이 없이
누가 보건말건 신념대로
청춘의 기백으로 가리라

내 심장의 노래 부르다
그자리에 쓰러진들 어찌리
혁명의 붓을 쥐고
책상머리에서 숨진들 어찌리
당을 위해서라면
그대가 준 이 심장
그대 위해 바치리니

아, 잠 못드는 밤이여
되찾은 인생의 봄을 안고
삶이 나래퍼는 가슴이여
다잡는 마음속에 열정이 끓고
청춘의 새아침을 다시 맞는 기쁨이여

시를 쓰노라

모두들 말했더라
머리에 흰서리내리었는데
시가 되겠느냐?
노래가 나오겠느냐?

허나 나는 시를 쓰노라
나이와 함께 늙을수 없는 삶의 의지가
다시 붓을 쥐여주어

나의 운명 이끌어준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전사의 도리 다하지 못하여

죽을 권리없는 이 몸이어서

다시 시작하고싶은 생을 안고
삶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며
새로운 전투에 들어설 각오가
혁명의 붓을 틀어쥐게 하였노라

마음을 가다듬고
시상을 더듬어가노라면
아, 되살아나는 청춘이여!
환상은 나래를 펴고
열정은 이 가슴 불태워라

노래하리라
 내 진정 부르고싶은 노래
 불러도 끝이 없을 노래
 찬란한 해빛아래
 끝없이 번영하는 내 나라
 세상에 부림없는 우리의 긍지를...

간절히 바라노니
 나의 노래 진정이 차넘치기를
 나의 노래 충성에 불타기를

그 마음으로 사색을 이어가고
 내 시어를 고르고 고르노라
 시를 쓰노라
 노래 부르노라
 생활이 나를 흥분으로 부르거니
 흰 머리카락 날리며
 청춘의 기백, 그 정열로
 내 심장의 노래 부르노라

바다와 갈매기 외 1편

서진명

비뿌리는 음울한 하늘가
 파도 세찬 물결우에
 끼룩끼룩 울며 날아 에도는
 갈매기 한마리

물로 나래쳐가면
 차거운 비
 폭풍우를 피할
 무성한 숲
 아늑한 골짜기를 찾을수 있으련만

길길이 일어서는 파도에
 잠긴듯 사라졌다가는
 파도우에 또다시 솟구쳐오르며
 운명을 맡긴 바다를 안고
 억센 나래 퍼덕이는 갈매기

내 마음 사로잡네
 그 갈매기
 어려운 날에도
 조국과 운명을 같이할 나의 녀
 갈매기 네가 지닌듯싶구나!

무지개

돌에서 피는 꽃
 조선의 비날론꽃숨이 보고파
 휘우듬히 무지개 드리웠는가

한소나기 지나간 비날론도시
 하조장 유리지붕에 그 한끝을 드리운
 오, 무지개!
 선녀들이 타고 다닌다는 전설의 다리

눈여겨보면 사뿐사뿐 무지개 타고 내리는
 선녀들의 모습 보일듯
 내 흘린듯
 무지개만 쳐다보는데

신비한 조화여라
 어느결에 그 무지개 사라지고
 류달리 맑은 하조장 유리지붕너머

쪽빛으로 트이는 하늘가엔
 뭉게뭉게 피어나는
 하얀 꽃구름...

문득
 내게는 생각되여라
 하조장에 구름처럼 피어나는
 하얀 돌꽃숨이
 그대로 저 하늘에 떠실린것처럼

천년을 봐도 싫지 않을 돌꽃숨을
 하늘가에 영원히 비껴담고싶어
 나도 몰래
 무지개 타고 내렸던 선녀들
 그 고운 손으로
 하조장 유리지붕을 거울처럼 닦고간듯이...

눈보라 멎은 밤

최순영

…그날도 영옥은 회의장 뒤편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그가 기계공장 양수공으로 입직한지 반년만에 참가하게 되는 년말총화회의였다. 금년도 계획을 넘쳐수행한터여서 회의장에는 화기가 넘쳤다. 만일 회의도중에 영옥에게 뜻밖의 일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그는 생각에 잠긴채 남들처럼 박수를 치며 회의를 마쳤을것이다.

그는 요즘 자주 생각에 잠겼었다. 자기가 바라던 생활이었고 자기 스스로 선택한 새 생활이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직업을 바꾸었던 첫시기에 느끼던 그런 기쁨이 차차 사라지는것만 같았다. 왜서인가? 그는 저도 모르는 사이 자주 이런 물음을 자신에게 던지며 생각에 잠기곤했다. 알뜰하게 꾸려놓은 가정에도 때로 찬바람이 돌았고 편하기 짝이 없는 양수공이란 직업도 별로 편한줄을 모르겠다. 이런 감정은 곡식 밭에서 몰래 자라나는 잡초처럼 어느 사이엔가 자라서 이제 그의 생활에 적지 않은 그늘을 던져주었다. 회의에 참가하거나 길을 걸을 때도 풀수 없는 의문과 이름할수 없는 그 감정은 끈덕지게 그를 따라다녔다. 오늘도 그는 그 감정에서 헤어나올수가 없어 회의장에 멎하니 앉아있었다. 장내에 넘치는 화기로운 분위기에 어느 정도 감염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그는 우울하였다.

시상식이 한창 진행될 때였다.

《김수덕아주머니-》

《예, 나갑네다. -》

영옥의 곁에 앉았던 뚱뚱보 구내식당취사원이긴 대답소리를 이끌고 뚱기적거리며 주석단으로 나갔다.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사를 보장한다고 늘 칭찬이 자자한 아주머니였다. 상품을 아름답게 안고 들어오는 그는 본시 둥글넙적하고 환하던 얼굴이 더욱 환해진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 들어와 앉아서도 연해 움지락거리며 비닐버치인듯한 커다란 상품꾸러미를 만지작거렸다. 다음엔 창고장아바이가 시직맹표창장을 받고 들어왔다. 그는 틀지게 앉노라고 체소한 옷몸을 쪽 펴며 발은 기침을 했다. 주위에선 가벼운 웃음속에 박수소리가 더 요란해졌다.

《박영옥동무-》

순간 영옥은 박수치던 손을 툇 멈추었다. 분명 자기의 이름이었다. 그는 의문이 실린 눈길을 주석단쪽으로 보냈다.

《박영옥동무-》

다시 한번 찾는 소리가 났다. 앞에 앉았던 몇사람이 영옥을 돌아다보았다. 마치 어서 일어서라는듯, 영옥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자기가 시상자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는 생각해볼 사이도 없이 주위의 눈길이 확 영옥에게로 쏠렸다.

이때였다.

《구내차운전수 박영옥동무-》

주석단에서 다시 한번 찾는 소리가 났다.

《예-》

대답소리와 함께 중년녀인이 일어섰다. 운수직장의 박영옥이었다. 무너지는듯한 박수소리가 울렸다. 영옥은 풀썩 주저앉았다. 눈앞은 캄캄해지고 머리속은 뒬뒬거렸다. 한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순간에야 아직도 울리는 박수소리가 우뢰처럼 고막을 두드렸다.

영옥을 온몸을 툇 숙였다. 뒬수록 낮게 숙였다. 그 누구도 자기를 보아주지 않았으면싶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싶었다. 그러나 온몸을 낮게 숙이면 숙일수록 자기의 몸뚱이는 자꾸 커지며 술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것만 같았다. 오늘따라 입고온 화려한 붉은 세타를 벗어 버리고싶었다.

(같은 이름이 있는줄두 모르면서… 내가 정신이 썩 나갔지.)

그는 마음속으로 몸부림을 쳤다. 어서 회의가 끝났으면싶었다. 그러나 시상식은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영옥은 등골로 식은땀이 흘렀다. 회의장에 떠도는 후더운 열기는 이미 영옥이를 외면해 버린것 같았다. 누구도 영옥이를 다시 쳐다보지 않았고 시상식이 끝나도록 양수공 영옥의 이름이 다시 불리우지 않았다는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음이 가득 담긴 눈길로 모두가 가슴을 쪽 펴고 앉은 장소에서 유독 볼품없이 웅크리고있는 자기를 흘려보는것만 같았다.

(아이참, 내가 상을 타러 일어설 생각을 하다니-)

어망결에 한 행동이었건만 부끄러움은 얼굴을 태웠고 마음속에 생겨난 충격의 파문은 스러질줄 몰랐다.

영옥은 언제 회의가 끝났는지 자기가 언제 회

의장을 떠났는지 통 생각이 나지 않았다. 쌀쌀한 저녁바람이 뜨거워진 뺨을 때려서야 그는 자기 가 집으로 가는 길을 걷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내가 무슨 생각에 일어섰을가? 아이참 태일 어떻게 사람들을 보나?)

그는 생각할수록 부끄러웠다. 문득 반년간의 생활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조용한 양수장에 앉아 하루에 두서너번, 물을 많이 쓰는 날이라야

꽤번 물을 퍼올리며 자기 직업을 만족하게 생각 하던 일, 남편과 함께 즐거이 걷던 유보도...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언제였던가싶게 아득히 멀어진 생활이었다. 그러자 불현듯 마음이 허전해지며 부끄러움은 쓸쓸한 감정으로 변했다. 요사이 늘 그를 지배하던 감정으로...

《영옥선생, 교단을 떠나서 양수공이 되겠다는 걸 나쁘다고만 말할수는 없어. 어디서나 삶은 꽃 피울수 있는거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가가 문제지. 하지만 편안한 곳을 찾아떠나는 영옥선생은 그 어디에 가도 기쁨을 찾지 못하리라고 생각해...》

이것은 영옥이가 학교를 떠날 때 누구보다도 안타까와하던 리숙선생의 말이었다. 그때는 별로 새겨들지 않은 그 말이 이제 와서 또렷이 떠오르며 새로운 아픔으로 영옥의 가슴을 허비는것은 웬일일까?

(기쁨...)

그는 새삼스럽게 리숙선생의 말을 음미해본다.

(내가 바라던 생활은 무엇이었던가?)

반년전 산전산후휴가를 마친 영옥은 몸이 잘 추서지 않았다는 핑계로 교단을 떠나고말았다. 늘 높은 긴장성과 책임성을 요하는 교육사업이 영옥에게는 힘에 부쳤다. 남들이 즐거이 주고받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는 흥미가 없었고 다른 교원들이 지니는 교육자의 높은 긍지도 그는 이해되지 않았다. 교수, 수업준비, 개별지도, 가정방문... 너무도 일이 많은것만 같았다. 그런 영옥이니 아이들이 자라는것도 보이지 않았고 보람도 없는듯했다. 더구나 신혼의 달콤한 꿈이 소중하기만 한 영옥에게는 그 꿈을 방해하는듯싶은 이어의 모든것은 소중하지 않았다. 남편과 가정에 많은 시간을 바치고싶었다. 그래서 서슴없이 교단을 떠났고 리숙의 말을 코웃음치며 들었다. (왜 기쁨이 없어?)하고.

그러나 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직업을 바꾼 영옥은 처음 몹시 행복했다. 퇴근하면 그것으로 로동이 끝났다. 걱정할것도 사색할것도 없었다. 그래서 마음은 편하고 윤택하였다. 시간도 많았다. 남편을 위해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고 옷을 손질할 때 또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남편을 볼 때 그는 무한히 행복하였다. 그는 이 행복이 영

원할줄 알았다. 그러나 한달두달 세월이 흘러 서롭고 의의있어보이던 그 생활들이 평범한것으로 일상적인것으로 되어버리자 무엇인가 생활에는 모자라는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알아내지 못하였다. 생각은 깊어가건만...

오늘 회의는 그의 생각을 더 깊게 했다.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앉아있던 그자리에서 왜 자기만은 머리를 숙여야 했던가?

집은 가까와오건만 영옥의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는 애기를 추슬러엄으며 다시한번 호하고 한숨을 쉬었다. 찬바람에 눈가루가 휘말리어올라가며 영옥의 이마를 때렸다. 선뜩하였다. 정신이 드는것 같았다. 그는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애썼다.

(이 불안과 불만의 시작은 어디며 끝은 어딜까? 왜 이런 피로움이 시작되었을가?)

맥락이 닿지 않는 이런 번거로운 감정에 휩싸여버린 영옥은 발걸음마저 취경거려졌다.

《아니, 이게 누구야?》

영옥은 마주오는 녀자가 자기의 손을 꼭 잡는 바람에 깜짝 놀라 그자리에 섰다. 영옥은 덩돌한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보았다.

《아이, 나야 숙이야 원 참, 날 못알아보다니?》

숙이는 영옥이가 자기를 못알아보자 눈만 내놓고 폭 켜던 털수건을 훌쩍 벗어버렸다. 어글어글한 눈이 웃고있었다.

《아이, 리숙선생.》

영옥은 금시 제 시름을 잊고 숙이의 두손을 마주잡았다.

《이제 퇴근해? 아이 요것 자네.》

숙이는 목을 뽑고 영옥의 등에서 잠이 든 철이를 넘겨다보았다.

《아이 펴은 컷네.》

그는 애기의 토실토실한 뺨을 손가락으로 톡 짚었다. 애기는 자면서도 그것을 느끼는듯 뺨을 섯룩했다.

《호호호...》

《일석이두 꽤 컷겠구나.》

《응, 컷어 온 방안을 막 헤매지뭘, 못기여가는 데가 없어. 이젠 집에 와선 아무것두 못하겠어. 책을 펴놓기가 바쁘게 어느새 와서 잡아채거든.》
숙이는 자기 책을 잡아당기는 일석이가 대견한듯 즐겁게 웃었다.

《그래 어디 갔던 길이야?》

《금일이네 집에 갔댔어. 봉준이, 금일이같은 애들때문에 정말 야단났어. 수학성적이 좀체루 올라가지 않아.》

그 애들은 영옥이가 담임했을 때도 늘 개별지

도를 해야 되던 애들이었다.

《여전히 바쁘겠구나.》

《응, 머지않아 학기말시험인데 아이들의 성적은 올라가지 않지, 시간은 없지, 막 숙이 까맣게 타는것 같애. 그래두 이제 조금씩 이해하는것 같아. 요샌 하루가 한달이 됐으면 좋겠어 호호호...》

숙이의 얼굴엔 웃음이 활짝 폈다. 근심은 많다면서도 즐겁게 웃었다.

《그럼 또 만나. 난 바빠서 가겠어.》

숙이는 손을 흔들며 떠나갔다. 숙이의 밤빛 외투는 거세찬 생활의 격류속에 흘러들듯이 사람들의 물결에 섞여들었다. 영옥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자리에 망연히 서있었다.

숙이는 그의 대학동창생이었다. 함께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 배치받았었다. 영옥이가 교단을 떠나는데 한사코 반대하던 숙이는 영옥이가 맡았던 학급을 제가 맡고 저렇게 드바빠 뛰는 것이었다.

그것은 영옥이가 너무도 잘 아는 생활이었다. 자기도 숙이처럼 늘 드바빠 걱정속에 살았고 그것이 마음에 없어 버리고 온 생활이었다. 그러나 오늘 영옥은 숙이의 근심, 숙이의 초조감이 다른 각광속에 안겨오는 것이었다. 《분주하고 힘겨운 생활》로만 생각되던 어두운 색조가 아니라 그 어떤 밝고 부드러운 색조로 안겨오는것은 무엇 때문일까? 마음속에 질어가던 불안감때문일까? 아니면 오늘 회의에서 눈을 뜬 수치감때문일까? 알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어쩔선지 부러움 비슷한 마음으로 총총히 걸어가는 숙이의 모습에서 오래오래 눈길을 떼지 못했다.

집에서는 밝은 불빛이 새어나오고있었다. 그것은 무거웠던 영옥의 마음을 한결 녹갯혀주었다. 그의 발자국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나들문이 성급히 열리고 《이제 오우? 힘들겠소.》 하고 남편이 마주나오며 애기를 받을것이다.

《에구 풀아떨어졌군.》

남편이 철이를 자리에 눕히며 병글거리면 영옥은 그 목소리, 그 미소로 해서 만시름을 잊고 방그레 웃을것이다.

그런데 그가 대문안에 들어서자 방 안에서 격렬한 말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는 잠깐 서서 귀를 강구었다. 남편이 연구하는 고속도굴착기를 놓고 논쟁을 하는게 틀림없었다.

7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일하는 그의 남편은 벌써 몇해째나 성능이 높은 새형의 굴착기를 연구하느라고 낮에 밤을 이어가며 애쓰고있었다. 그는 집에 와서도 자주 도면과 마주앉아 밤을 새우

곤했고 동무들과 밤늦도록 토론을 하기도 했다.

영옥은 부엌에 들어가 가방을 놓고 아래방으로 들어갔다. 조심히 애기를 내리워 눕힌 다음 옷을 갈아입었다. 그래도 옷방에서는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고 토론에 열을 올렸다. 영옥은 옷방문을 빠르게 열어보았다. 두사람이 이쪽으로 등을 돌리고있었다. 앉아있는 사람은 그의 남편이였고 서있는 사람은 남편의 연구실 실장이었다. 그들은 책상 한가득 벌려놓은 도면위에 시선을 모둔채 열렬히 토론을 하고있었다. 영옥은 올라가 인사를 하려다가 방해가 될것 같아 소리없이 문을 닫고 아래목에 내려와앉았다. 한참이나 기다려도 그들의 얘기는 끝이 없었다.

(무슨 얘기들을 저렇게 한담?)

영옥은 오늘따라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하긴 나도 남편과 저렇게 열렬히 말하던 때가 있었지.)

그랬었다. 영옥은 자기의 기쁨과 피로움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남편은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었으며 조언도 주곤하였다. 며칠밤씩 서로 제일에 파묻혀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로 깊이 이해하는 그들은 말없는 가운데도 정이 깊어갔고 그런 밤은 또 그대로 행복했었다. 그러나 이제 영옥은 그와 별로 할 얘기가 없었다. 요사이느 마주앉아있어도 자주 화제가 동강이 나고 남편은 책상이나 동무들과 마주앉는 시간이 더 잦아졌다. 이럴 때마다 영옥은 안개속처럼 뿌옇하기는 하나 외로움 비슷한 감정을 느꼈고 둘사이가 차츰 멀어진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건 어느때부터였을까? 딱히는 알수 없었다.

영옥은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단을 떠났었다. 자신보다 남편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직업을 바꾼다고 자신을 위로했었다. 자기가 한가하면 남편을 더 많이 도울수 있으리라 생각되었고 그러면 그만큼 가정은 화목하고 생활은 기쁘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생활은 보란듯이 영옥의 기대를 저버리고 제나름으로 흐르고있었으니 남편을 위하여 바치는 시간은 더 많아졌건만 남편은 영옥에게서 점점 멀어만 지는것 같았다. 오늘날 해도 그렇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수 없는 피로움을 안고온 그였다. 남편에게는 더더구나 말할수없는 피로움이였다.

그러나 그는 남편의 다정한 말소리와 밝은 웃음에서 그 피로움을 잊으려 했었다. 그런데 남편은 그가 온것도 모르고 제일에 파묻혀있었다. 외로웠다. 몹시 외로웠다. 이것이 내가 바라던 생활이었던가? 그는 마치 자기가 맹렬히 흘러가던 때

목에서 떨어져 고요한 후미에 벗어버린 한개의 나무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그만 세워놓은 무릎 위에 얼굴을 묻고말았다. 《옹지! 그렇소! 그렇게 하면 되겠군 아, 참!》

갑자기 옷방에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막혔던 문제가 풀린 모양이었다. 그들은 무엇인가 중얼거리며 차와 콤팩스, 연필 부딪는 소리를 한참이나 냈다. 얼마후 결상 밀어놓는 소리가 나고 이어 손님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됐어! 이제 됐어!》

남편은 혼자 중얼거리며 옷방에서 잠시 서성거리더니 벌떡 사이문을 열었다.

《아, 우리 철이가 왔구만.》

그는 잠든 철이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땀이 송송 내돋는 그 애의 코등을 살짝 튕기었다. 철이는 잠결에도 해쭉 웃었다.

《하 고너석!》

남편은 포대기를 꼭꼭 여며주고는 영옥에게로 돌아앉았다.

《언제 왔소? 내가 그만 제일에 빠져 당신이 오는 소리도 못들었군.》

그는 우선우선한 얼굴로 말했다.

《조금전에 왔어요.》

영옥은 마지못해 대답하며 따끈한 아래목에 손바닥을 대었다. 마치 자신의 흐린 기분이 추워타기나 한것처럼.

《여기에 손을 넣으라구, 뽕뽕 얼었구만.》

남편은 영옥의 손을 끌어다 철이의 포단밑에 밀어넣어주었다.

《여보, 내가 연구하던 고속도굴착기가 오늘 끝을 봤소. 방금 마지막도면작업을 끝냈소.》

《그래요?》

영옥은 낮빛을 풀며 반갑게 대꾸했다. 그는 해를 두고 고심하던 남편의 일이 일단락 지었다는 것이 기뻐다. 그러나 그는 이 순간 남편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뻐할수 없는 자신이 야속하였다.

《도면이 다 되었으니 이제 기계를 만들어야지요?》

영옥은 자기의 흐린 기분을 털어버리려 애쓰며 물었다. 남편이 수년간 애써 얻은 기쁨을 흐리우고싶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벌써 남편은 그의 기분을 가늠하고있었다.

《오늘 밤차로 곧 떠나야겠소. 광산기계공장에... 그런데 직장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남편은 은근히 물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어조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것을 너무도 잘 말해주었다.

영옥은 서둘러 부엌으로 내려갔다. 남편의 기분을 흐리우고싶지도 않았거니와 그에게서 위로를 받기란 더 피로운 일이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친절한 남편은 조금이라도 그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주섬주섬 방안을 거둔다, 코노래를 부른다하며 부산을 피웠다. 그럴수록 영옥은 더 피로왔다.

(이젠 그에게서 위로를 받는 처지가 되다니?)

물론 안해는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은 안해를 위로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류의 위로가 아니었다. 동등한 사람사이에 오가는 고무와 위로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에게 하는 그런 위로였다. 그런 위로는 모욕으로 느껴질 때도 있는것이다. 영옥은 무의식적이기는 하나 남편의 행동에서 그런 모욕감을 느꼈고 그래서 가슴이 아팠다.

그날밤 남편은 광산기계공장으로 장기출장을 떠났다.

《아이, 래일 가면 안되겠어요? 이렇게 눈보라가 사나운데... 래일아침이면 잠푹해질거예요.》

영옥은 대문밖까지 따라나와 남편을 배웅하며 말했다.

《원 래일 떠나다니? 이까짓 눈보라가 뭐라고? 난 날개라도 있으면 좋겠소. 훨훨 날아가게, 하긴 당신이 이런 심정을 알수가...》

《예?!...》

《흐흠...》

남편은 헛기침을 했다.

《잘 있소. 철이를 잘 돌보우.》

남편은 떠나갔다. 그는 남편이 다하지 않은 마지막 말마디가 가슴을 아프게 찢었다. 그는 미여지듯한 가슴을 안고 성큼성큼 멀어져가는 남편의 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어쩐지 남편의 마음도 저렇게 점점 멀어져가는것 같았다.

휘-익! 눈바람이 불었다. 영옥은 그자리에 멍하니 서있었다.

눈보라는 오늘도 멎지 않았다. 점심때가 되어 잠깐 바람이 자며 주먹같은 눈송이가 쏟아지더니 밤이 되면서부터 다시 바람이 터졌다. 흰눈을 두툼히 들쓰고있던 가로수가 눈가루를 휘뿌리며 몸부림을 쳤고 전선줄이 뒹뒹 아츠럽게 울었다. 저녁을 일찍 끝낸 영옥은 뜨개질감을 들고 아래목에 앉아있었다. 철이는 이웃집처녀애가 안아가고 없었다. 방안은 훈훈하고 아늑하였다. 갖가지 가구들이 노란 장판바닥에 거꾸로 비치여 얼른거렸다. 어느때는 아무리 피롭다가도 이 방안에 들어와 앉기만 하면 마음이 포근히 가라앉곤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늑한 이 방안이 오히려 불안스

러웠다. 더구나 오늘은 철이도 남편도 없는 방 안에서 아우성치는 눈보라소리를 듣고있노라니 마음은 더더욱 안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어제밤 떠나며 하던 남편의 말이 온종일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았다. 영옥은 지금도 아픈 가슴을 목새끼려고 애를 썼으나 허사였다.

문득 지난날이 떠올랐다. 남편과 처음 사랑을 약속하던 교외의 버들방천... 그때 남편은 한생을 변함없이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살자며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었다. 그것이 불과 이태전 일이건만 아득히 먼 옛날처럼 느껴졌다. 교단을 떠나던 날도 생각났다. 스스로 떠나는 학교였으나 막상 떠나자니 섭섭했다. 눈물이 글썽해서 교문밖까지 따라나오던 금일이, 봉남이, 성준이...

영옥은 두서없는 생각을 이어가며 뜨개바늘을 놀리는듯마는듯 앉아있었다.

《에이구 바람질두...》

인기척이 들렸다. 영옥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 보았다. 길가에서 서성거리는것은 서너집 건너 사는 금일이 어머니였다.

《숙이선생이 못오시나보군.》

그의 혼자말이었다.

《숙이선생을 기다리세요?》

영옥은 밖으로 나오며 물었다.

《예, 금일이너석 공부가 떨어졌다구 매일밤 와서 가르쳤다우. 그래 오늘저녁에도 오시려나 해서 기다렸는데 아마 이 눈보라때문에 못오시나보우. 영옥선생두 우리 금일이때문에 고생하시더니 말는 선생님마다 고생이구려. 예구 쫓쫓.》

금일이 어머니는 흐린 낮빛으로 혀를 찼다. 문득 어제 만났던 숙이가 걱정하던 말이 떠올랐다. 자기가 말했을 때 좀더 각근히 가르쳤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단을 떠날 때는 아이들에 대한 그 모든 근심에서 풀리어나는듯한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었는데 애타하는 학부형과 교원을 보니 어쩐지 자기가 할일을 남에게 넘겨버린듯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제가 금일이한테 좀 가볼가요?》

영옥은 어쩐지 조심스러워지는 어조로 물었다.

《예구 그래주셨으면야 얼마나...》

금일이 어머니는 금시 반색을 하며 말했다. 영옥은 금일이 어머니 뒤를 따랐다.

《애 금일아, 선생님 오신다.》

금일이 어머니는 방문을 열며 말했다.

《응? 선생님?》

앉은뱅이책상우에 책을 펴놓고 무엇을 끄적이던 금일이는 반색을 하며 일어섰다. 까만 눈에 반가움의 불꽃이 확 피어올랐다. 그러나 영옥을 본 순간 그 불꽃은 의아한 빛으로 변하더니 영옥

의 등뒤를 살피고는 꺼져버렸다.

영옥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문고리도 채 놓지 못한 손이 바르르 떨리었다.

《아이구 이너석아, 인사도 안하느냐?》

금일이 어머니는 어쭙게 서있는 금일에게 눈총을 주고나서 《어서 앉으시우.》 하며 얼른 영옥의 손목을 당겼다. 당기는대로 앉기는 하였으나 영옥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다. 그의 가슴속에는 눈물이 글썽해서 자기를 바래워주던 금일이의 모습이 언제나 간직되어있었다. 그러나 그가 애들을 버리고 온 날부터 아이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애쓰는 새 선생님에게 모든 정을 다 바쳤고 자기의 뭍으로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는것을 뼈아프게 인정하게 되는 영옥이었다.

그렇다, 자기의 뭍은 아무것도 없었다.

언제나 자기를 둘러싸고있던 학생들의 사랑과 존경은 이미 숙이에게로 짱그리 가버렸고 그의 뭍으로는 무관심만이 남아있었다.

영옥은 울고싶었다. 돌아앉아 목을 놓아 울고싶었다. 아니면 눈보라 사나운 밖으로 달려나가 어데론가 끝없이 가고싶었다. 그러나 이럴수도 저릴수도 없는 영옥은 기계적으로 금일이앞에 놓였던 수학교과서를 끌어당겨 생각없이 몇장을 들치었다. 수긋하고 앉아있던 금일이가 의아한 눈길로 마주쳐다볼 때에야 편뜩 정신이 든 영옥은 자기앞에 거꾸로 놓였던 교과서를 그대로 들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이때였다. 토방에서 눈터는 소리가 들렸다.

《계십니까?》

숙이었다. 금일이는 텅기듯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 애의 눈에는 반가움이 불꽃처럼 확 피어올랐다.

《금일이, 오래 기다렸지?》

금일이는 자기 머리를 쓸어주는 숙이의 손길에서 쭈스러운듯 슬며시 빠져나왔으나 담임교원을 쳐다보는 그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다.

《영옥선생이 어떻게?》

숙이의 어글어글한 눈에는 반가움과 의아함이 함께 어렸다.

《...》

영옥은 대답을 찾지 못했다. 순간은 천년인듯 싶었다. 영옥은 그만 더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아니, 어델?...》

숙이는 의아하여 물었으나 영옥은 대답을 못하고 문밖으로 나갔다. 눈보라가 기다렸다는듯 뻗을 쳤다. 그는 허둥지둥 걸었다. 그러면서도 귀를 강구었다. 혹시 금일이 어머니라도 따라나오지 않나해서-그러나 등뒤에선 그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만이 그의 등을 떠밀듯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도 《너는 이제 필요없는 인간이다.》 하고 말하는것만 같았다.

(모든것을 잃었구나, 모든것을…)

이 한마디 말만이 마치 쿵당거리며 달려오는 기관차의 동음처럼 그의 고막을 세차게 두드리는 것이었다.

벗도 남편도 멀어졌고 제자도 멀어졌다. 생활은 그를 버린것이나 아닌지?

눈보라는 여전히 아우성을 쳤다. 싸락눈은 그의 얼굴을 바늘끝처럼 찔렀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 어째서?)

그의 마음도 알지없는 대답을 찾아 이리저리로 헤매었다.

거리에는 인적이 없었다. 때때로 지나가는 자동차의 불빛만이 눈보라가 몰려다니는 거리바닥을 잠깐씩 비쳤다가는 사라지곤했다. 그때마다 거뒀한 가로수의 그림자들이 불시에 다가왔다가는 몰려가곤했다.

《아, 날아간다!》

어느 아빠트창문이 벌럭 열리며 애된 어린애의 은방울목소리가 날아왔다. 영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종이비행기 하나가 눈보라를 타고 날아올랐다. 그것은 회오리치는 눈보라와 함께 캄캄한 하늘에서 맴돌더니 어느 불밝은 창문에 부딪치고는 거리우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멈춰서서 비행기를 바라보던 영옥의 눈길은 불밝은 창문들에 멎었다. 푸릿한 형광등의 은은한 불빛이 흘러나오는 창문들에서는 맑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영옥의 귀는 이제야 열린듯 집집에서 머리로 쏟아져나오는 갖가지 음향들이 다정한 시냇물의 속삭임처럼 유정하게 들려오는것이였다.

거리에는 인적이 끊어졌다. 영옥은 홀로 서있었다. 이것이 내가 바라던 생활이었던가? 멀어져간 생활, 더 견잡을수 없이 흘러져버린 마음의 안정...

영옥은 모든것을 잃어버린 자기를 통절히 깨달았다. 선망의 빛이 꺼졌던 금일이의 눈빛이 다시금 영옥의 눈앞에 떠올랐다. 조국의 미래도 영옥을 외면하였다.

이 고요한 생활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던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렇다. 불행의 씨앗은 교단을 뜨려고 결심한 그 순간에 벌써 자기의 인생행로에 떨어졌던것이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서는 어느 초소에 가서도 삶을 빛낼수 없으며 영원히 안정을 갖지 못하리라라는것을 어째서 그때는 몰랐던가?

사위는 고요했다. 눈보라가 멎은 밤은 바닥없이 깊어만 갔다.

×

오늘은 2 학기 개학날이다. 영옥은 다시 학교로 나간다. 오늘은 첫 출근을 하는 날이다. 남편도 오늘은 그와 함께 출근을 하겠다고 차비를 다하고 기다린다. 영옥은 옷차림이며 머리 모양을 다시 또다시 거울에 비춰보았고 오늘 교수에 필요한것을 잊은게 없는가 몇번이고 가방을 열어본다.

《다 됐소?》

기다리기에 지친 남편이 재촉하는 말이다.

《다 됐어요. 가만, 내 만년필?...》 그는 양복저고리의 여기저기를 더듬어본다.

《가방에 넣어두렴.》

《아이 정말!》

그래도 영옥은 다시 한번 가방을 열어보고야 방긋 웃는다.

남편은 철이를 향해 팔을 벌렸다. 짧은 다리로 자작거리며 방안을 돌아다니던 철이는 두팔을 벌리며 아버지에게로 달려왔다.

《자, 오늘은 아버지가 안고 간다.》

남편은 좋아라고 두팔을 가동거리는 철이를 머리우에 높이 추켜들었다가 넓은 품안에 담썩 안았다. 고속도굴착기제작을 의뢰하고 엿저녁에야 돌아온 남편이였다.

영옥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 배치받아 갈 때보다 더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같았다. 그는 먼것도 같고 가까운것 같기도 한 학교길을 말없이 걸었다. 남편도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두벅두벅 들려오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에서 자기를 미더웁게 떠밀어주는 억센 힘과 이 길로 한생을 변함없이 똑바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그의 말없는 부락이 들리는듯했다.

지기 학교정문이 바라보인다. 영옥의 심장은 갑자기 푹 멎어버리는것 같았다. 기쁨과 불안, 위구와 갈망이 뒤섞인 착잡한 심정이 그의 가슴을 꽉 막았다. 영옥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가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금일이였다.

《선생님,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금일이는 영옥이의 가방에 손을 내밀고 그를 쳐다보며 방긋 웃었다. 그 애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넘쳐흘렀다.

《고마와요.》

영옥은 금일의 손을 잡으며 방긋 웃었다. 영옥은 걸어갔다. 금일이의 손을 다정히 잡고 남편도 그의 품에 안긴 철이도 갈림길에서 영옥을 향해 웃으며 손을 저었다.

땅의 노래

량덕모

1

땅이란 무엇이기에
그 누가 언뜻 불러도
내 이름처럼
이 가슴에 울려오는가

눈을 뜨면
흙내음새 말고
거기서 오른 먼지 털고
하루밤 떨어져있어도
그리움이 앞서
새벽별 이고
벌로 가게 하는 땅

지금은 어디를 보아도
내것인 땅아
내 한평생
너와 함께 울고
웃어본 사람

내 첫울음 터뜨린곳은
어머니 샅김매던 조밭이랑
놀이감대신 쥐고 자란것도 흙이였고
그 손이 여물기전에 잡은것도
흙을 매가꾸는 호미와 가대기

했건만
밭고랑베고 숨진
아버지 묻을 땅 한치 없던 세월
아, 세상천지가 넓다한들
내 땅에 서라도 보았으면
가슴터지는 소원이 못으로 박혔다.

내 피눈물 방울방울 떨어져도
한마디 말없이 무심하던 땅
눈섭에 소금이 돋치도록 흘린 땅
가물의 열매로 무르익어도
터슬한 내 입술에 닿은것은
지주집개도 먹지 않던 강보리밥덩이

일년내내 걸구어주고
살처럼 아까와
주먹만한 돌멩이도
뿌리뽑아 팽개치며

그토록 사랑했건만
조국이 없는 하늘아래선
땅아 너에게 얹매여
나는 살아도 죽은 목숨,
빛문서에만 이름있던 노예였다.

2

땅아, 내 처음
기뻐서 물어보았다!
장군님 주신 땅을 분여받던 날
마을에서 배꼽이라 할 땅에
내 이름 싱싱한 말뚝이 박힐 때
그제야 가슴펴고 바라보았다
느물느물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정다움을
눈이 시게 내리는 봄빛의 따사로움을

움튼 새싹이 자라듯
새조선 푸른 하늘 향해
나는 일어섰다
제땅에서 벼가을하며
거머쥔 낫가락같은 글자를
옷음속에 읽을줄 알았고
달구지채 휘도록
한바리 실어보낸 애국미
그것은 나라에 처음 바친
나의 순결한 땀

흙내절은 손을 들어
인민의 대의원을 선거하던 날이여
당증을 가슴에 품고
달빛어린 들길 걸고 걸으며
하늘끝에 가도 이 땅을 지고가리라
굳은 맹세 불태우던 밤이여

하여 두벌김 맨 논판에
원썬놈의 한톤짜리 폭탄이 떨어지던 날
분연히 총잡고 내달은 전선길 천리
한치한치 조국땅우에
사나이 더운피 뿌리며
목숨으로 지킬줄 알았으니

땅아, 너로 하여 나는
나라의 주인
계급의 전위로 자랐다!

떨어져 살수 없는
너와 나의 운명
우리 당의 붉은 기폭에
억센 낫으로 새겨져
시대의 령마루에서 나뭇기였다!

3

땅아, 너와 함께
나는 세상 큰 복을 받았다
그리고 뵈고싶은 우리 수령님을
들길에서 발머리에서
얼마나 자주 만나뵈었던가

눈덮인 이랑우에
손수 금을 그어가시며
새 농사법 가르쳐주시고
내 순박하게 올린 말
나라의 큰 회의 연단에서
다시금 외우시며
힘겨운 농사일 하나 있을세라
기계를 주시고
금비료 은비료 보내주신 수령님

삼복철 한낮에
정이월 깊은 밤에
다정하신 그분의 음성
천리 먼곳에서도 이 별에 울려와
이 넓은 땅이 그대로
수령님께서는 집무실 프락이런듯

아, 끝없이 기울여주시는 사랑속에
땅아 너도 허리펴고
내 마음도 그렇게 넓어졌다
터밭의 곡식이 더 귀하던
내 집 울타리를 벗어나
우리 분조 우리 농장 포전을 넘어
오늘은 온 나라 별을 안고사는
통이 큰 농사군이 되었다.

종구나! 땅아
아들딸 머느리 프락포르 물고
외귀호미로 콩이나 잘 박던 마누라도
모기계 몰아가는
이 별은 하나의 《쌀공장》

그래도 주신 사랑 적으신듯
때없이 들길에 나서시는 수령님
나는 웨치고싶구나!

-사람들이여
우리 수령님결에
더 가까이 있고싶거든
이 땅과 운명을 같이하라!

4

땅아, 너와 나는
영원한 행복속에 살고있다
실안개 감도는 두령길에 나서면
새벽이슬 헤치시며 마주 오시는분
토치개혁의 발머리에서 만나뵈온
청년장군님의 모습이 아니신가
높뛰는 심장으로 우러르면
그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벼꽃피는 논머리에 나서면
소문없이 찾아오시여 기뻐하시는분
협동화의 포전길에서 만나뵈온
젊으신 수령님의 모습이 아니신가
감격에 젖어 우러르면
그이는 영명하신 지도자동지!
어쩌면 자애로우신 그 모습 꼭같으실가

우리 수령님 곁으시던
그 발머리 그 이랑우에
그날 그맘때처럼
친애하는 그이 계시여
땅아 너와 나는
해를 따라 젊어지나니

너도 청춘!
나도 청춘!
해와 별빛 눈부신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황홀한것인가

해마다 네 품엔
커가는 새 풍년기쁨 움터자라고
일할수록 내 가슴엔
넘치는 새힘이 솟아라

오, 내 죽어서
한줌 흙이 되어서라도
정녕 떨어질수 없는 땅아
너를 가꾸가는 농민의 행복-
공산주의아침노을 피워올리며
세월과 더불어 무궁할 너처럼
너처럼 끝없어라!

들에 대한 생각

리명호

생활에서는 때로 레사롭게 스쳐보낸 일들이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가슴두드릴 때가 있다.

얼마전 어느 한 시인을 만나러 농장벌을 찾았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봄벌이 한창 무르녹던 5월 어느날이었다. 시인이 살고 있는 선경리를 찾아 열차에 몸을 실어나는 습관대로 최근에 나온 잡지를 펼쳐들었다.

《여기서도 봄이 한창이군.》 누군가의 절절한 목소리가 나의 눈길을 차창밖으로 이끌었다.

겨우내 흐무러지고 살진 흙을 뒤엎고있는 빨강고 파란색갈의 트랙토르들이 눈앞으로 확 다가와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뒤이어 해별을 받아 유리알처럼 반들거리는 네모반듯한 논배미들이 끝간데없이 펼쳐졌다. 배미마다에서 물매미같은 모내는 기계는 이 푸른 주단을 짜기에 여념이 없었다.

또 한굽이 돌아서니 색안경을 쓴 처녀들이 모춤친 손을 흔들며 열차를 향해 여문 웃음을 한껏 뿌려던진다. 봄은 처녀들의 마음에 먼저 찾아온다고 했지만 아마도 그런것만 같지는 않다. 트랙토르를 몰아가는 총각들의 얼굴에도 함박같은 웃음이 활짝 피어났으니말이다.

열차는 쉽없이 달리며 새라새로운 봄풍경을 펼쳐놓는다. 들마다 흘러넘치는 봄의 훈향, 흥겨운 기계소리, 노래소리, 웃음소리...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저 들판의 부드러운 흙속에 발목을 푹 묻고 봄의 정취에 마음껏 취해보고싶다.

갑자기 천길나락에 떨어진듯 어둠이 차창을 가리웠다. 차굴에 들어선것이다.

덜커덩 덜커덩... 칠혹같은 어둠속을 헤치며 쉽없이 달리는 열차의 단조로운 동음소리만이 자장가마냥 들려온다. 가락맞게 울려오는 그 소리는 아득한 기억속에 잠자고있던 가슴아픈 추억의 들판으로 나를 이끌어갔다.

우리 일가가 살길을 찾아 정든 고향땅을 떠난

것은 해방되기 세해전이었다.

그때 내 나이는 여섯살, 아버지의 지계에 얹혀 연연 수백리- 어느날저녁 우리 일가가 가당은곳은 청천강변의 한 나루터였다. 살을 저머내는듯한 초겨울의 칼바람은 왜 그리도 극성스럽던지. 회파람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추위에 한껏 웅송그린 내 몸뚱이에 덧놓인것은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의 누데기저고리뿐이었다.

사공을 찾아 떠난 아버지는 밤이 이슥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자식에게 단별옷마저 벗어준 어머니는 떨리는 입술로 칭얼대는 나를 달래려고 무진 애를 썼다.

기다리던 아버지는 새벽녘에야 돌아왔다.

그후 그 차디찬 겨울밤이 빌미가 되어 어머니는 한많은 세상을 떠났다.

그처럼 무섭던 아버지가 전에없이 인정많은 아버지로 변한것은 그 겨울밤부터였다.

이듬해 봄, 아버지는 손이 발이 되도록 밭어 소작밭을 얻었다. 손으로 뿌지다싶이 한 그 밭고랑에 아버지는 씨를 묻으며 이제 가을이면 쌀밥을 먹게 된다고 했다.

피약벌이 살을 지지는 삼복더위에도 올씨년스러운 마가울의 찬비를 맞으면서도 아버지는 하루도 일손을 놓지 않았다. 했지만 1년이 지나고 또 3년세월이 흘렀어도 쌀밥은커녕 해마다 피땀이 스민 그들에서 가을에 걷어들인것은 눈물과 한숨뿐이었다.

이것이 어찌 우리 일가만이 당한 불행이겠는가. 돌이켜보면 너무도 암담했던 세월이었다...

《이제 열차가 멎을곳은 선경역입니다. 내리실 손님들은 미리 준비하여주십시오.》 포랑포랑하게 울리는 안내원의 목소리에 나는 깊은 상념속에서 깨어났다.

시인이 사는 마을은 역에서도 10 리남짓이 올라가야 했다. 유정한 산촌정서에 취해 마을어구

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한낮이었다.

마침 시인은 마을앞에 있는 차그마한 등성이우에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있었는데 그는 내가 다가가도록 인기적조차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그동안 잘 있었나.》 내 인사말에 그는 와플 놀라며 일어섰다. 《아니, 자네가...》

피차의 수인사가 끝나자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래 시는 어떻게 됐나?》

《...》

그는 무척 딱한 표정을 지었다.

몇달전에 나는 그에게 우리 농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노래한 시를 써줄것을 부탁했다. 그때 그는 선선히 응낙했었다. 그런데 아직 못쓰다니!...

《여하튼 좀 앉게나.》 시인은 벌써 파란옷을 펼쳐입은 봄잔디를 가리키며 제 먼저 털석 주저앉더니 다시 등성이 아래로 눈길을 던지는것이였다.

나는 저도 모르게 그 눈길에 끌려들어갔다.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엔 햇슴같은 흰구름이 두둥실 떴다.

그 하늘을 배경으로 살구꽃, 복숭아꽃 한껏 어우러진 파원속에 금시 치달아오를듯 합각지붕들이 다문다문 줄지어 서있었다.

집앞으로 펼쳐진 사래 긴 밭에서는 사철꽃이 다 모여든듯 아롱다롱한 무늬옷을 펼쳐입은 처녀들이 씨를 묻고있었다.

하늘거리는 갖가지 색깔의 머리수건들이 솔솔 바람에 기폭처럼 나뭇기며 나비들을 희롱한다. 금구슬 은구슬 구울듯 어데선가 들려오는 처녀들의 청아한 노래소리에 우짚던 종다리 제풀에 무색하여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뒤이어 울려퍼지는 랑랑한 웃음소리...

눈에 떠는것마다 아름다움이요 들리느니 행복에 겨운 노래소리, 기쁨에 넘친 웃음뿐이다.

해마다 가을이면 찾아오는 알곡풍년과 함께 사철 이 땅에서 떠날줄 모르는 노래풍년, 웃음풍년, 이것이야말로 유정한 산촌과 더불어 들에 피어난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이 아닌가!

나의 생각을 들여다보기라도 한듯 시인도 말하는것이였다. 《그래 감상이 어떤가? 한쪽의 <산수

도>를 보는것 같지 않나.》

《산수도?》

그렇다. 시인다운 말이였다. 그것은 정녕 자연의 풍치만이 아닌 한쪽의 《산수도》였다.

《산수도》로 피어난 들,

그들을 대하고나니 더더욱 생각이 깊어진다.

아득한 태고로부터 인간은 들과 함께 살아왔다. 잡초만 무성하던 거치른 저 들판은 인간의 성실과 근면으로 부드러워지고 살찌왔다.

근면한 이 나라 농민들은 이 들에서 영원히 행복을 구가하며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원했던가.

하지만 피땀으로 가꾼 향긋한 열매를 포식한것은 언제나 압제자들이였다.

들의 수난의 력사-그것은 곧 이 땅의 농민들의 수난의 력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수백년동안 봉건적인 착취와 억압을 받았고 근 반세기동안이나 일제의 강도적인 략탈을 받아왔습니다.》

수백수천년, 조상대대로 내려오며 피땀으로 찌든 저 들판!

저 들은 얼마나 많은 가슴아픈 사연들을 간직하고있을것인가!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내 손에 호미를 쥐여다오

살진 젖가슴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째도 모르고 끝도 없이 내달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꽃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음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신령이
접혔나보다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었
네

이렇게 망국노의 설음을 통탄하던 옛시인의 녀
도 저 들의 어느 구석엔가에 고이 잠들고있는듯
싶다.

지심깊은 대지의 그 품에는 골수에 사무친 사
나이의 원한과 울분도 간직되어있을것이다. 어제
날 가난에 울고 주림에 통곡하던 녀인들의 애끓
는 피눈물도 스며여있다.

저기 바라보이는 합각지붕아래 어딘가에도 가
난의 흔적은 남아있을것이다.

근심걱정 모르고 낚시대를 드리운 버들방천가
의 저 늙은이의 주름진 얼굴에서도 지난날의 고
통의 흔적은 찾을수 있으리라.

그러고보면 이 땅에 행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가 울리기 시작한것은 오래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번갈아가며 가대기를
꼈던 이 땅에 오늘은 무쇠철마가 내달린다. 기갈
에 시달려 갈라터진 대지, 먼지만을 피워올리던
저 들에 오늘은 생명수 철철 넘쳐흐른다. 가없이
펼쳐진 기름진 논판에서는 모내는 기계들이 사람
들의 손을 대신하여 푸른 주단을 하고있다.

어찌 그뿐이라.

해방전 이 땅에 씨와 거름이 아니라 피눈물을
물었던 그 농민들, 그 자손들이 오늘은 아담한
문화주택에 텔레비존과 재봉기를 척 차려놓고 근
심걱정 모르고 살고있다.

정녕 자연의 햇빛으로도 유구한 세월의 흐름으
로는 천년을 기다리고 만년을 가꾸어도 이루지
못할 이 땅 농민들의 념원이 저 들에 활짝 펼쳐
졌으니 웃음인들 어찌 피지 않으며 노래인들 어
찌 흘러나오지 않으랴!

땅도 어제날 시인이 밟았던 그 땅이요 사람도
그 사람들의 자손이건만 그 무슨 힘이 수백만년
의 인류력사의 한순간에 이렇듯 천지개벽을 이루
어놓았는가.

사람들은 그 힘을 낳은 비범한 예지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있다.

하여 언제나 감사로 부푸는 가슴에 열화같은
충성심을 간직하고 오늘도 저 들에서 만풍년의
기쁨을 가꿔가는것이 아닌가.

상념속에 묻혀있노라니 탄식조의 시인의 말소
리가 귀전에 파고든다.

《내 시재를 가지고 저 <산수도>에 깃든 가슴뜨
거운 사연들을 다 그려낸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
한 일일것세.》

나는 새삼스레 그를 다시 쳐다보았다.

쪼프린 두눈, 주름잡힌 이마, 두손으로 고인 턱,
깊은 사색과 창작적인 고충으로 짓눌리운듯한
표정이다. 나는 이곳에 나와 앓은 시인의 심정이
이제야 리해되는듯싶었다. 아마도 이 별의 주인
들에 대한 시를 쓰려고 모대기던 끝에 여기에 나
왔으리라, 그로 말하면 시단에서도 손꼽히는 시
인이다.

그런 시인에게조차 이런 고충이 있었던가. 문
득 언젠가 만났던 한 화가가 하던 말이 떠오른
다.

《행복에 넘친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굴마다
에 내비치는 기쁨과 감격을 완전무결하게 표현하
기에는 내 기량이 부족함을 통절히 느끼게 됩니
다.》

그렇다. 이것은 내가 만난 시인이나 화가만이
아닌 문필가, 예술가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겪는
고충일것이다.

저 들에 펼쳐진 로동당시대의 《산수도》! 그것
은 이렇듯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크고
벽찬것이다.

나는 어둠이 발범발범 기여들무렵에 시인의 표
현에 의하면 《설익은 원고》를 가지고 그곳을 떠
났다. 시인은 점도록 서서 떠나가는 나를 내려주
었다. 그의 뒤로 행복의 웃음꽃이 떨기떨기 피여
난 문화주택의 창문들이 하나둘 눈뜨기 시작했다.
마을쪽에서 포근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어찌면
이 별 주인들의 호흡의 열기도 스며여있을 그 봄
바람은 귀전에서 끝없이 맴돌며 이렇게 속삭이는
듯싶었다.

머지않아 저 들에서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들이
활보할 그날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경탄
을 자아내는 《산수도》가 펼쳐질것인가고.

나의 졸업논문

한용걸

별이 나를 안았는가
내가 별을 안았는가
흥치며 밀려오는 끝없는 벼바다
그날의 사연안고
이리도 설레느냐

진정할수 없구나
미끄러운 이 두렁길 밟으시며
초봄에 오셨던 어버이수령님
복더위 여름날 또 오시여
이 땅의 풍년을 불러주시고

내 손목 꼭 잡으시며
졸업론문을 한번 잘 써보라고
다정히 어깨를 두드리실 때
어이하어 내 그날 대답을 못했던가

어버이수령님 오실 날 기다려
제목을 고르듯 종자를 키우고
내용을 써가듯 논밭을 가꾸며
그날부터 지새던 밤
온 작업반을 이끌어
별에서 맞은 새벽

아, 몇몇밤이더나
내 그 나날에 알았노라
대학의 교실을
이 넓은 벌에로 펼쳐주신 그 사랑
나의 논문제목 이 별에서 찾게 해주신
크나큰 믿음, 뜨거운 은정을

별아, 그날부터
너는 나와 끊을수 없는 인연을 맺은 사이
내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더냐
내 흘린 땀 너의 이랑을 적서

만풍의 이삭으로 설레여주기를

그날부터 아, 그날부터
나는 담고싶었노라
여름해 긴긴날
푸르른 벼아지 설레임소리를
새 품종에서 벼꽃이 피었다고

웃으며 열싸안을 그날을
정녕 담고싶었노라
드넓은 이 벌을 내 논문의 장으로 펼치며
우리 소조원들을 아끼시는 그 사랑
주체농법의 결실로 꽃피우며
대지에 차고넘친 기쁨의 환희를

주시는 사랑 아지를 이루고
주시는 믿음 열매로 주렁져
온 강산이 밝아지는데
내 이 벌을 통채로 안고 가고만 싶구나
어버이수령님 계신곳으로-

오, 하늘아
별아, 알아다오
풍년벌을 안고 가는 나의 심정
울먹이며 어제날 못드린 대답도
내 이제는 시원히 울리고싶구나
사랑의 졸업논문
대풍든 벌을 안고 소조원이 왔다고

그리고 또 울리고싶구나
곳은날 마른날 우리에게 말기시키고
이제 더는 이슬찬길 헤치지 마시라고
좋은날 이 기쁜날
아, 간절한 소원을
감사의 큰 절을!

보통날에

최성진

그날도 생활은 보통날과 다름없이 흘러갔다. 나는 사업상 용무로 교외의 한 농장에 나갔다가 비물에 젖은 몸으로 지쳐서 돌아왔다. 그날은 장시간 비가 내렸는데 나는 질퍽한 산협길을 퍼그나 멀리 걸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자 사뭇 즐거운 것이었다. 안해가 내준 새옷을 갈아입은 산뜻한 기분때문일까? 아니면 농촌길에서 좋은 글감을 찾아진 만족감때문? 그런 것 같지도 않았다.

밖에서는 락수물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쭈렁... 쭈렁...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폭신한 침대 위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녀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나는 밖으로 나가보았다. 나들이 갔던 이웃집 녀인이 녀인들속에서 수선을 떨고 있었다.

《...얼마나 골골하겠나. 키가 흰칠하구 눈이 서글서글한게... 호호... 글썽 권투선수래누나...》

일본에서 살다가 귀국한 그는 목소리가 남성처럼 호방하다. 그러자 인민반장아주머니의 말소리가 들렸다.

《이번 나들이길에 선예(그 녀인의 둘째딸이다)의 신랑감이라도 골라오신게지요? 얼굴이 환하신 걸 보니.》

《사위감이라니 원. 하긴 그런 사위감이라면 누가 금딸인들 아끼겠나. 참, 훌륭한 젊은이라니까.》

역기다림칸에서 어느 할머니의 손녀가 배앓이를 만나 손님들이 의사를 부르며 법석이는 것을 본 한 청년이 어디론가 달려갔는데 알고보니 의사를 데리러 먼 병원에까지 갔다왔더라는 것이었다.

《기차가 떠날림박에야 그 청년이 땀을 철철 흘리며 달려왔단네. 의사와 함께.. 요새 젊은이들이 달라.》

이름 모를 그 청년의 행동도 훌륭한 것이지만 남의 일을 두고 자랑스레 이야기하는 그 녀인의 모습도 아름다웠다. 나는 갑자기 생각이 깊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개인주의와 리기주의 사상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투쟁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동지를 사랑하며 인민을 사랑하는 정신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행복이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며 열렬히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나는 행복한 우리 청년들의 도덕을 두고 생각한다.

도덕이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도덕이란 남을 위해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이란 화목의 기초이며 도덕을 통하여 사람들의 수양과 문명의 정도를 재여보게 되는 것이다.

식당이나 영화관에서 서로서로 양보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역대합실들에서 안내원들의 친절찬 봉사의 웃음꽃을 볼 때 그리고 직장과 인민반들에서 다정한 이웃들과 정다운 인사를 주고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깨끗해지는가!

나는 비로소 어찌하여 비를 맞고도 노상 마음이 즐거웠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농장길에서 만났던 친근한 사람들때문이었다.

낮에 나는 농촌마을을 벗어난 어느 령길어구에서 비를 만나 독립수아래에 피해있었다. 이때 마을쪽에서 빨간 사출장화를 신고 우산을 쓴 한 처녀가 나타나더니 나에게로 다가왔다.

《고개너머 가시나요?》 처녀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예, 왜 그러오? 처녀동문...?》

《가시자요.》 우산을 같이 쓰고 가자는 것이다.

고마운 처녀였다. 나는 비를 맞을 일이 난감했던지라 처녀의 우산밑으로 섰뜻 뛰어들었다.

이 마을에 사는가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다.

《령너머에 중한 일이 있는거구만, 이런 비에 떠난 걸 보니?》

그 말에는 생글생글 웃음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나란히 걸어갔다 《령너머에 중한 일이 있는거구만, 이런 비에 떠난 걸 보니?》 한 우산을 쓰고가자니 두사람이 모두 몸의 한쪽 부분엔 비를 맞아야 했다. 나는 조금 미안했다. 비발은 제법 사나워졌다.

령너머 다충주택마을에서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버스에 올랐다. 차창밖으로 그 고마운 처녀를 찾았다. 그런데 처녀는 오던길로 총총히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아마도 령길의 도중에 그 처녀가 가야 할 방향의 갈림길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애당초 비를 맞는 이 길손을 위해 우산을 찾아들고 떠났는지 어이 알랴!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있

는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하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사람들모두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살게 하느나라, 나를 낳은 어머니조국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다. 이 은혜로운 제도아래 우리 청년들의 정신도덕적풍모도 더욱 아름답게 꽃피고 있다.

나는 창밖을 내려다보고있다. 길거리로는 단정한 차림의 청년들이 지나가고있다. 서로서로 주고받는 신뢰의 미소, 힘찬 걸음걸이...저들속에는

내가 만났던 처녀도 그리고 려행길에 나선 한 할머니의 귀여운 손녀를 위해 역전길을 달려갔다 왔다는 그 권투선수청년도 있지 않을까? 나는 저들을 무한히 사랑한다. 사랑하는것이여서 마음도 깨끗해진다. 사랑하면 사랑을 주는 사람도 그것을 받는 사람도 마음이 정화되는 법이다. 그래서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가!

래일도 생활은 보통날처럼 흘러갈것이다. 그리고 래일도 마음속엔 즐거움이 깃들것이다.

광부 그 이름으로

최정용

아름드리나무에만
새겨지는게 아니구나
세월의 년륜은
종이우에 붓으로만
남기는게 아니구나
생의 기록은

살아온 한생처럼
깊어진 굴길
로광부는 말한다
가슴으로 밀어간 그 한치한치를
못잊을 추억으로 더듬으며

마디 굵은 손으로
검푸른 암벽 쓸어만지며
바로 여기란다
해방된 그해 가을
나라의 주인된 본분을 다하리라
광부의 첫자욱 떼던곳이

한굽이 돌아서며
그는 가리켰다
전화의 그 나날
중기처럼 착암기 틀어잡고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던
준엄한 격전터가 여기라고

차마 걸음 못뻐며
그는 말한다
막장 한끝까지 찾아주신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바로 여기에서
자신의 두손도 잡아주셨다고
그날을 못잊어 감격에 목메이며...

말한다 광부는
터지는 석수 몸으로 막던 일
새 기록 세워 축하받던 일
가지가지 사연도 깊은 그 한생을
굴길을 걸으며 앞벽을 가리키며

쇠돌맥따라
땅속깊이 더 깊이
그가 내려설수록
빛나는 명마루로 높이 더 높이
조국은 올라섰나니
그때문에 그때문에
보람도 큰 그 한생

광부 그 이름으로
그는 한 시대를 살아왔다.
말 못하는 돌에
정없는 바위에
말을 주고 정을 남기며

남모르는 수고도 많은
나라의 만아들
남다른 사랑 기울여
어머니조국이 위해주는 그

착암기 정날에 이는 불꽃으로
역년 드놀지 않을 암벽에
값높은 삶의 년륜을 새긴 그는
아, 언제나 잊을수 없는 사람이다
어디서나 축복받을 사람이다
머나먼 미래에도
광부, 고귀한 그 이름으로 불리우며

한달도 마지막날에 외 1 편

안성수

하루일 마치고
강구에 나서니
웬일인가 마중나온 안해여

노을길은 오솔길
무리지어 피어난 들꽃들
안으며 꺾으며
여느때없이 천진해진 안해

무슨 사연 있었기에
달려왔었나
이날도 마지막 이날에

총잡은 초소에서 맺은 사랑

건설의 불꽃속에 꽃피우며
결의모임의 우등불앞에도
나란히 섰던 안해

노을속에 한결 아름다와라
가슴에 품는 그 진정을 안다만
난데없이 찾아온 사연 물었더니
꽃한송이 입에 물고
안해가 하는 말

《당신이
첫자리를 내놓을가봐
난 막 근심했어요
정말...》

청 춘

방금 조립을 끝낸 철탑아래서
문득 만났네 옛 친구를
새 기술창안의 명수
그가 바로 자네였던말인가

되돌아오지 않는 10년세월
머리는 회여가니
여전하구만
젊은 날의 그 열정적인 눈만은

런런히 뻗어간 산밭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엔 어려있구나
수없이 세운 쇠기둥과 첩보
조국앞에 새겨 온 위훈의 나날들이
숫구치는 창조의 공지가
함뼉 어린 눈동자

그속엔 어려있구나
나이와 함께 늙을수 없는
순결한 진정이

고운 꿈 꾸는 눈이여라
래일에 대한 확신으로
지혜를
열정을
잃지 않고있는 눈

고개 쳐들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 웃는
그의 눈길을 마주하니
진정 부럽구나 친구여

자네, 젊어지누만
꿈이 많으니...

광주는 솟아있다

김영근

눈물로 씻는다면
백년을 울어도 다 씻지 못할
모진 슬픔과 원한을 품고있다
깃잡힌 광주는

화염방사기에 타다 남은
금남로의 은행나무로
10 대의 딸을 잃은
홀어머니의 아픔으로
무등산기슭에 남편을 묻은
젊은 안해의 눈물 타는 울분으로...

아니다, 광주여 너는 솟아있다
《제엄군》의 무한케도에도 꺼지지 않은
그 열화의 빛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주며

너는 솟아있다
온 남녘땅, 가슴과 가슴들에
자유와 민주의 넋을 불붙여주며
광주여, 너는
영원한 화불로 타오르고있다!

독자편지

《생각깊은 산마루》에 마음을 엮고

오늘은 벌써 세번째...
어제도 그제도 하루에도 몇번씩 읽고 또 읽어서
이제는 거의 암송하다싶이한 그대도 자꾸만
읽고싶은 시가 바로 《조선문학》 1986년 7호에
실린 동기춘의 시초 《생각깊은 산마루》입니다.
정말 읽을수록, 새길수록 더더욱 깊은 사색을
불러주는 훌륭한 시입니다.

시초에 묶어진 어느 한 제목은 물론이고 시의
어느 한 련, 어느 한 행에 보렐것도 버릴것도 없
는 주옥같은 시어들로 엮여졌습니다.

시어뿐아니라 시들이 담고있는 철학적내용이
어찌면 그리도 웅심깊고 시에 담겨진 예술성이
어찌면 그리도 깨끗하고 진실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조선문학》 7호가 나오자마자 이 잡지
에 좋은 시초가 실렸다는 소문이 빠르게도 퍼졌
습니다. 그대 여느때는 이 잡지에 관심이 적던
사람들까지도 서로 먼저 보겠다고 양보를 하지
않아 차례를 기다리기가 여간만 안타깝지 않았습
니다. 시초를 읽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합
니다. 정말 좋은 시라고.

시초의 모든 시들이 다 그러하지만 《인간의 가
치는 조국에 바친 자기 심장의 값》이라고 하면서
《렬사들앞에서 후회없을 인생을 자각하자》고 호
소한 시 《인간의 가치》와 인생과 조국이라는 엄
숙한 물음앞에 사람들을 불러세우는 시 《인생과
조국》이 제일 인상깊었습니다.

제가 혁명렬사릉에 벌써 몇번씩이나 오르면서
도 그 무엇인가 가슴 그득히 차오르는것은 있
나 적중한 말을 못 찾아 웨치지 못했던 그 심장

의 목소리가 이 시에 그대로 담겨져있습니다.

《조국을 책임진 맹세로 목숨같은 꽃뭉음을 놓
으시라》, 이 얼마나 철학적깊이가 담겨진 말입니
까.

혁명의 새세대인 우리가 혁명의 렬사들이 지켜
보는 눈앞에 놓아야 할 목숨같은 꽃뭉음이란 파
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선렬들이 피로써 찾아준 조국을 피로써
받들고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가야 할
세대의 임무를 자각한 우리 새세대들이 한치의
드림도 없이 목숨바쳐 지켜야 할 그 맹세가 아니
겠습니까.

저는 백두의 물물이 든 군복을 입은 당의 전사
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 당의 추억속에서 더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영생하는 이들처럼 제 한생을
값있게 살수만 있다면 어제 우리 조국을 위해,
당을 위해 20살의 꽃나이, 저의 생을 다 바친대
도 조금도 아쉬운것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나 이 시를 읽고 또 읽으면서
혁명렬사릉의 붉은 기폭밑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투사들의 그 눈길앞에 부끄럼없이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편집부에서 이런 좋은 시들을 더많이
편집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인민군 예술학원 학생
서영옥

형상의 매력은 어디 있는가

-단편소설 《취재길에서 만난 너인》을 읽고-

박춘택

아들딸 자식들을 키울 때에는 커가는 재롱에 언제 세월이 가버리는지조차 모르다가도 다 키워놓은 때에는 한꺼번에 천만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다.

자식들이 참된 인간의 값을 가지겠는지, 혹은 세월의 눈비속에서 피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연약한 꽃나무와 같이 되거나 않겠는지...

자식들의 각이한 운명의 길, 바로 여기에는 부모의 성의있는 노력과 책임이 비껴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아들딸 자식들을 거느린 부모의 책임은 무엇이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부모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단편소설 《취재길에서 만난 너인》(김귀선)은 바로 현실적으로 의의있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고있다.

소설은 당앞에 성실했던 아버지의 고귀한 뜻을 딸에게 심어주어 그 뜻을 따라 그가 변함없는 충성의 한길을 걷도록 이끌어주며 시대와 조국앞에 부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숨은 노력을 바쳐가는 한 너인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는 중요한 요인은 이야기 자체가 생동하고 흥미있게 전개되고 있다거나 사업과 생활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절실한 문제를 제기하고있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제기된 문제가 생활적인 진실한 성격형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해명되고있는데 있다.

소설을 읽어나면 가정밖에 모르던 한 연약한 너인이 시대와 조국을 알고 거기서 부모가 서야 할 위치를 깨달으며 점차 가정과 사회 앞에 인간적량심과 성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깊은 여운으로 가슴에 간직하게 된다.

작품의 주인공의 성격형상에서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것은 구체적인 생활계기와 정황에서 체험하는 주인공의 사상과 풍부한

감정과 섬세한 심리를 산 인간의 숨결과 체취가 느껴지게 생동하고 진실하게 묘사한것이다.

소설의 주인공 림경숙은 우리 생활의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소박하고 평범한 녀성이다.

그는 얼마전까지만해도 남편에게서 우물안의 고기도 못되는 어항속의 《금붕어》라고 불리울만큼 가정의 행복만 생각하면서 사회적의무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녀성이였다.

그는 건설기사인 남편이 가끔 집을 나가있는데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껌하면 투정질을 하곤하던 말하자면 응석꾸러기였다.

우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녀성이였다.

주인공의 이와 같은 초기 성격은 형상을 개성화할수 있는 바탕으로 된다.

소설은 또한 생활적계기들과 정황들을 옮겨 설정하고 거기에서 표현되는 주인공의 심리감정세계를 섬세하게 그려나감으로써 그 이후의 성격발전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남편없이 홀로 외동딸을 키우면서 어머니로써 할일에 대하여 그리고 자식의 운명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던 림경숙에게 딸 예봉이의 전망문제가 제기된다.

그런데 림경숙에게 있어서 딸의 전망문제는 단순히 딸에게 직업을 알선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뜻을 딸에게 이어주느냐 못주느냐 그리고 딸이 당앞에 성실했던 아버지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되는 심각한것이였다.

그것은 어느날 아버지는 매번 출장만 가셨다고 하면서 배우인 남순이 아버지가 부럽다고 하는 딸애의 말을 들으면서 더욱 심각한것으로 되였다.

남편에 대한 자기의 불평, 안해로서 남편의 사업을 돕지 못한 일 등은 그대로 딸에게 영향을 주었던것이다.

때문에 딸 예봉은 정작 졸업을 앞두고 전망문제를 토론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 건설부문 학교에 가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그의 마음의 고통은 더욱 큰 것이었다.

장작을 패다가 발등을 상했으나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며 날이 이미 저물고 방안에 불을 켜으나 마음속에 스며든 어둠은 밀어내지 못하여 방이 밝은줄을 모르며 딸애가 곁에 있으나 인적없는 곳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는 그의 심리세계.

그 어데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당의 뜻을 진심으로 받드는 길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수있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것을 어머니는 늦게야 알았다고 하면서 딸에게 말해주는 그의 내면심리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머니의 절절한 이야기를 듣고 흐느끼는 딸 예봉의 극적체험세계는 얼마나 진실하게 안겨오는 것인가.

사실 심리세계의 묘사가 극적 계기와 정황에서 체험하게 되는 인간의 구체적인 심리정서적과동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하게 되면 성격이 기정사실화되게 된다.

소설에서는 사상감정을 미리 주어진 형태로가 아니라 정당하게도 생활속에서 드러나는 주인공의 사상감정을 그에 고유한 성격론리를 따라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당에 충실했던 아버지의 뜻을 이어 그저 건설부분 학교에라도 갔으면 했던 어머니의 생각을 초월하여 예봉이가 음악무용대학으로가 아니라 용약 속도전 청년돌격대에 탄원해나섰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만엔 그렇게도 예봉이한테 애타게 바라던 일이였지만 정작 당하였을 때 겪게 되는 어머니 림경숙의 심리적과동, 오히려 그것이 인제는 한편 섭섭하고 허전함을 느끼는 어머니의 심정 그리고 나약해지는 마음을 굳게 가지느라 모대기는 그의 체험세계, 이것은 성격의 론리에 충실한 감명깊은 진실한 묘사이다. 과연 이것이 귀여운 자식의 창창한 미래를 두고 마음을 쓰는 어머니의 심리 그대로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맑은 시내물과도 같은 량심을 지닌 한 인간의 초상을 보게 된다.

주인공의 심리에 대한 진실한 묘사는 돌격대예 나와있는 딸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에 겪는 그의 극적체험세계에서도 볼수 있다.

다 일하러 나간후 혼자서 침실에 누워있는 나약하고 몇몇치 못한 모습, 이것이 그가 찾아온

딸애의 모습이였다.

딸자식에 대한 크나큰 기대와 모성애의 류다른 심정을 안고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험한 눈길을 헤치고 와서 이런 딸애의 모습을 대하게 되는 순간 림경숙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기가 막혀서 딸애를 붙잡고 먼저 자기 설움에 실컷 울다가 《배낭을 꾸려라. 차라리 가고말자구나. 네가 어떤 몫으로 왔기에 이렇게 산단말이나?》라고 말한다.

얼마나 절절하게 울리는 말인가.

아직 딸애 못지않게 생활의 시련을 헤쳐보지 못했고 혁명적수양의 언덕길을 툭아오르고있는 연약한 녀인임을 생각할 때 그의 심리세계에 대한 묘사는 참으로 진실하다.

이처럼 주인공 림경숙의 성격적미는 극적정황속에서 체험하는 그의 심리정서세계를 생활 그대로 진실하게 그린데서 그리고 주인공의 형상을 그 성격의 고유한 생활론리를 파고들고 생활과 함께 성장하는 산 인간으로 인상깊게 묘사한데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단편소설 《취재길에서 만난 녀인》이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불러일으키는것은 가정론리적인 문제를 통하여 거대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예술적으로 해명한것과도 관련되고있다.

이 소설에는 한 평범한 가정에서 벌어지고있는 생활, 구체적으로 남편과 안해, 어머니와 딸과의 애뜻한 인정생활이 그려져있다. 소설이 담고있는 생활은 자식이 있는 집이라면 그 어느 집에서나 있게 되는 생활, 아들딸을 거느린 부모라면 어느 부모를 막론하고 체험할수 있는 평범한 생활인것이다.

아들딸 자식들을 다 키워 부모의 슬하에서 사회의 각이한 초소로 떠나보낼 때 우리의 주인공 림경숙이 겪은 그러한 고충을 체험하지 않은 부모들이 과연 어데 있으며 자식의 전망문제를 두고 생각하여 보지않은 가정이 어데 있으랴.

우리는 이 소설을 읽으며 이 소박한 가정적인 이야기를 사회와 조국 그리고 당이라는 숭고한것과 결부시켜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무엇때문인가. 이것은 이 작품에서 전개되고있는 가정적이야기, 남편과 안해, 어머니와 딸과의 혈육관계에서 벌어지는 인정적인 이야기가 그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속에서 커다란 시

대적인 문제, 사회정치적문제가 철학적으로 해명되고있기때문이다.

딸 예봉이가 아버지가 배우로 되지 못한것을 한탄하며 조국앞에 성실해온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게 된것은 림경숙자신의 그릇된 인생관, 생활관으로부터 야기된것이었다.

다시말하여 림경숙이가 우리 사회의 세포로서의 가정을 사회와 조국과 결부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한 부부사이의 단란한 생활을 가정생활의 전부로, 가정의 행복의 전부로 리해한 잘못으로부터 나온것이였다.

림경숙의 이 잘못은 그대로 남편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났던것이다.

림경숙의 생활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서의 불철저성은 그대로 딸 예봉에게 미친다.

그리하여 림경숙은 딸을 이와 같이 불효자식으로 만들게 한 자책감이 크면 클수록 돌아가신 남편앞에, 그리고 조국앞에 자신을 다시 세워보게 되며 한편 반성하게 되는것이다.

그리하여 작품에서는 예봉이의 전당문제가 전당문제 그자체가 아니였고 아버지의 대를 잇는 문제는 아버지가 하던 직업의 단순한 물림이 아니라 당에 대한 충실성의 계승문제로 제기되고 해명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소설에서 딸 예봉이가 속도전 돌격대에서 위훈을 떨치며 앞장에서 일해나갈 때 림경숙이 안해로서 남편의 뜻을 받들었다는 단순한 가정적틀리만이 아니라 당과 조국을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받들어나가는 고상한 복무정신, 사회와 조국과 당 앞에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보며 시대의 격류속에서 참답게 생활하는 한 인간의 새로운 탄생을 보게 되는것이다.

이처럼 소설이 가정률리적문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이 가정적인 틀리문제가 조국과 당을 알고 당의 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사회적문제로 승화시켜 자연스럽고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는 여기에 이 작품의 독창성이 있고 사람들을 문학세계에 끌어들이는 매력과 견인력이 있는것이다.

단편소설 《취재길에서 만난 녀인》은 우리 작가들에게 작품을 소박하고 생활적으로 쓸 때 형상의 참신성과 철학적심오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 진정한 창조의 세계가 있다는것을 일정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인위적인 사건, 억지스러운 《개성》, 비현실적인 정황 등이 아니라 소박하고 평범한 생활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그리고있다.

작품은 오늘 일부 창작가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그릇된 창작경향, 읽히우는 소설을 쓰며 성격의 개성화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충격적이고 특이한 생활에 미련을 가지거나 생활을 과장하고 미화분식하며 비전형적인것을 끌어들이고 쓸데없는 멋을 부려 인기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릇된 창작태도를 돌이켜보게 한다.

진정한 창조의 세계, 형상의 품위는 소박하게 생활적으로 쓰는데서 이룩되는것이다.

물론 단편소설 《취재길에서 만난 녀인》은 약간의 부족점도 가지고있다.

그것은 림경숙이가 딸 예봉에게 건설부문학교를 갈것을 바라는 설정이다.

작품에서는 예봉이가 예술부문에 재간을 가지고있지만 음악무용대학이 아니라 건설부문학교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생활적타당성을 더 주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형상권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생활적타당성이 깊이있게 주어지지 못하였다.

때문에 소설은 독자들에게 예봉이가 예술부문에 뛰어난 재간이 있다면 그곳 음악무용대학에 가서 안될것이 있겠는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면 꼭 건설부문학교에 가야만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고있다.

다음 예봉이가 속도전돌격대로 떠나던 날에 하는 반장을 비롯한 인민반아주머니들의 이야기에 대한것이다.

그들은 외동딸을 속도전청년돌격대로 떠나보내는데 대해 그것을 한결같이 못마땅한 처사로 말하고있는데 그중에서 적어도 반장만은 림경숙의 결심을 지지해주고 일정하게 교양적립장에 서도록 향상하는것이 좋았으리라고 생각한다.

또 이렇게 하는것이 현실에 대한 진실한 반영으로도 되는것이다.

단편소설 《취재길에서 만난 녀인》은 약간한 부족점은 있으나 80 년대인간들의 새로운 성격적미를 탐구형상하는데서 일정한 경험과 교훈을 주는 작품이다.

해와 별 빛나는 곳에서

-북반부에 들어왔던 남조선의 한 어민이 부른 노래-

문동식

혈육

여기에는
나를 낳은 어머니가 없고
여기에는
내가 안겨자란 교향이 없고...

나의 그 무엇이 여기에 있어
이리도 뜨겁게 맞아주는것인가
꽃다발을 안겨주며
눈물어린 두볼을 내 얼굴에 비비며

내가 무엇이길래
풍랑에 부서진 배조각을 붙잡고
거품처럼 사라지던 내가 무엇이길래
파도헤쳐 구원의 손길을 안겨주고

얼싸안고도
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자나깨나 언제나 그리웠노라고

걱정에 울먹이며
머리들어 바라보니 하늘에도 그 마음
화려하게 솟아오른 집집의 창문들도
활짝 열려 나를 불러주고있구나

내 떠나온 저 남녘땅
《호화거리》 변화한 집들은
언제 한번 나를 향해 문열어주었던가
비내려 처마밑에 다가만 서도
침을 뱉으며 내쫓던 그 멀리...

그런 날
그런 밤이면
찬바람 휩쓰는 다리밑에 누워

북극성을 바라보며 잠못들던 내 마음

그 마음 한푼에 안으시고
낮이나 밤이나 기울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해빛
저 창문마다에 빛나고있구나

한송이 꽃망을 바라보아도
터치면
온 남녘땅에 넘쳐날 향기
터치면
열었던 가슴마다 피여날 기쁨

오늘의 하루에
지난 세월 땀한 설음 다 가져주시고
오늘의 한시각에
행복의 천만뿌리 내려주시는
그 고마움에 눈시울 적시나니

낳아준 어머니도 줄수 없었던
행복의 숨결을, 밝은 앞날을
순간에 다 나에게 안겨주는
이 땅은 진정 나의 어머니
이 땅은 두번다시 태어난 나의 교향

오, 우심한 세월에
분렬의 장벽은 더 높이 쌓여도
해와 별 받드는 남북의 마음은
여기에 하나로 고통치고있구나

그 어떤 총칼로도 끊을수 없는
민족의 뼛이 되어
혈육의 피줄이 되어

이 요람우에...

꿈만갈아
정말 꿈만갈아
밤은 고요히 깊어가도
잠들수 없어

누워서도
앓았어도
나는 만져본다
병동의 하얀 침대

선주님의 채찍에
피멍이 들며
사나운 풍랑에
락엽처럼 밀려가던-

아, 내 몸을
포근히 안아주는 요람
은혜로운 사랑이 오리오리
담요에 깃들어
열었던 가슴을 녹여주는 품

여기에 다 부르고싶구나
내 떠나온 그 생지옥
한푼 돈이 없어 병원의 문앞에
이슬처럼 숨지던 그 생명들을

여기에
다 읊히고싶구나
《계엄군》의 총창에 중상을 입고
이 밤도 판자집 차디찬 구석에서
아픔에 신음하는 그 청춘들을

간절한 마음
우뢰처럼 터쳐
부르고 또 부른다 해도
여기에 못오는 모습들을 안고
내 이 밤 잠 못드나니

나는 가리랴
마음속에 이 요람을 안고
내 떠나온 그 어둠속으로
아픔과 고통, 불행속으로

이 요람 안겨주면
눈꽃 날리는 한지에 누웠어도
가슴들엔 희망의
봄꽃이 피어나고

파쑈의 쇠사슬이
손목에 울어도
가슴들엔
항거의 불길이 솟으려니

아, 이 밤
내 받들린 이 요람은
마음과 마음속에
끝없이 펼쳐져
온 남녘땅을 품어줄 새세상

그 세상의 첫 주인되어
나는 이 밤 요람에 안겨있구나
뜨거움에 젖어
고마움에 젖어

사랑의 길

입원실 문을 여니
거울같은 대리석 복도
꽃무늬 아롱진 푸른 주단우에
차마 발걸음 옮길수 없구나

복도의 복판으로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하누나
저 멀리 서해기슭 황철에서 왔다고
쇠물을 끓이는 용해공이라고

걸어오는 풍채좋은 저 사람은
그 어느 회사의 사장이 아닐까?
승강기에서 내리는 저 녀인은
그 어느 재벌의 귀부인이 아닐까?

내 조심히 다가서 물어보니
믿을수 없어
내 다시금 다가서 물어보니

너인은 나에게 웃으며 말하누나
멀고먼 북관 삼수에서 왔다고
거기서 농사짓는 농장원이라고

황철이라
삼수라
그 이름 되새기며
내 머리들어 창밖을 바라보니

저 멀리 해빛밝은 거리와 거리들
병원의 복도에서 뻗어간듯싶구나

아, 령넘어 천리 산간마을로
갈매기 춤추는 어촌마을로
뻗어간 중앙병원 병동의 이 복도는
이 땅의 누구나 활개치며 오고가는
무병장수 사랑의 큰길이로구나

나도 따라웃는다

아늑한 불빛
흐르는 병동
내 잠시 거닐어도 귀전에 들려온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여기는
단란한 가정의 집도 아니
휴식을 즐기는 피서지도 아니
그런데 무슨 웃음일가?

정녕
놀라워
문가에 다가서니
도란도란 울려나는 다정한 이야기
열이 좀 나서 찾아왔더니
이렇게 입원시키더라고
이젠 다 나았는데도
놓아주질 않아 걱정이라고

아, ऐसा하게 하는 그 말에도
내 귀전에 울려온다

울음소리 울음소리...
40 리 밤길 어린것을 등에 업고
허위허위 달려갔던 《국민병원》이여

사정해도 애걸해도
돈이 없다고
발로 차며 내쫓던 그 호령소리
끝내 숨진 어린것을 품에 안고
내 온밤 설음을 뿌리지 않았더냐

아, 그런데 여기서
웃음소리 웃음소리...
재롱을 부리는 어린것을 쳐들고
애무하는 어머니의 웃음소리

따사론 사랑의 해와 별빛에
피어나는 그 웃음 그 기쁨이
내 가슴속에 뜨겁게 흘러들어
이 밤 나도 웃음따라 웃는다
난생처음 시름없는 웃음울...

해빛 따사로운 입원실 창가에
만발하게 피어난 아름다운 꽃
아롱다롱 곱게도 피어났구나
향기도 그윽히 피어났구나

깊은 막장에서 여기 왔던 탄부도
먼바다 어장에서 찾아왔던 어부도
아침마다 물을 주며 가꾸었다지
소생과 회복의 기쁨을 안고

노을피는 이 아침 화분앞에 다가서니
송이송이 꽃속에 안겨오누나
내 아직 한번도 만나못본 얼굴들
내 아직 뜨겁게 잡아못본 그 손들

이 아침엔 내가 물을 준다
오랜 세월 고역속에 용이처럼 굳어졌던
병마의 상처를 가져낸 기쁨

꽃

초롱에 담아서 화분마다 술술...

해빛속에 별빛속에
새 생명 받아안은
나의 기쁨도 꽃마다 깃들어
나날이 더 활짝 피어나리니

아, 화분의 꽃
다시 보니 정녕 꽃만이 아니구나
장군님의 한품속에 꽃으로 피여날
남북형제의 한모습이구나

창문을 연다

악마의 마굴이
내 몸에 남기었던
치욕의 상처를 가지고
내 다가선 병동의 밝은 창문

아, 나는 연다
받아안은 새 삶의 환희를 안고
판자집 거적문만 열던 손으로
하늘땅이 비껴있는 행복의 큰 문을

순간-
나를 불러 달려오는듯
한눈에 안겨오는 락원의 거리여
메아리쳐 울려오는 렬차의 고동이어
약동하는 생활의 아름다운 음향이어

기아에 숨지는 불모지의 신음안고
총칼에 피흘리는 남녘의 아픔안고
잠들줄 모르는 이 땅의 마음
재부의 뒤편으로 높이도 솟았구나

여기선
그 어느것이나 나의것으로
굶주리고 헐벗은 남녘의것으로

지옥속의 민중을 부르고있나니

남녘의 겨레여
싸우는 혈육이어
매국역적무리들의 《남침위협》소동은
비쳐가는 통일의 해빛을 막으려는
죽어가는자들의 어리석은 기만극

분렬의 장벽은 더 높이 쌓여도
미친듯 야수들이 모략극을 벌려도
진리와 정의의 힘은 막을수 없는것
애국애족의 위대한 해와 별빛
동토대의 끝까지 빛발쳐가나니

불멸의 그 빛을 가슴마다 안고서
영생의 꽃들은 피어나리라
얼음덮인 대지우에 눈석이 봄은 오고
불사의 녀들은 무성하게 자라리라

아, 파쑈들 불태울 그 항쟁대오에
새 삶의 억센 뿌리 깊이 내리며
나는 연다 이 땅의 밝은 창문
환호의 열풍속에 남북이 얼싸안을
조국통일 그날의 대문을 활짝 연다

나는 노동자

권대봉

1

철들기도전에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단한벌 훌륭한 노동복을 입고
고역에 시달리던 그 세월

해진옷사이로 드러난 어깨엔
언제나 피멍이 들어있었고
내 땀이is는것은 쇠물이 아니라
부모없는 고아의 설움이였다

고역으로 해가 뜨고 지던
조국이 없던 그 세월
나는 략탈의 수난자
나는 노동의 노예였다

2

해방의 환호성
이 땅에 터져오르던 그날
맨먼저 용해장을 찾아주신분
그분은 우리의 수령님이시였다

수령님은 나의 아버지시였다
터갈린 나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실 때
가슴속의 피멍도 녹아내리었고
저도 모를 큰 힘이 솟구쳐올랐다

나와 같은 노동자들을 믿고
새조선을 세우려 한다 하실 때
나는 공장의 주인으로
계급의 선봉에 선 기수로
새롭게 태어났다

3

언제나 내 땀이is는 쇠물빛은
푸르른 조국의 하늘가에
아름다운 노을로
내 한생의 기쁨으로 피어난다

그 노을은 이 땅을 물들여
풍요한 전야
락원의 창가에
행복의 웃음으로 비껴흐른다

위대한 그 품에 안겨
창조의 마치를 틀어쥐고
나는 시대와 조국 앞에 가슴을 편
가장 성스러운 삶을 지냈다

아, 그 이름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나는 긍지높은 노동자!

우리의 념원

김일왕

얼마나 송구스러웠던가
우리 수령님
20 년만에 고향집을 찾으시던 날
이 길에 꽃한송이 피여드리지 못한 마음

오, 세월과 함께 쌓이고 덧쌓인
인민의 그 마음 헤아리시여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여기에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셨나니

마음이면 가장 간절했던 그 마음을
땀이면 가장 흘리고싶었던 그 땀을 바쳐
조국광복의 맹세를 안으시고
수령님 떠나셨던 이 길을
세상에서 제일 넓게 다지고

한장의 벽돌도 하나의 벽체도
우리 마음을 고이듯이 없어
조국을 광복하고 돌아오셨던
수령님의 그 위업 빛내여가리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뜨거운 광복거리
이 거리는 온 세상이 들어설
만경대의 관문이거니

해를 넘으며 질여졌고
흐르는 세월우에 쌓이고 덧쌓인
우리 인민의 그 념원을
우리 당이 펼친 설계도우에
80 년대의 대기념비로 일떠세우리

원혼들

문재건

밤마다
그들은 온다
나를 찾아
그들은 온다

그날의
그 처참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온다

한많은
광주의 원혼들이
끝없이 끝없이
밤마다 찾아 온다

내 가슴 두드리는
절통한 부르짖음
산자에게 고하는
원혼들의 피서린 하소

-미국놈은 살인자다

혼은
없다
허나 산자가 있기에
혼은 있는것이다

그 원한
구천에 사무쳤기에
원혼이 생긴것이다
피흘리는 원흉들이

날이 밝으면
피발선 눈으로
나는 바라본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안고

성난 눈으로
바라본다
그 언젠가 그 원한을 풀고야말
기어코 기어코 오고야말 그 순간을